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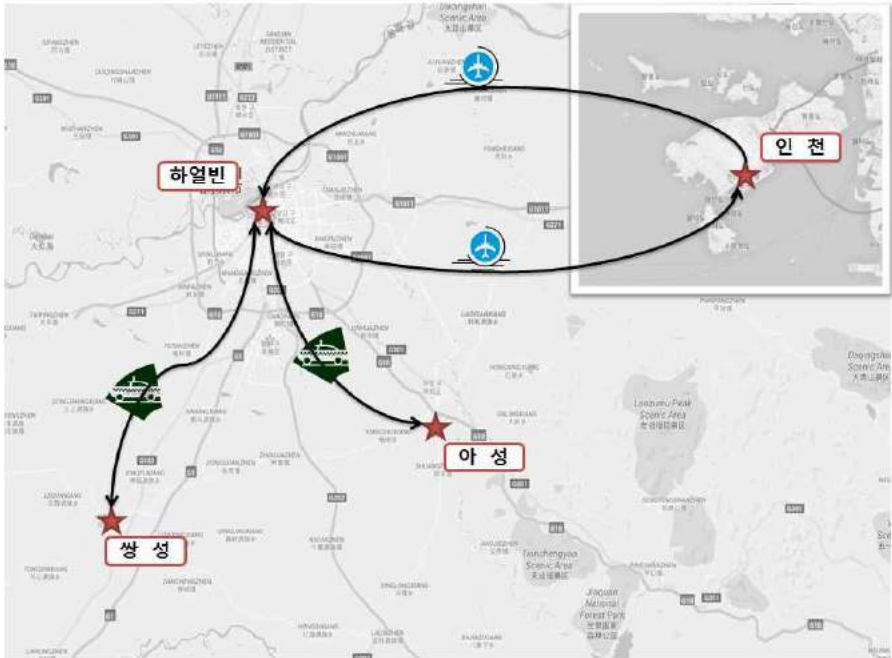
| 2016년 동아시아사 교원 현장 연수 |

중국에서 만나는 동아시아

일시 2016년 8월 7일(일)~10일(수)

장소 중국 하얼빈-쌍성-아성





항공사	구분	출발지	도착지
아시아나 (OZ)	출국	인천	하얼빈
	출국일 인천공항 3층 M19 카운터 집결(10:00)		
	귀국	하얼빈	인천

항공스케줄

구분	일자	편명	출발	도착	비행 시간	
출국	8/7	OZ 339	인 천	하얼빈	13:20	2:10
귀국	8/10	OZ 340	하얼빈	인 천	17:50	2:20

〈 목 차 〉

I. 개요

• 일정	07
• 중국 개요	08
• 하얼빈 개요	10
• 숙소 정보	12
• 중국 입국 절차	14

II. 답사정보와 참고자료

• 첫째날 (8.7)	19
* 강연- 안중근 의사의 ‘하얼빈 의거’와 동양평화론	25
* 자료- 침화일군 제731부대 죄증진열관	47
• 둘째날 (8.8)	71
* 자료- 북방민족, 북방왕조의 이해	76
• 셋째날 (8.9)	91
• 넷째날 (8.10)	99
* 자료- 중국 동북지역의 독립운동과 주요 한인 단체	101
• 루밍리스트	136
• 중국 비자	137

I.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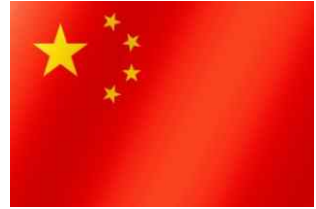
□ 일정

일 자	지 역	교통편	시 간	일 정
제1일 8/7 (일)	인 천 하얼빈	OZ 339	12:10 13:20 14:20 15:20 16:00 18:00	인천국제공항 출발 하얼빈국제공항 도착 (약 2시간 10분 소요) 하얼빈으로 이동 (약 1시간 소요) ■ 안중근 기념관(하얼빈역) ■ 제충교 ■ 조린공원 ■ 일본 영사관건물(외관) 석식 ■ 중앙대가 * 강의: 안중근과 중국동북지역 독립운동
제2일 8/8 (월)	하얼빈 쌍 성 하얼빈	전용차량	08:30 09:30 11:30 12:30 13:30 14:40 16:00 17:10 18:00	■ 성 소피아 성당 (08:30-17:00) ■ 유태인 박물관 중식 ■ 북대항 박물관 쌍성으로 이동 (약 1시간 10분 소요) ■ 승은문, 쌍성총관부 하얼빈으로 이동(약 1시간 10분 소요) 석식 ■ 송화강, 러시아거리 * 강의: 중국 북방민족 / 731부대 진열관
제3일 8/9 (화)	하얼빈 아 성 하얼빈	전용차량	09:00 11:00 12:00 13:00 14:00 15:00 16:00 17:00 18:00	■ 731 부대 진열관 ■ 동북열사 기념관 중식 ■ 흑룡강성 박물관 아성으로 이동(약 1시간 소요) ■ 금태조릉 ■ 금 상경역사박물관 하얼빈으로 이동(약 1시간 소요) 석식 * 교사교류회 및 간담회
제4일 8/10 (수)	하얼빈 인 천	전용차량 OZ 340	오 전 14:30 17:50	■ 정율성 기념관 ■ 방홍기념탑, 스탈린공원 하얼빈국제공항 출발 인천국제공항 도착 (약 2시간 20분 소요)

※ 상기 일정은 항공 및 현지 사정으로 인해 다소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중국 개요

- 공식명칭 : 중화인민공화국
- 수 도 : 베이징(Beijing)
- 인 구 : 약 134,958만 명(2013년 기준)
- 면 적 : 9,600,000km(한반도의 약 44배)
- 언 어 : 중국어
- 국가형태 : 노동연맹에 기초한 인민민주독재의 사회주의 국가
- 정부형태 : 공산당 일당 독재(형식상 8개 정당존재)
- 행정구역 : 4개 직할시, 22개 성, 5개 자치구, 2개 특별자치구
(중국 정부는 대만을 23번째 성으로 간주함)
- 종교 : 도교, 불교, 기독교, 이슬람교
- 국제전화 : +86
- 통화 : 위안(¥)
- 시 차 : 한국시각보다 1시간 늦음



서해 너머에 있는 거대한 나라, 중국

중국의 정식 명칭은 중화인민공화국(People's Republic of China)이다. 중화인민공화국의 성립은 1949년 9월에 베이징(北京)에서 개최된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제1차 전체회의에서 선언되었으며, 이어서 10월 1일 마오쩌둥(毛澤東) 주석이 천안문 광장에서 “중국 인민은 일어섰다”고 선포함으로써, 공식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의 건국을 대내외에 공표하였다. 국경절(國慶節)은 바로 이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제정된 것이다.

중국의 기후

국토가 넓고 변화가 풍부하므로 기후 역시 한 나라 안에 다양하게 나타난다. 여름기온이 35℃를 넘는 장강연변이 있는가 하면, 겨울 기온이 -30℃까지 내려가는 동북지방도 있다. 실크로드 지방에서는 밤낮의 기온 차가 20~30℃까지 나기도 한다.

중국의 소수민족

중국은 56개의 민족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중 94% 이상을 한족(漢族)이 차지하고 있으며, 장족, 회족, 묘족, 만주족 등 55개의 소수민족이 나머지 6% 정도를 차지한다. 그 중 우리나라와 밀접한 관계를 지닌 조선족은 약 200만 명이며, 이들 대부분은 연변 조선족 자치구에 살고 있다.

이렇게 다양한 민족들로 구성된 국가의 안정된 통일을 유지하기 위해서 중국은 모든 민족의 평등이라는 이념을 기반으로 하여 잘 짜여진 소수민족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이 정책은 무엇보다 소수민족의 지역자치를 시행토록 하며 민족 고유의 문화를 존중하고 그들의 언어와 문자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또한 소수민족의 종교적 자유를 보장해주고 그들의 사회적 환경과 삶의 질의 개선과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수많은 소수민족들의 지지를 얻고 있다.

중국의 인구

현재 중국의 인구는 13억 4천만 명 정도로(2012년 기준), 6년 9개월이면 1억의 인구가 늘어나는 급격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많은 인구는 중국의 경제적·정치적 힘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어 ‘한 자녀 갖기 정책’을 시행하게 만들었다. 이로 인해 도시에서는 성별을 가리지 않고 한 자녀밖에 가질 수 없고, 노동력이 필요한 농촌에서만 첫째가 딸일 경우 둘째까지 낳을 수 있다. 만약 법을 어기고 둘째 아이를 낳을 경우, 아이를 호적에 올릴 수 없다. 이렇게 호적에 올리지 못한 아이를 흑해자(黑孩子), 우리말로 ‘검은 아이’라고 한다. 반면, 도시에서 외동으로 과보호를 받고 자란 아이들을 소황제(小皇帝)라 부르는데, 이들은 사회 적응력이 떨어져 또 다른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 하얼빈 개요



중국 헤이룽장성의 성도

하얼빈시는 동경 125°42′- 130°10′, 북위 44°04′- 46°40′에 위치해 있으며, 헤이룽장(黑龍江)성의 성도이자 중국 동베이(東北) 북부 지역의 정치, 경제, 문화 중심이다. 하얼빈시는 중국 성(省) 직할시 중 면적이 가장 크고 인구는 두 번째로 많은 대도시이다. 하얼빈시의 면적은 5.31 만km²로 그 중, 도심 지역 면적은 7086km², 8개의 구와 10개의 현으로 구성 되어 있다. 2009년 말까지 총 인구수는 991.6만, 48개의 민족이 있으며, 그중 소수민족 총 인구수는 66만 명이다.

하얼빈은 동북아 중심에 위치해 있으며, 유라시아 대륙교의 진주로 불리고 있다. 또한 유라시아 대륙교와 항공로의 중요한 중추이다. 하얼빈 경내의 크고 작은 하류는 거의 다 송화(松花)강과 무단(牧丹)강의 계열에 속하며, 6-9월은 전년 집중적인 강수기이며 연 평균 강수량은 569.1mm 이다. 기후는 중온대(中溫帶) 대륙성 계절풍 기후로 겨울이 길고 여름은 짧으며, “얼음 도시(冰城)”라는 미명을 가지고 있다. 하얼빈시에서 발견된 광산 종류는 63개이며 매장량이 확인된 광산 종류는 25개이다. 그 중 에너지원 광산은 1개, 금속 광산

은 10개, 비금속 광산은 14개이다. 하얼빈시는 총 12곳의 자연 보호구역이 있으며, 그 중 성급(省級) 자연보호구 4곳, 자연보호 면적은 11,94만 헥타르다. 국가 일·이급 중점보호 대상에 속하는 야생 동물은 50종류이고, 국가 일·이급 중점보호 식물은 7종류이다.

하얼빈의 철도는 주로 하대(哈大), 빈수이(濱綏), 빈저우(濱州), 빈베이(濱北), 라빈(拉濱) 등 5개로 국내 각지와 연결되고 있다. 하얼빈의 수중 운송 항선은 쑹화(松花)강, 헤이룽(黑龍)강, 우수리(烏蘇里)강과 닌(嫩)강에 분포돼 있으며, 러시아 원동의 일부 항구와 연결돼 있다. 하얼빈의 수중 항선은 동으로 타타르 해협, 일본, 조선, 한국 및 동남아 지역에 이른다.

하얼빈 타이핑(太平) 국제 공항의 연간 이용자수는 443.7만 명이고, 23개 국내의 항공 회사들이 하얼빈 공항에 진출해 있으며, 국내, 국제 항선은 82개로 통합 항선 도시는 47개이다. 현재 하얼빈을 중심으로, 국내 중요 도시는 물론, 러시아, 일본, 한국 등 주변 국가와 유럽, 미국 등 주요 국가와의 공중 교통 네트워크를 형성하였으며, 이미 동북아의 주요 공항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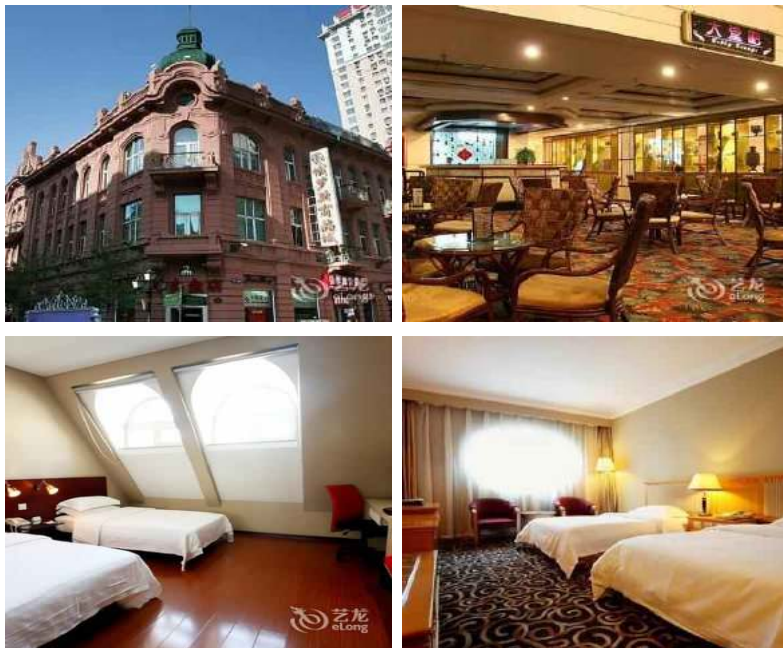
특수한 역사와 지리적 위치로 인해 하얼빈이라는 도시는 이국적 이채가 깃든 아름다운 도시이자, 북방 소수민족의 역사 문화와 함께 중서(中西)문화가 융합 된 중국의 유명 한 역사 문화 도시이자 관광 도시이다. 하얼빈은 “문화의 도시”, “음악의 도시” 및 “얼음의 도시”, “백조 목위의 진주”, “동방의 모스크바”, “동방의 작은 파리”라는 미명을 가지고 있다.

하얼빈지역과 한국독립운동

하얼빈은 1909년 10월 26일 안중근의사의 이등박문伊藤博文포살한 곳이다. 안중근 의거자인 하얼빈 역 구내에는 최근 안중근의사기념관이 마련되었으며, 안중근의사가 의거 전에 일시 노닐었던 조란공원 옛 하얼빈공원에는 안중근의사의 유목이 돌에 새겨지기도 하다. 또한 하얼빈 인근에 일제의 만행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731부대를 찾아 볼 수 있으며, 만주사변 후 한국독립군의 승리의 현장인 쌍성보 전투지도 있다.

□ 숙소 정보

모던 호텔



하얼빈 도심에서 약 3km 떨어져 있으며 공항에서는 38km 정도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지리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는 호텔이다. 총 객실 수는 141실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양한 편의시설을 보유하고 있어 많은 여행객들에게 편안함을 제공한다. 센트럴거리, 자오린 공원, 세인트 소피아 교회에 근접하고 있어 관광 혹은 탐방에 유리하다.

- 주 소: No.89 Central Street, 다오리, 하얼빈, 중국 150010
- 전 화: +86 451 8488 4199
- 객실시설: TV, 에어컨, 커피/티 메이커, 헤어드라이기 등
- 부대시설: 비즈니스 센터, 카지노, 나이트클럽, 피트니스 센터, 마사지 등
- WIFI 제공 여부: 호텔 전 구역 WIFI 무료 제공

준비물 - 필수 물품은 '★', 선택 물품은 '☆'으로 표시

NO	준비물	필수/선택	비 고
1	여행용트렁크	★	일정과 짐을 고려해 잠금장치가 잘 되어 있는 가방
2	작은 가방	★	일정진행시 어깨에 멜 수 있는 개인 물품 휴대용 가방
3	여권 /비자	★	여권 유효 기간 최소 6개월 남은 여권 및 유효한 비자
4	화 폐	★	중국 위엔화 (호텔팁, 포터 팁은 US\$1정도)
5	신용카드	★	해외에서 사용 가능한 카드 준비 (비자 또는 마스터)
6	의 류	★	일정과 지역별 날씨에 맞는 옷 위주로 준비
7	내의/양말	★	일정에 맞추어 준비
8	모자/선글라스	☆	필요에 따라 준비
9	썬크림	☆	필요에 따라 준비
10	세면도구	★	기본 세면도구는 제공되나 칫솔, 치약, 면도기 등은 별도 준비
11	의약품	★	비상 상비약을 제외한 개인 복용 의약품 준비
12	필기도구	★	출입국카드, 메모 등 문서 작성용
13	비닐팩	☆	젖은 옷이나 사용한 옷 등 분류할 때 사용하면 유용
14	카메라	☆	카메라와 함께 메모리 카드 및 충전기 준비
15	메모리카드	☆	디지털 카메라일 경우 준비
16	휴대폰	☆	자동 로밍 또는 공항에서 로밍 신청(충전기 준비)
17	시 계	★	일정 진행시 집합 시간 확인 등에 필요
18	우산(양산)	★	반드시 접는 우산(양산)으로 준비
19	운동화	☆	필요에 따라 준비
20	수영복	☆	필요에 따라 준비

- ※ 위탁수하물은 이코노미의 경우는 무게 23kg(세변의 합이 158cm 이하) 1개까지 무료로 가능
- ※ 기내에는 100ml 이하 용기를 투명 비닐 팩에 넣어야 소지 및 반입 가능하며, 그 외 액체 및 젤류 용기는 위탁수하물에 넣어야 합니다.
- ※ 보조배터리의 경우 기내 수하물로 가지고 타셔야 합니다.
(위탁수하물에는 넣으시면 안됩니다.)

□ 중국 입국 절차

(1) 출입국신고서: 작성은 영문으로 기재

입국 신고서

- 1 성
- 2 이름
- 3 국적
- 4 여권번호
- 5 중국 내 체류 주소
- 6 성별
- 7 생년월일
- 8 비자번호
- 9 비자 발급 도시
- 10 항공편명
- 11 방문 목적
- 12 서명

外国人入境卡 ARRIVAL CARD		请交边防检查官员查验 For Immigration clearance	
姓 Family name	1	名 Given name	2
国籍 Nationality	3	护照号码 Passport No.	4
在华住址 Inland Address in China	5	6 男 Male	7 女 Female
出生日期 Date of Birth	7 年 Year	月 Month	日 Day
签证号码 Visa No.	8	入境事由(只能填写一项) Purpose of visit (one only)	11
签证签发地 Place of Visa Issuance	9	会议/商务 Conference/Business	访问 Visit
航班号/船名/车次 Flight No./Ship's name/Train No.	10	探亲 Visiting Friends or Relatives	就业 Employment
以上申明真实准确。 I hereby declare that the statements given above is true and accurate.		学习 Study	其他 Others
			签名 Signature

출국 신고서

- 1 성
- 2 이름
- 3 여권번호
- 4 생년월일
- 5 성별
- 6 항공편명
- 7 국적
- 8 서명

外国人出境卡 DEPARTURE CARD		请交边防检查官员查验 For Immigration clearance	
姓 Family name	1	名 Given names	2
护照号码 Passport No.	3	4 男 Male	5 女 Female
出生日期 Date of birth	4 年 Year	月 Month	日 Day
航班号/船名/车次 Flight No./Ship's name/Train No.	6	国籍 Nationality	7
以上申明真实准确。 I hereby declare that the statement given above is true and accurate.		签名 Signature	
妥善保留此卡, 如遗失将会对出境造成不便。 Retain this card in your possession, failure to do so may delay your departure from China. 请注意背面重要提示。 See the back →			

※ 비자번호



* 관용어권의 경우 비자번호란을 제외하고 작성해주셔야 합니다.

* 입국 목적은 Tour로 해주셔야 합니다.

(2) 세관신고서: 신고물품이 있을 시 작성

영문

**CHINA CUSTOMS
BAGGAGE DECLARATION FORM FOR INCOMING PASSENGERS**

Please read the instructions on the reverse side and provide information or mark "X" in the space

1. Surname
Given Name: 1

2. Date of Birth: 2 Year Month Day

3. Sex: 3 Male Female

4. No. of Traveler's Document: 4

5. Nationality(Region): China (Hong Kong) Macao Taiwan 5

6. Purpose of the Trip: Official Business Leisure Study
Immigrant Visiting Friends Return Residents Others 6

7. Flight No./Vehicle No./Vessel Name: 7 8. Number of persons under the age of 16 traveling with you: 8

I am (We are) bringing into China's Customs territory (having)

9. (residents) articles valued at over RMB 5,000 from overseas. Yes No

10. (non-residents) articles valued at over RMB 2,000 that will remain in the territory. Yes No

11. over 1,500ml (12% volume) alcoholic drinks, over 400 sticks of cigarettes, over 100 sticks of cigars, or over 50g of tobacco. Yes No

12. Chinese currency in cash exceeding RMB 20,000 or foreign currencies in cash exceeding US\$ 5,000 if converted into US dollar. Yes No

13. animals and plants, animal and plant products, microbes, biological products, human tissues, blood and blood products. Yes No

14. radio transmitters, radio receivers, communication security equipments. Yes No

15. other articles which are prohibited or restricted from being brought into the territory in accordance with the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Yes No

16. unaccompanied baggage. Yes No

17. goods of commercial value, samples, advertisements. Yes No

Passengers who are bringing any articles included in items 9-17 shall fill out this form in detail.

Description	Quantity	Value	Type/Model	Customs Remarks

PASSENGERS SIGNATURE Year Month Date

중문

**中华人民共和国海关
进境旅客行李物品申报单**

请先阅读背面的填表须知, 然后在空格内填写文字信息或划“X”

1. 姓名: 1
拼音 中文 正册

2. 出生日期: 2 年 月 日

3. 性别: 3 男 女

4. 进出境证件号码: 4

5. 国籍(地区): 中国 (香港) 澳门 台湾 5
外国

6. 进境事由: 公务 商务 旅游 学习 定居 探亲访友 返回居住地 其他 6

7. 航班号/车次/船名: 7 8. 同行未满16周岁人数: 8

我(我们)携带(着)

9. (居民旅客)在境外获取的总值超过人民币5,000元的物品 是 否

10. (非居民旅客)携带在中国境内的总值超过人民币2,000元的物品 是 否

11. 超过1,500毫升酒精饮料(酒精含量12%以上), 或超过1400支香烟, 或超过100支雪茄, 或超过500克烟丝 是 否

12. 超过20,000元人民币现钞, 或超过折合10,000美元外币现钞 是 否

13. 动植物及其产品, 微生物, 生物制品, 人体组织, 血液及其制品 是 否

14. 无线电收发信机, 通信保密机 是 否

15. 中华人民共和国禁止和限制出境的物品 是 否

16. 分离运输行李 是 否

17. 货物, 货样, 广告品 是 否

我已将申报单背面所列事项, 真实证明申报属实.

携带有9-17项物品的, 请详细填写以下清单.

品名/币种	数量	金额	型号	海关备注

旅客签名 年 月 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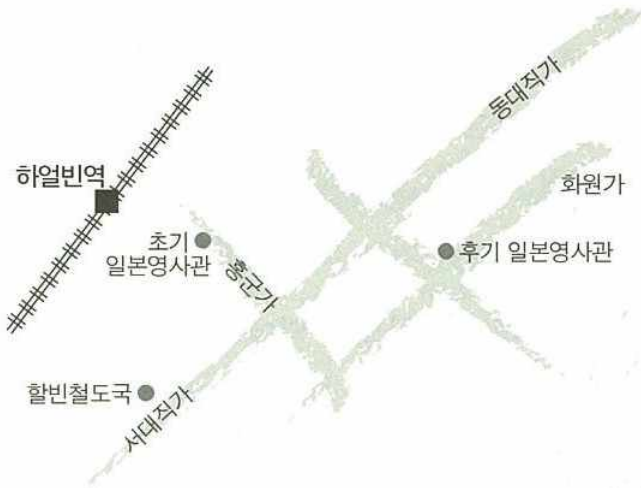
①성명 ②생년월일 ③성별 ④여권번호 ⑤국적 ⑥입국사유 ⑦항공편명 ⑧16세미만 동반소아

Ⅱ. 답사정보와 참고자료

□ 첫째날 (8.7)

하얼빈 역 - 안중근 기념관- 제흥교 - 조린공원 - 일본 영사관건물(외관)
중앙대가

하얼빈 역



안중근 의사 의거 당시의 하얼빈 역사



현재의 하얼빈 역사

안중근 기념관 (하얼빈 역)



(오른쪽) 안중근 의사 초상화 앞에서 기념관 내부를 설명하는 조선족 3세인 서학동 하얼빈시 문화국 부국장

1909년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를 저격한 현장인 중국 헤이룽장성 하얼빈역, 역사(驛舍) 안에는 지난 19일 개관 2주년을 맞은 안중근기념관이 있다. 이곳에서 만난 서학동(56) 하얼빈시 문화국 부국장은 “기념관을 통해 우리 민족의 자랑인 안 의사를 중국인을 중심으로 많은 사람이 알게 돼 뿌듯하다”고 말했다. 조선족 3세인 서 부국장은 기념관 설립을 주도한 하얼빈시 고위 공무원이다. 2006년부터 안 의사와 관련된 사료(史料)를 꾸준히 수집해왔다.

기념관에는 2년 동안 25만명이 찾아왔다. 휴관일(매주 월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400여명이 관람한 것. 현지인과 한국인 관광객뿐 아니라 일본 관광객들도 찾아오고 있다. 200㎡ 넓이의 내부에는 안 의사의 흉상을 비롯해 유년 시절을 보여주는 자료와 그의 동양평화에 대한 설명 자료가 전시돼 있다. 통유리 너머로는 안 의사가 저격한 위치와 이토 히로부미가 쓰러진 위치가 바닥에 표시된 플랫폼이 내려다보인다. 서 부국장은 “일본에서 안 의사를 테러리스트라고 하는 가당찮은 얘기를 역사적 자료를 근거로 눌러버리고 싶었다”며 “안 의사는 평화를 사랑했던 분”이라고 했다.

기념관은 2013년 중국을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에게 “안 의사의 의거 현장에 기념 표지석이라도 설치하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설립이 검토됐다. 일본이 반대했지만 중국 정부가 결단을 내려 표지석 정도가 아니라 기념관을 만들기로 했다. 비용은

전액 중국 정부가 부담했다. 서 부국장은 “상업적 가치가 큰 역사 안에 외국인을 위한 기념관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이례적인 일”이라고 했다. 기념관은 지난해 중국 정부가 항일 전쟁 승리 70주년 기념행사를 대규모로 열 때 중국 전역에 TV를 통해 소개되기도 했다. / 조선일보 손진석 기자 2016.01.27.

안중근 기념관 하얼빈 조선민족예술관

일제시대 대표적인 독립열사, 안중근의 사적을 기념하기 위해 세워진 곳이다. 200평 정도의 공간에 안중근 의사의 손도장, 동상, 유필 및 각종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다. 안중근 의사가 하얼빈에 11일간 머물며 역사적 의거를 기획하고 달성한 과정이 기록되어 있으며,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는 의거를 재현한 모형이 있다.



제흥교

‘비운 뒤 무지개’ 라는 이름의 다리로 1898년 나무로 지어진 다리이다. 철로 위에 놓여진 다리로서 하얼빈 역 구내 송강장을 내려다 볼 수 있다.

이 다리 위에서 안중근 의사는 이토 히로부미 암살 계획을 세우고 구체적인 동선과 암살 방법을 정했다고 한다.



조린공원

하얼빈시 도리구(道里區) 송화강변의 조린가(兆麟街) 북쪽 끝에 위치하는 조린공원은 원래 명칭은 도리공원(道里公園)으로 1900년에 조성되어 하얼빈 최초의 공원이 되었다. 당시 사람들은 항일 영웅이었던 이조린(李兆麟) 장군을 기념하기 위하여 그 유해를 이곳에 안장하고 공원 내에서 장례와 안장의식을 치루었으며, 1946년 정식으로 조린공원으로 명칭을 바꾸었다.



하얼빈 일본총영사관(전기) 건물



안중근 의사가 수감되었던 초기의 일본영사관 건물(현재)



안중근 의사가 구금되었던 초기의 일본영사관 건물(1920년대)

하얼빈 철로국 대외경제기술 합작총공사 건물로 쓰이고 있음
비교적 양호함. 건물 외관의 페인트칠만 달라짐

안중근 의사가 의거 직후 체포되어 구금된 곳

안중근 의사가 하얼빈 역에서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를 사살한 직후 러시아 관헌들에게 심문을 받고, 이곳에 구금되었다. 안중근 의사는 러시아 관헌에게 “대한의병 참모총장으로서 조국의 독립과 평화를 위해 적장을 충살, 응징한 것”이라고 당당하게 진술하였다.

이 건물은 1901년 건축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김우중 선생 증언, 2002년 7월 30일). 특히 지하에 있는 방에 안중근 의사는 1주일이나 갇혀 고통받다가 11월 3일 여순의 관동도독부 감옥으로 압송되었다.

花園街에 있는 일본총영사관 건물에 안중근 의사가 수감되었다는 종래의 고증은 잘못된 것임이 밝혀졌다(『偽滿洲國舊影』 101면 참조). 화원이 일본총영사관은 1926년 지어진 것이다.

하얼빈 일본총영사관(후기) 건물

흑룡강성 하얼빈시 화원가花園街351호, 분투로奮鬪路331호

북만주지역 한인 독립운동을 탄압하던 일제의 중심 거점.

옛날 건물은 없어지고 화원소학교 건물이 세워짐

남자현 여사 등 북만주 지역 독립운동가들이 잡혀 심문을 받던 곳. 허형식 등이 1930년 5월 1일 돌을 던져 항일시위를 벌였던 곳

이 건물은 1926년 건축되어 1935년까지 일본영사관으로 사용되었다고 한다(김우중 증언, 2002년 7월 30일).

이곳에 金東三·南慈賢 여사 등 독립운동가들이 잡혀와 고초를 겪었다. 또 1930년 5월 1일 허형식 등 다수의 한인들이 ‘메이데이’ 투쟁의 일환으로 이 일본영사관에 돌을 던져 유리창을 박살내버린 사건도 유명하다.

이 일본영사관은 2001년 헐리고, 대신 화원소학교 건물이 과거 일본영사관 건물과 유사한 모습으로 세워져 있다.

종래 안중근 의사가 이곳에 수감되었다고 알려졌으나, 이번 조사 및 관련자료(『偽滿洲國舊影』) 검토 결과 사실 무근임이 밝혀졌다.



1926년 세워진 구 일본영사관 자리에
신축된 화원소학교 건물

중앙대가



하얼빈의 변화가인 동시에 러시아, 유럽풍의 건물이 늘어서 독특한 매력과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다. 1450m의 보행자 전용도로를 거닐고 있노라면 “중국 속의 모스크바”, “중국 속의 유럽” 이라는 이야기가 실감나고, 거리 양 옆으로 세계 각국의 다양한 식당과 바, 상점, 기념품점들이 있어 언제나 활기가 넘친다. 1900년대 러시아 사람들이 주로 모여 살았던 곳으로 지금은 상업거리가 되었다.

안중근 의사의 '하얼빈 의거'와 동양평화론

장 세 윤
(동북아역사재단 교육연수원 교수실장)

다시, 안중근

- ▶ 1. 안중근 의사 재평가 배경
- ▶ 2014.1.19 중국 주도로 '안중근의사 기념관' 개관 -> 각종의 국제정세 속에서 안중근의 '동양평화론'의 의미와 정신 재평가할 필요
- ▶ 이후 많은 중국인과 한국인들에게 사랑받는 명소가 되었으나, 일본 관방장관이 안중근에 대해 "사형 판결을 받은 테러리스트" 라고 하며 한.중 양국 정부에 항의
- ▶ 중국 외교당국은 안중근에 대해 "저명한 항일 인사"라고 응수.

그림 1) 안중근 의사 의거 현장 답사 노선 (하나의 사례)



그림2) 러시아 원동(극동)지역 개관



그림3) 러시아 연해주 주요부분 지도



그림4) 부여·고구려 강역과 중국 동북 지방(만주)·연해주 주요 도시



○○○ 그림5) 발해 강역과 중국 동북, 연해주의 주요 도시 ○○○



○○○ 2. 안중근 의사 주요 연보 ○○○

- ▶ (1) 안 의사 관련 최근 동향
- ▶ 2010년 '한·일 강제병합(또는 경술국치) 100년' 과 안중근 의사 100주년을 전후하여 한·일 정부와 학계 등에서 각종 학술행사 주최
- 과거 안중근 의사에 대한 인식 :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독립운동가 -> 현재 '동양평화론'을 제창한 **사상가**로 평가
- 2014.1.19 중국 하얼빈에 '안중근의사 기념관' 개관, 관심 커짐.

○○○ 중국 하얼빈역 구내에 세워진 '안중근의사 기념관' ○○○



○○○ 하얼빈 안중근의사 기념관 구내 기록화 ○○○



○○○ 하얼빈역 구내에 설치된 이동박물관 사살 현장 표지판(위쪽) ○○○



○○○ 안중근 의사 주요 연보 ○○○

- ▶ 1879.9.9(1세) 황해도 해주읍 광석동(廣石洞)에서 안태준(安泰勳)과 조씨(趙氏) 부인 사이에서 3남 1녀 중 장남으로 출생
- ▶ 1885(7세) 고향 해주를 떠나 황해도 신천군 청계동(淸溪洞) 신갈마을로 이사
- ▶ 1886(8세) 조부 안인수의 배려로 유교경전과 조선 역사를 배우기 시작(이후 8~9년 동안 한문을 배움)
- ▶ 1894(16세) 김이리(金宜龍)와 결혼, 황해도에서 동학농민전쟁이 발발하자 안태준이 일진권 의병부대에 참가, 선봉으로 활약
- ▶ 1897.1(19세) 가족 30여명과 함께 프랑스 신부에게 영세받고 천주교 신자가 됨(세례명 토마스)
- ▶ 1905년 말(27세) 을사5조약 체결로 양국의 위기가 다가오자 중국 상해(上海)를 방문, 천주교 관계자들을 만나 구국의 방략을 모색함
- ▶ 1906.1(28세) 부친의 별세로 상해에서 귀국. 이후 금주를 명세하고 평생 실천함.

- ▶ 1906. 봄 진남포로 이사, 삼흥(三興) 학교, 돈의(敦義) 학교 설립 운영
- ▶ 1907.2(29세) 국제보상운동이 일어나자 '국제보상기성회'의 관서(關西) 지부를 설치하고 주도적 활동을 전개
- ▶ 1907. 가을 독립전쟁 전략에 따라 의병전쟁에 참가하기 위해 북간도(한재의 연변지역)로 건너감
- ▶ 1907. 겨울 러시아 연해주 지역의 블라디보스톡으로 감
- ▶ 1908.초(30세) 의병부대를 창설하기 위한 조직 '동의회(同盟會)' 조직, 참가. 이범움을 총대장으로 하는 300여명 규모의 의병부대에 참가, 참모중장을 맡음.
- ▶ 1908.6 의병부대를 지휘하여 두만강 하류유역에 진입. 함북 경흥군 노면(龍面) 상리(上里)에 주둔하는 일본군 수비대를 공격하여 몇 명을 사살하는 승리를 거둠
- ▶ 1908.7 경흥, 신아산(新亞山) 등지로 진입하여 수차례 일본군과 전투. 10여명의 일본군 등 생포. '민국공화(民國公和)'에 따라 포로를 석방했으나, 이를 계기로 일본군의 기습을 받아 패전하고 의병부대는 흩어짐.
- ▶ 8월 3명의 병사를 이끌고 의병부대 본거지인 연해주 연추(燕秋)로 복귀한 뒤 의병부대 재기를 도모했으나 실패

- ▶ 9~12월 블라디보스톡에서 한인교포신문 '대동공보' 기자, 대 동학교 학감, 한인민회 고문 등을 맡아 활동함
- ▶ 1909.1(31세) 동지 11명과 함께 '단지동맹(斷指同盟)' 결성, '대한 독립' 철서를 쓰고 의병 재기를 기약함
- ▶ 9월 대동공보사에 들렀다가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의 만주방문 소식을 듣고 저단 결심을 굳힘
- ▶ 10.21 블라디보스톡에서 우덕순과 동행하여 하얼빈역을 향해 출발
- ▶ 10.26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하고 체포되어 일본영사관으로 압송됨
- ▶ 1910.2.7(32세) 중국 뤄순(旅順)에서 제1회 공판이 시작됨
- ▶ 2.14 판결공판에서 사형을 언도받음
- ▶ 사형연도 직후부터 저서전 『만주침략사』와 『동양 평화론』 저술 작수
- ▶ 1910.3.26 오전 10시 사형집행으로 순국

3. 안중근 의사의 이토 히로부미 사살 (1909.10.26) - 당일의 행적

- ▶ **새벽 일찍 일어나 헌옷을 벗어놓고 수수한 양복으로 갈아입음.**
- ▶ **오전 7시 00분** 하얼빈역 도착. 권총을 지니고 공작 역으로 가서, 이토가 도착할 때까지 역 근처 찻집에서 초조하고 긴장된 마음을 달래기 위해 두 세잔의 차를 마심
- ▶ **오전 9시 15분** 이토 히로부미 특별 열차 하얼빈 도착.

- ▶ 이토의 도착과 동시에 러시아 군악대 소리와 러시아 군대의 기성 소리를 듣고 곧바로 역 구내로 향함. 이 때는 기차에서 내려 많은 사람이 둘러싸여 일본 영사관이 있는 쪽으로 가고 있었으나, 이때까지만 해도 안중근은 그 가 이토인지 확신할 수 없었음. 이에 이토로 생각되는 그를 뒤쫓으면서, 영사관 2~3명과 악수하는 것까지 확인하자 안중근은 러시아 군인들 사이에서 권총을 발사.
- ▶ 이토는 오른쪽 가슴 부분과 복부(배) 등 세 곳에 총탄을 맞고, 그 자리에서 쓰러짐. 안중근은 저격을 한 후에 명을 내릴 때까지 잘못 앓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다른 일본인 몇몇을 데리고 역으로 뛰어 가와가미 중영사와 만철(滿鐵) 철도사의 다나카 이사, 모리 타이지로 등이 부상을 입었음.

안중근은 "꼬레아 우레(대한국 만세)"라고 외치며 그 자리에서 러시아 관헌에게 체포됨. 체포된 시간은 오전 9시 30분경.

- ▶ **오전 오후** 체포된 안중근은 역내 짐무실에서 1차 심문을 받은 후, 중동철도 사무실에서 러시아 관헌에게 다시 심문을 받은 뒤, 밤 11시경 하얼빈 주재 일본총영사관으로 넘겨짐.
- ▶ 이 무렵 부근 채가구(蔡家溝)에 있던 조도선, 우덕순도 러시아 관헌에게 체포됨.

1909년 당시 하얼빈역



○○○ 하얼빈 조린공원에 있는 '청초당'(앞면) 기념비 ○○○



○○○ '연지'(뒷면) 붓글씨 기념비 ○○○



○○○ 4. 안중근 의사의 동양평화론 ○○○

- ▶ 집필배경. 과정
- ▶ - 안중근 사상의 핵심적 논리. '동양의 대세관계와 평화정략(平和政略)의 의견'을 개진하기 위한 것으로 '동양평화론'의 집필을 위해 사형일자를 한달정도 연기해줄도록 요청했으나, 이루어지지 못함.
- ▶ - 실제로 안중근은 시종일관 자신이 의병 참모총장의 자격으로, 즉 독립전쟁의 일환으로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했으며, 자신의 거사가 동양평화를 위한 것임을 강조.

○○○

- ▶ 개요: 당초 구상은 ①서(序) ②전강(前綱) ③현상(現狀) ④복선(伏線) ⑤문답(問答)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실제로 집필된 것은 서와 전강뿐으로 전강마저도 미완성으로 끝남.
- ▶ - 동양평화론의 핵심은, 한, 중, 일 등 동양3국이 대등하게 '자주 독립을 유지하며 동양동아시아의 평화와 공동체적 이상 구현을 위해' 동양평화론을 펴야 한다는 것. 그는 동양평화론 실 천하기 위해 '동양평화회의'를 조직, 3국 강종의 군주(국왕)를 행하(行)의 군대, 회의를 제안했으며, 3국의 젊은이들이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공로(功勞)에 주상 또는 평제(平制)에 높이지도록 무의를 다져야 한다고 역설함.
- ▶ 안중근은 1910년 3월 26일 교수형으로 순국하기 직전에도 "이토 히로부미 사살은 동양평화를 위해 한 것이므로, 일, 한 양국인이 서로 일자(一子)로써 동양평화 유지를 도모하기 바란다" 라고 유언을 남김.
- ▶ 의의
- ▶ - 안중근의 동양평화론과 평화사상은 2010년 취임한 일본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총리의 '동아시아공동체'론과 비교 평가도 하며, 그 원류로서 주목받기도 함. 제국주의 열강의 압수(壓取) 정략(政略)에 따른 저항이 일상화되고 있던 20세기 초에 동양평화를 내세우며 한, 중, 일 등 동아시아 국가의 연대를 제창한 사실이 주목되고 있음.

○○○

- ▶ 하토야마의 '동아시아공동체론'이 주로 경제적 동지에서 제안, 추진되고 있음에 비해 안의사의 동양평화론은 제국주의 국가의 침략에 대한 반성이 전제되며, 3국이 '독립'을 유지하며 단결(團結)하자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 여순감옥 내 안중근 의사 흉상 ○○○



○○○ 여순감옥 안중근 의사 전시실의 유묵 전시 ○○○



○○○ 여순감옥 안중근 의사 설명문 ○○○



○○○ 하일빈 조선족 소학교 학생들의 안중근 의사 문예작품 ○○○



○○○ 안의사 주장 '이등박문 죄악 15개조' ○○○

- ▶ ①한국 명성황후를 시해한 죄. ②한국 황제를 폐위시킨 죄. ③ 5조약과 7조약을 강제로 체결한 죄. ④ 무고한 한국인들을 학살한 죄. ⑤정권을 강제로 빼앗은 죄. ⑥철도, 광산, 산림, 천 택을 강제로 빼앗은 죄. ⑦제일은행권(일본) 지폐를 강제로 사용한 죄. ⑧군대를 해산시킨 죄. ⑨교육을 방해한 죄. ⑩한 국민들의 외국유학을 금지시킨 죄. ⑪ 교과서를 압수하여 불 태워 버린 죄. ⑫한국인이 일본인의 보호를 받고자 한다고 세계에 거짓말을 퍼뜨린 죄. ⑬현재 한국과 일본 사이에 경쟁이 쉬지 않고, 살육이 끊이지 않는데, 한국이 태평무사한 것처럼 위로 천황을 속인 죄. ⑭동양평화를 깨뜨린 죄. ⑮일본 천황의 아버지 태황제를 죽인 죄

○○○ 5. 몇가지 생각해 볼 문제 ○○○

- ▶ 1) 안중근 의사의 명칭에 대하여
- ▶ 그동안 학계와 국민 일반은 '안중근 의사'라는 명칭을 일반적으로 익숙하게 사용해 왔으나, 최근 이태진 교수(서울대)에 의해 '안중근 장군'으로 불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됨.
- ▶ 그 근거는 재판정에서 안중근 자신이 '대한인군 참모 중장'이든 '독립전쟁'을 벌여 '대한제국 침략의' 일개 사졸임을 히로부미를 응징, 사살했다고 주장했다는 데에 있음.
- ▶ 개인자격으로 '테러'를 가한 것이 아니라, 한국인들을 대표하여 일본의 침략에 항거하는 독립전쟁의 일환으로 거사를 일으킨 사실을 부각하기 위한 주장으로 평가됨.

○○○ ○○○

- ▶ 또한 국방부 등에서 '안중근 장군' 명칭 사용 강력히 제기
- ▶ 이에 대해 주무부처인 국가보훈처와 학계에서는 아직 '안중근 의사'라는 명칭을 고수하는 입장임.
- ▶ - '장군'으로 부를 경우 대일 무력투쟁의 이미지가 주로 부각되고, 교육운동가와 애국계몽운동가, 사상가, 독립운동가로서의 다양한 면모를 드러낼 수 없다는 우려 때 문임.

2) 안중근 의사 재판의 부당성

- ▶ 안중근 의사가 일본행 중국 영토였고 러시아 조차지인 하거 어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재판권을 관동도독부 관할지인 뤼순(旅順)에서 재판했음
- ▶ 안중근이 한국인임에도 한국의 사법제도와 법률을 적용하지 않고 일본 법률을 적용 재판 진행
- ▶ 처음 중재에 처하도록 사전에 저지시
- ▶ 재판 진행과정에서 안중근의 발언권이 무시됨. 일본 법정에서 일본 판사, 검사 변호사들이 재판권을 차지하고, 방청객들도 거의 일본인으로만 구성된 안의사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 될 수 없었음.

3) 안의사는 '테러리스트'인가?

- ▶ '테러'는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수의 대중을 무차별 적으로 살상, 희생시키는 폭력 행위이지만 안의사의 의거는 한 국민적의 원흥이자 다수의 한국인을 학살한 '진범'인 이토 히로부미 개인을 응징한 정의 행위임. 안의사도 이토에게 개인적 원한은 없다고 밝혔으며, 유명한 '이등박문 죄악 15개조'를 발표함.
- ▶ 중국의 장병린(章炳麟, 章太炎)은 안의사를 '아주제일의협(亞洲 第一義俠, 아시아 제일의 의로운 협객)'이라고 높이 평가

중국 저명한 인사들의 헌사

- ▶ 중국의 국부로 알려진 쑨원(孫文)은 물론, 저명한 정치가, 사상가요 지성의 활자오(梁啓超)도 안중근 의거를 애뜻을 쳐다하는 노래"이란 시에서 "다섯 발자국에 피를 아스투게 하여 대사를 이루었으니, 웅을 슬피 비난리라!"(愛德)하누나. 칭하다 그 모습은 영웅히 보인다"라"고 찬양하고 안중근 경묘의 뜻을 칭찬. 또 중국 5.4운동 당시 지크니우언라이(周恩來)와 명칭인차오(鄭穎超)는 안중근 연설과 안중근 역할을 말은 것으로 유명.
- ▶ 일본의 대표적 국민설화이자 문학으로 널리 알려진 무라카미 류(村上龍)는 46인 사무라이(武士)들의 주류에 대한 불충을 미화할 것. 일본인들은 주교에 대한 불충을 미화할 것. 아코의사(赤穂義士)라고 부르는 충의(忠義)를 높이 평가하고 있음.



하얼빈 안중근의사 기념관 내부의 안의사 유묵(붓글씨)



6. 안중근의사의 하얼빈 의거와 동양평화론의 의미

- ▶ 안중근 의사의 동양평화론과 그의 평화사상은 몇 년전 일본 하토야마(鳩山由紀夫) 총리의 동아시아 평화론과 맞물려 더욱 주목을 받는 바 있으며, 일수록 그 의의를 높이 평가하고 있는 상황임.
- ▶ 한국계인의 경우 국내외에 산재하는 방대한 규모 안중근의사 관련 자료 수집과 체계적 자료집 발간 등 기초연구사업 추진이 절실함.
- ▶ 일본에서 상당수 뜻있는 인사와 학자들은 안중근 의사를 높이 평가하며 그의 행적과 사상을 주목하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대부분의 일본인들은 아직 안중근 의사에 대해 잘 알지 못하며, 역사교육 현장에서도 생소한 실정임.



- ▶ 과거 우익계열 단체와 일부 인사, 언론들은 안중근 의사의 의거가 독립전쟁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과 그의 의미를 부정하고 안의사의 행위를 테러로 격하하며 그의 의미를 폄하했던 사례도 있음. 그러나 최근 안중근(중일 교류가 활성화하고 경술국치 100년 및 안중근 의사 수국 100주년을 넘기 현재, 안중근 의사에 대해 국내외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일본 학계와 국민 대안에서도 안의사를 재인식하고 새롭게 평가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음.
- ▶ 후소사(扶桑社)판 교과서의 복사판으로 평가되어 한국과 중국 등 아시아 여러나라의 거센 반발을 불러 일으켰던 2009년 자유사(自由社) 발행 '신편 새로운 역사 교과서'가 "이토는
- ▶1909년 만주시찰 도중 하얼빈역에서 한국 독립지사 안중근에게 사살되었다"라고 서술할 정도로 안중근에 대한 인식이 일본에서도 바뀌고 있음.



- ▶ '09.10.26 동북아역사재단과 안중근 하얼빈학회 공동 개최 학술대회 및 2010년 3월 24일 여중순추모선언기념 재단' 주최 국제학술회에서 마키노 에이치(牧野英二) 중제이(法政)대학 교수와 사사기 노리쓰(笹川紀勝) 메이지(明治)대학 교수 등 일본인 학자들은 안의사의 동양평화사상을 카드의 연구평화론 등항과 비교하며 안 의사의 평화사상을 새롭게 조명하는 등항을 보임
- ▶ 현재 한국 교과서는 물론 일본, 중국 교과서 등에 안의 사상을 활약상을 서술할 경우 그의 동양평화 사상을 새롭게 평가할 필요가 있음.
- ▶ 현재 한 중 양국과 일본은 역사인식과 일부 영토문제를 둘러싸고 대립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 하지만 안중근 의사가 제안한 친선한 동양평화'를 구현하기 위해 한, 중, 일, 동양 3국은 적극적으로 갈등을 극복해야 함.



- ▶ 하얼빈역 플랫폼에 표시된 안중근 의사 저격지점(왼쪽 원안)과 이토 히로부미가 총탄을 맞은 지점(오른쪽 원안). 두 지점 사이의 거리는 5m 정도이다.

7. 안중근의사 유해 발굴 관련 동향

- ▶ 2010.3.22 이명박 대통령은 안중근 의사 유해의 한 중 일 공동발굴 방안을 제안하고 관계부처에 대책을 지시함.
- ▶ 정부는 안중근 의사 수국 100주년(2010년 3월 26일)을 맞아 안 의사 유해 발굴을 위한 '민관합동유해발굴단(가칭)'을 구성, 일본과 중국 정부에 3국 공동 유해발굴을 위한 협조를 공식 요청.
- ▶ 이를 위해 국가보훈처와 외교통상부, 역사학자와 독립기념관 연구관 등 10여명으로 구성, 국가보훈처는 2008년 3월 중국 랴오닝(遼寧)감옥 부근 2,000여평을 발굴 조사하였으나, 안의사의 유해를 찾지 못함.
- ▶ 현재까지 안의사의 유해를 찾기위해 노력중이나, 성과 미흡.

안중근과 이토 히로부미에 대한 공동역사교육의 필요성¹⁾

김정현 (동북아역사재단)

1. 머리말

안중근 의거 100주년, 순국 100년을 기념하여 각 역사단체·기념사업회 등이 하얼빈, 대련 등 중국과 한국에서 안중근을 재조명하는 학술대회와 기념행사를 개최하였다.²⁾ 이들 학술대회에는 한중일 삼국의 학자들이 참여하였고 다양한 주제가 발표되었지만, 그중에서도

-
- 1) 동북아독도교육연수원, ‘한중일의 공동역사연구와 역사교육의 방향’ 워크숍 발표문(2014.4.30)
 - 2) 2008.10.17~18. 안중근·하얼빈학회·동북아역사재단 주최 안중근 의거 99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 ‘동북아 평화와 안중근 의거 재조명’
2008.10.24. 한국정치학회·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 주최 안중근의사 의거 99주년 기념식 및 안중근의사 의거 100주년 기념 준비 제8회 학술대회, ‘동아시아 공동체와 안중근’
2008.11.27. 안중근의사승모회 주최 안중근 의거 99주년 기념 학술회의, ‘안중근 의거를 도와 준 인물’
2009.3.25. 안중근 의사 의거·순국 100주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 주최 순국 99주기 추모식과 제9회 학술토론회, ‘일제의 사법침탈과 안중근 의거’
2009.3.27. 한국동북아학회, 한국민족사상학회 주최 특별학술회의, ‘안중근의 민족사상과 하얼빈 의거의 의미’
2009.8.7.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주최 안중근 의거 100주년 기념 국제학술심포지움, ‘안중근 의거의 국제적 영향’
2009.10.22.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 민족문제연구소 주최 안중근 의사 의거 10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2009.10.23. 안중근의사승모회, 안중근의사기념관 주최 안중근 의거 100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 ‘대한국인 안중근의 삶과 꿈 - 대한독립과 동양평화’
2009.10.25. 한국학중앙연구원 현대한국연구소, 북한 조선사회과학자협회, 중국 다롄대 한국학연구원 공동 주최 안중근 의거 10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안중근과 동북아 평화’
2009.10.26. 안중근평화재단청년아카데미 주최 안중근 하얼빈 작전 100주년 기념 학술토론회
2009.10.26~27. 안중근·하얼빈학회, 동북아역사재단 주최 안중근 의거 100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
2009.10.27. 국사편찬위원회, 중국 흑룡강성 사회과학원 주최 안중근 의거 100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
2009.11.25. 단국대학교 동서문화교류연구소, 우당기념사업회 주최 국제학술대회, ‘동아시아평화론의 현대적 조망’
2009.11.28. 일본사학회 주최 2009년도 국제학술대회, ‘일본의 한국 지배와 이토 히로부미’
2009.11.30. 고려대 한국사연구소, 조선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중국 중의문화교류사학회의 주최 안중근 의거 100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
2010.3.18. 충북대학교 증원문화연구소 주최 학술대회,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 경과와 의의’
2010.3.24. 여순순국선열기념재단 주최 국제학술회의 ‘안중근의 재판’
2010.3.25.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주최 안중근 의사 순국 100주기 추모 국제심포지움, ‘안중근의 동양평화론 - 그 사상과 현대적 의미’
2010.3.26. 국제보상운동기념사업회, 국립대구박물관 주최 한·중·일 ‘동양평화포럼’
2010.6.7.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주최 제10회 가톨릭포럼, ‘안중근과 동양평화사상’

안중근의 동양평화론이 크게 부각되었다. 중국정부도 안중근 의거를 높이 평가하고 2014년 1월 하얼빈 역사 내 안중근의사기념관을 건립하였다. 중국관영 신화통신이 4월 22일 '기념관이 개관한지 채 100일도 되지 않았지만 이곳을 찾은 방문객은 벌써 5만 명을 넘어섰다'고 전할 정도로 호응이 높다.³⁾ 중국인 60%, 한국인 30%이며 소수 일본인도 포함된다고 한다.

일본정부는 하얼빈역의 안중근의사기념관에 부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다. 일본정부 대변인 격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안중근은 일본의 초대 총리를 살해해 사형판결을 받은 테러리스트'라며 한국이 구세기에 일어난 일본에 대한 일방적 평가를 토대로 연대해 국제적 움직임을 전개하는 것은 지역의 평화와 협력관계 구축에 도움이 안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하얼빈의 안중근의사 기념관 건립은 일본이 주장하듯 테러가 아닌 의거임을 보여주는 산 증거이다. 중국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이 먼저 안의사를 테러리스트라고 폄훼한 것은 우리의 성역을 건드린 것'이라고 언급하여 일본의 역사도발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북한 노동신문도 중국이 하얼빈역에 안중근 의사 기념관을 개관한 사실을 전하면서 '조선인민뿐 아니라 중국 인민에게도 헤아릴 수 없는 불행을 안긴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한 안중근 열사의 장거를 찬양해 기념관을 건립한 것은 지극히 정당한 것'이라고 보도하였다.

안중근은 자신의 이토 사살이 한국 독립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한-중-일 등 동양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조치이자, 일본의 반성과 각성을 촉구하는 거사임을 강조하였고, 『東洋平和論』 서문에서 동북아 평화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한-중-일 3국간 평화회의를 뤄순(旅順)에서 개최할 것을 제안하였다. 안중근의 동양평화구상은 한국이 역사의 피해자로서 일본에 저항한다는 측면을 뛰어넘어, 동아시아 미래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비전을 국제사회에 제시한 것이다. 따라서 안중근 의거의 진정한 계승은 일본과의 대립이 아니라, 그의 동양평화사상을 3국이 공동으로 연구하고, 잘 교육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본고는 역사교육 속의 안중근 의거와 한중일 공동의 역사인식을 위한 역사공동연구와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3) 『新華網』, 2014.4.22. 유동인구 밀집 장소로서의 위치적 장점과 그 자체가 갖는 역사적 가치, 무료로 개방하도록 한 방침 등이 방문객 증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

2. 중일 역사속의 안중근·이토히로부미

1) 중국 역사 속의 안중근의거

중국의 경우 안중근의 하얼빈 의거와 그의 옥중투쟁 및 최후 순국 등이 모두 중국 땅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중국인들이 특별한 관심과 지지를 받았다. 중국 언론들은 상해 民吁日报, 上海时报, 上海申报와 天津 大公报, 香港 华文日报 등 다수 중국언론이 의거를 보도하였으며, 일본과 조선의 친일언론이 모두 안중근을 폭도라 매도한 것과 달리, 애국지사 와 평화대표자로 칭찬하였다.

안중근 순국후 중국 각계 저명인사들이 기념의 글을 남겼다. 孫文은 “공로는 三韓을 덮고 이름은 만국에 떨치나니 백세의 삶이 아니나 죽어서 천추에 드리우리(功蓋三韓名萬國生無百世死千秋)/ 약한 나라는 죄인이고 강한 나라는 재상이니 드디어 곳을 바꾸어도 역시 이토를 과녁으로 삼으리라(弱國罪人強國相 縱然易地亦藤侯)”란 글을 지었고, 章太炎은 ‘亞洲第一義俠’이란 휘호를 남겼다. 梁啟超는 일본에서 칠언율시 「秋風斷藤曲」과 「追悼文」을 지어 안중근의사를 추모하였고, 조선을 섭정했던 袁世凱도 안중근의 사형소식에 조시(弔詩)를 바쳤다. 이밖에도 蔡元培等 20여 인사가 글을 남겼다. 陳獨秀는 1915년 9월 중국 청년들의 애국사상을 계몽하기 위해 발간한 『青年雜誌』의 창간호에서 「敬告青年」란 글을 발표하여 “나는 청년들이 톨스토이와 타고르가 되기보다 콜럼버스와 안중근이 되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안중근을 반제애국정신의 모범으로 삼을 것을 호소하기도 했다. 周恩來 총리는 “중일갑오전쟁 후에 中朝 인민의 일본제국주의 침략을 반대하는 투쟁은 20세기 초 안중근이 하얼빈에서 이토히로부미를 격살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었다”⁴⁾라고 평가했다. 蔣介石은 1972년 안중근의사기념관에 “장렬한 죽음 천추에 빛나리(忠烈千秋)”란 휘호를 남겼다. 안중근에 대한 저서도 다수 출판되었으며, 1950년대 중국 소학교의 교과서는 본문에 안중근의 사적을 소개하였다.

안중근을 소재로 한 연극도 다수 공연되었다. 1919년 천진 남개대학에서 周恩來등이 안중근이 이등박문을 저격한 내용의 ‘安重根’(亡國恨)을 공연하였고 鄧穎超가 안중근역을 맡았다. 북경에서는 북경대 도서관 주임 이대교가 써준 ‘安重根刺殺伊藤博文’이 연극으로 공연되었고, 1923년 上海互助社에서 한중 친목대회에서 안중근 애국정신 고취하는 ‘東亞風雲’

4) 周恩來 총리는 1963년 6월 중조역사관련 담화에서 ‘갑오 중일전쟁후 일본제국주의 침략을 반대하는 중국과 조선인민의 공동투쟁은 안중근의 하얼빈 저격에서 시작됐다’고 하였다.

을 공연하였고, 1930년대 田汉이 이끈 南社剧团도 ‘安重根刺伊藤’를 공연하였다. 1937년 중일전쟁 발발후 周恩來·郭沫若 등이 반일투쟁을 고무하기 위해 극단을 조직하여 무한·장사 등지에서 ‘안중근’ 연극을 공연한 바 있다. 연극뿐 아니라 1928년 박은식의 ‘애국혼’을 상해에서 한국인 정기택 전창연이 영화로 제작하였다.

이러한 안중근에 대한 높은 평가와 지지는 안중근의거를 기념하는 전시관으로 설립되어 있다. 주요 기념시설물들은 안중근의 하얼빈의거와 옥중투쟁 및 최후의 순국지인 하얼빈과 여순에 남아있다. 1992년 중한 양국 의 수교 이래 한국의 경제적 지원으로 선후하여 하얼빈시 조선민족예술관에 안중근기념전람관과 旅順日俄監獄舊址에 안중근기념전시관이 설립되어 그의 애국정신과 동양평화사상을 소개하고 있다. 1992년 3월 하얼빈시에서 흑룡강성 안중근연구회의 설립을 계기로 안중근기념활동은 하얼빈시정부의 차원에서 주최하는 공식적인 행사로 확대되어 2005년에 ‘哈爾濱韓國周’를 결정하였다. 2001년에 설립된 대련시 안중근연구회는 매년 안중근의 ‘의거의 날’과 ‘순국의 날’에 추모행사와 함께 학술활동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오고 있다. 2005년에는 안중근이 공판을 받았던 여순의 關東都督府地方法院舊址가 복원되었다. 하얼빈시 조선민족예술관(고려회관) 내에 안중근의사전실(안중근의사기념관)을 설치했고, 하얼빈공원에는 안중근의 유목비를 세웠다. 흑룡강혁명박물관과 동북열사기념관도 안중근사적전시관이 설치되어 있으며, 하얼빈시 정부는 안중근을 ‘하얼빈의 역사인물’ 및 ‘하얼빈에서 선정한 세계 40대 위인’의 한 사람으로 선정하였다.⁵⁾

안중근은 중국인들에게 20세기 한국사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위인의 한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으며, 중국의 하얼빈·여순 등에 있는 안중근의거 기념시설물들은 국가 간의 이념과 체제를 초월하여 한중간 우호관계를 밀접히 하고 동북아평화시대를 지향하고 있다. 안중근은 여순감옥에서 일본인들에게 자신의 평화사상을 전하기 위해 200여편의 글을 써주었고 그중 60여편이 발견되었다. 안근의거 정신의 계승을 위해서는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일본과의 국가간 대립을 초래하는 기념관시설이 아닌, 일본인을 포함시킨 안중근의 동양평화 사상을 교육시키는 역사교육의 방안을 개발하고 실천해야 한다.

2) 일본역사 속의 안중근과 이토히로부미

일본의 역사교육 속의 안중근과 이토 히로부미에 대한 기술을 보면 의병운동이 일어나 안중근 의사가 이토를 사살했기 때문에 일본정부는 ‘조선을 식민지화’한 것으로 서술되고

5) 김춘선, 『安重根 義學에 대한 中國의 認識』,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 『안중근 연구의 기초』, 경인문화사, 2009, p.407.

있다. 저항운동이 식민지화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서술은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의 역사와 공민 교과서외에 다른 교과서에서도 보인다. 일본문교출판사 교과서의 1910년 ‘한국강제병합’ 관련 부분을 보면, 식민지화 반대투쟁에 관계되는 기술로 ‘해산을 당한 병사는 농민과 함께 일본에 저항(의병운동)하고, 초대 한국 통감이었던 이토 히로부미가 민족운동가인 안중근에게 사살되는 사건도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일본은 1910년 군대의 힘을 배경으로 조선을 식민지화했습니다. 이것을 한국병합이라고 합니다’라고 서술하였다. 이 문제는 이미 한국과 일본의 양심적인 지식인들에 의해 비판받았고, 1990년부터 93년까지 개최된 ‘한일합동역사교과서연구회’에서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였다. 당시의 교과서에는 ‘헤이그밀사사건’이 원인으로 한국 황제가 퇴위당하고, 제3차 한일협약이 체결되고 나아가 한국 군대가 해산되어 그 군대도 합류하여 의병운동이 활발해지고, 그런 가운데 안중근의 이토 살해가 있었으며 ‘이를 계기로 한국이 병합되었다’라고 서술되었다.

기미지마 가즈히코(君島和彦) 교수 등이 이를 비판하고, “일본정부는 1909년 7월 각의에서 ‘한국병합에 관한 건’을 결정하고 병합 방침을 결정했다. 이 내각회의 전에 가즈라 타로(桂太郎) 수상과 고무라 주타로(小村壽太郎) 외상은 이미 이토 히로부미의 승인을 받고 있었다. 안중근의 이토 살해는 1909년 10월이었다. 이렇게 ‘한국병합’의 방침이 이미 확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토의 사망과 ‘한국병합’의 실행은 무관하다”는 사실을 제시하였다. 이에 교과서 회사와 집필자가 다음 검정에서 ‘이것을 계기로’와 같은 기술을 개선하였다. 이토 히로부미 사살 이전에 이미 일본정부가 ‘한국병합’을 각의에서 결정했고 따라서 안중근의 이토 살해가 병합 원인이 되지 않는 것으로 교과서 서술이 개선된 바 있다. 그런데 최근 검정을 신청한 이쿠호샤 교과서에는 「이토 히로부미가 만주에서 한국의 청년 안중근에게 암살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다음 해 1910년 정부는 한국병합을 단행했습니다」라는 기술이 있고, 이와 거의 같은 기술이 제국서원의 교과서에도 있으며 도쿄서적 교과서에는 각주로 쓰여 있다. 이는 안중근의 이토 살해가 ‘병합’의 원인이라고 해석될 소지가 있는 서술이다. 일본에서 안중근 의거에 대한 정확한 역사기술과 교육을 위해서는 한국병합의 각의결정과 안중근의 이토살해 시기를 명기하고, 한국의 여러 항일운동을 독립해서 기술하며, 일본정부의 강제적인 조약체결을 명기하는 것 등이 필요하다.

현재 일본의 모든 교과서는 청일·러일 전쟁으로 대만과 조선을 식민지화함으로써 서구 열강과 같은 문명제국이 된 것을 자랑스럽게 서술하고 있다. 러일전쟁이 당시의 국제관계 속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하였고, 일본의 승리가 서구 제국주의에 지배받고 있던 아시아 여러 나라에 근대화와 독립에 대한 희망을 주었다고 러일전쟁을 정당화하는 기술은, 러일전

쟁 승리를 계기로 한국을 식민지화시켜 나가는 일본의 침략성을 은폐하고 합리화하는 것이다. 일본 역사학계는 메이지 시기의 팽창은 문명화로, 쇼와시기의 팽창은 침략이라는 편지적 역사인식을 보이고 있다. 그 이유는 청일·러일 전쟁을 침략이라고 인정하는 순간, 중국·조선을 일본이 문명화시켰다고 자부해온 일본 근대사의 인식체계가 완전히 부정되기 때문이다. 이토 히로부미는 메이지헌법(1889)의 초안 작성과 양원제회의의 확립(1890)에 기여하여 일본을 근대화화 문명제국으로 이끈 인물로 추앙받고 있다. 일본이 청일·러일전쟁 시기의 식민 지배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역사교육이 계속되는 한, 이 시기의 총리대신이자 초대 통감으로 부임하여 조선병탄의 기초 공작을 수행한 이토 히로부미를 살해한 안중근은 ‘범죄자’(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2013.11.19)이자 ‘사형수’(아베 총리, 2014.2.5), 하얼빈의 안중근의사기념관은 ‘테러분자기념관’(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2014.3.29)이라는 ‘망언’이 계속될 것이다.

반면, 현재의 이런 사관과 달리 당시 일본에는 러일전쟁의 결과 일본이 한국을 보호국화하고 중국에 압력을 가하였기 때문에 점차 일본의 침략성에 대한 비판여론과 침략전쟁에 비판적인 조류가 있었다. 예컨대 안중근 의거 후 일본 반전 사상가인 고도쿠 슈스이(幸徳秋水, 1871-1911)는 안중근 사진위에 “捨生取義 殺身成仁 安君一舉 天地皆振”이라고 직접 써넣어 반전사상가들의 언론인 『평민신문』에 보냈으며, 그 사진이 미국지부에도 건네져 이를 입수한 미국 한인교민단체가 기관지 『新韓民報』에 실었다.⁶⁾



6) 『新韓民報』(미국 샌프란시스코의 교민단체인 대한국민회의의 기관지) 1910년 3월 30일 제178호에는 안중근의 처형을 애도하는 글과 함께 이 사진이 실렸다.

이러한 역사사실은, 이토 히로부미를 일본의 근대화과 문명제국으로 이끈 인물로 추앙하는 지도자들이 주도하는 현재의 일본 역사교육에서 제대로 교육되고 있지 않다. 하지만 앞으로 동아시아 평화를 만들어나가는 데에는 고토쿠 슈스이를 비롯 도쿠도미 로카(徳富蘆花)등 일본의 침략주의를 비판하고 안중근의 동양평화론에 공감했던 끊겨진 전통이 재발굴 될 필요가 있다. 이들은 안중근의 동양평화라는 보편이념의 추구하고 숭고한 정신, 헌신에 공감하였다.⁷⁾ 안중근은 일본의 침략행위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지만, 일본 지배층과 일본 인민을 분리해서 이해했다. 그는 일본제국주의자들의 동양평화 담론과 다른 모델을 제시했지만, 일본이 잘못을 깨우치기만 하면 언제든 포용할 수 있는 ‘길을 잘못 든 잠재적 동지’로 보았다. 안중근 의거는 조선을 살리고, 또한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 친구를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한 것이고 그러한 의거의 정신에 기초해 共生을 지향한 동양평화론을 썼다. 안중근은 일본 법원에서 자신의 ‘동양평화와 한국독립’이 자신의 목적이고, 이토가 죽었지만 동양평화라는 나의 목적은 아직 달성했다고 할 수 없다고 하였다. 따라서 안중근의거의 정신을 계승하는 것은 한국대 일본의 국가간 싸움이 아니라, 일본 내에서도 황국사관으로 갔던 메이지 국가주의, 확장주의에 대해 비판적 사조의 전통을 회복하는 것이고, 동아시아 평화의 실현을 위해 세대를 초월하여 국가를 넘어 연대하여 그 실현을 향해 노력하는 것이다. 안중근·이토 히로부미에 대한 올바른 역사교육을 위해서는 역사사실의 공유와 신뢰관계 회복을 위한 공동의 역사연구가 필요하다.

3. 공동의 역사인식을 위한 노력과 공동연구교육의 필요성

1) 공동의 역사인식을 위한 노력

2001년 일본에서 침략전쟁과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한 「새로운 역사교과서」(후소야 판)가 검정을 통과한 후, 한중일 및 한일간 민간차원에서 공동의 역사인식을 위한 역사대화와 공동역사 부교재 발간이 이루어져 왔다. 공동의 역사인식을 위한 민간부문 대화채널은 한국 역사교과서연구회와 일본 역사교육연구회의 대화(1997~), 한국 전국역사교사모임과 일본 역사교육자협의회와의 대화(2001~), 한중일3국 공동역사편찬위원회 (2001~)등이 대표적이며, 그

7) 여순법정에서 관선번호사 水野吉太郎는 안중근 무죄를 주장하였으며, 도쿠토미 로카, 나쓰메 소세키, 이시카와 다쿠보쿠 등 근대 일본을 대표하는 저명한 지식인은 안중근 의사의 숭고한 정신에 감명받아 그의 죽음을 애도하였다. 마키노 에이지(牧野英二), 「안중근과 일본인: 동양평화의 실현을 위해」, 『아시아문화연구』 20, 2010. p.212.

결과물이 『미래를 여는 역사』 · 『한일 교류의 역사』 · 『마주보는 한일사』 · 『한국과 일본, 그 사이의 역사』 등 한·중·일 및 한·일 공동 역사부교재로 2005년 이후 잇달아 출간되어 왔고, 후속편도 2012년 이후 출간되고 있다.⁸⁾ 동북아지역 역사화해의 기반조성을 위한 이 역사부교재들은 편협한 국가주의를 벗어나 서로를 존중하는 자세를 가지고 집필되었으며, 중고등학교 학생뿐 아니라 성인들도 평화와 인권이라는 인류 보편적 관점에서 역사를 배우도록 재구성된 역사교육서이다. 또한 유네스코가 마련한 역사대화의 공정성·포괄성과 균형성의 원칙을 동아시아 현실에 맞게 원용하여, 양국의 입장 차이를 병기하기도 하였다. 역사 갈등 문제에 대응과 해결을 위한 창구역할을 하는 동북아역사재단이 정부와 시민사회 공동의 노력으로 2006년 출범하여 이들 교사와 민간단체의 공동역사부교재 편찬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차원의 역사공동연구위원회도 한·일, 중·일 양국간에 진행되었으며, 한·중간 정부채널의 공동연구는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다. 한일 역사공동연구위원회는 2002년 제1기가 시작되어, 제2기가 2010년 2월까지 운영되었고, 제3기 위원회는 아직 시작되지 못하였다. 제1기 위원회는 한일관계사에 관해 양국의 학설과 해석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 결과를 널리 보급함으로써 상호이해와 인식을 심화하는 데 목적을 두었고, 역사교과서의 필자와 편집자가 연구 성과를 역사교과서 편수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하지만 위원회는 연구방법 등을 둘러싼 한·일간의 견해 차이로 난항을 겪었다. 한국 측은 한일 사이의 쟁점 사항을 주제로 삼고 연구 성과를 역사교과서 편찬에 반영하자고 주장하였으나, 일본 측은 학문의 시각에서 연구주제를 선정하고 역사교과서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하지 말 것을 주장하였다. 제2기 위원회는 제1기 때의 3개 분과(고대사, 중근세사, 근현대사)에 더하여 교과서위원회를 신설, 24개 주제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특히 4~6세기 일본이 한반도를 지배했다는 임나일본부설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공식 폐기한 것은, 제국주의 일본이 만들어낸 한일고대사 인식의 큰 기둥 하나를 무너뜨린 성과이다. 한·일 역사공동연구위원회는 양국 역사학자가 처음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공식기구를 통해 공동연구를 하고, 한·일간 역사인식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나름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되고 있다.

8) 한중일3국공동역사편찬위원회 저, 『미래를 여는 역사: 한중일이 함께 만든 동아시아 3국의 근현대사』, 한겨레신문사, 2005/후속편 『한중일이 함께 쓴 동아시아 근현대사』 1·2, 휴머니스트, 2012.; 한일공동역사교재제작위원회, 『조선통신사: 풍신수길의 조선침략과 우호의 통신사』, 한길사, 2005/후속편 『한국과 일본, 그 사이의 역사: 두 나라 역사 교사가 같이 쓰고 청소년이 함께 읽는 한일 근현대사』, 휴머니스트, 2012.; 한일여성공동역사교재편찬위원회, 『여성의 눈으로 본 한일 근현대사』, 한울, 2005.; 한일역사교과서연구회, 『한일 교류의 역사』, 해안, 2007.; 전국역사교과서모임(한국), 역사교육자협의회 공저, 『마주보는 한일사 I·II』, 사계절, 2006의 후속편은 동북아역사재단의 지원을 받아 2014년 발간될 예정이다.

중일 역사공동연구위원회는 2006년 8월 당시 고이즈미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에 대한 중국의 비판 여론 등 '역사문제'에서 비롯된 외교적 대립국면을 타개하기 위한 방편으로 마련된 것이다. 2006년부터 3년간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2010년 1월 31일 공동연구 성과를 담은 보고서를 발표한 이후 제2기 위원회를 아직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 위원회를 구성한 양국의 최종 목적은 호혜·협력으로, 공동 교과서 편찬에 대한 언급은 없으며, 양국은 '중일 역사공동연구가 수행한 역할을 높이 평가하고, 금후도 계속해서 나간다고' 발표하였다. 1기 위원회에서 양측은 고대와 중근세사의 인식차이는 거리를 좁혔지만, 근현대사 쟁점에 대해서는 여전히 인식차를 드러내었다. 중·일 역사공동위원회의 성과는 만주사변 이후 일본의 침략전쟁 사실이 인정되었다는 것이지만, 침략전쟁의 범위를 한국과 중국은 청일·러일 전쟁까지 포함시킬 것을 주장하는데 반해 일본학계의 인식은 아직 여기까지 도달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우리 입장에서는 한국사관련 서술에서 중·일 양국이 모두 일본의 한반도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한중일간 문화교류시 한반도의 역할이 지나치게 과소평가되어 있고, 중국이 일본의 침략에 대한 항일운동을 서술하면서 한국사 관련 역사사실을 누락하고 있는 점은 객관적인 동아시아관계 정립과 이해에 어려움을 줄 우려가 있다.

한일·중일 두 위원회는 주로 한일·중일의 양국관계를 주된 연구 주제로 설정하였고, 연구방향이 대부분 나를 중심으로 상대방과의 관계를 연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특정한 사건적 요인에 관해 상대방의 내적 상황이 제대로 고려되지 않음으로써 일면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역사해석을 하거나, 아예 생략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는 역사대화가 짧은 현실을 고려하면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만, 한일·중일간 오랜 역사 가운데 갈등 기간보다 서로 협력하거나 동북아시아가 안정된 기간이 훨씬 길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편중된 역사 이미지를 강조하여 전달할 우려가 있다. 중일 양측에 이의시정을 요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역사 갈등을 둘러싼 역사공동연구위원회의 활동을 적극 추진하여, 기존의 역사공동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 발전적인 동아시아상 정립을 위한 한중일 역사공동연구위원회의 필요성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

역사공동연구를 위해서는 주변국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갈등을 관리해 온 유럽의 국제교과서 발간의 선형적 자산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역사교과서 대화를 통해 공동의 역사인식에 도달하여 상호이해를 증진시키고 안정된 국제관계를 유지하는데 기여한 경험은 독일과 프랑스, 독일과 폴란드를 중심으로 한 유럽의 국제 교과서대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유럽에서 독일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장기 지속적인 역사교과서 대화는 독일의 통일에 유리한 대외적 환경을 조성해 주었다. 유럽공동체의 등장을 더욱 촉진하는 역할을

하였고, 민족과 국가의 정체성을 상대화하는 한편 유럽적 정체성을 함께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다. 공통된 역사 인식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장기에 걸친 연속적·지속적 연구가 필요하다. 독·프 교과서는 70년 이상, 독·폴 교과서는 40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유럽의 독일과 달리 동아시아에서는 침략국 일본이 과거를 반성하고 화해와 협력을 지향하는 차원에서 역사문제에 접근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더 많은 난관이 예상된다. 일본 문부성은 과거의 침략 행위를 정당화하거나 변호하는 교과서를 출판할 수 있도록 검정을 통과시켰고, 중국도 역사대화의 필요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지 않다.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동아시아의 역사공동연구는 유럽에 비추어볼 때 아직 출발 선상에서 있으며, 단기간의 공동연구를 통해 역사 갈등을 한꺼번에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유럽에서 볼 수 없었던 민간차원 역사교육협력의 결과 7종의 공동역사교재를 발행한 데서 알 수 있듯이, 동북아에는 유럽에서 진행된 역사공동교과서 협력의 양상과 달리 정부와 민간에서 각자의 조건에 맞는 특징을 살리면서도 상호보완적이고 병렬적인 ‘동아시아형 역사교과서 대화’가 만들어져 온 자산이 있다. 한국은 동북아 공동역사연구와 교과서 발간을 위해 한중일 3국의 협력을 매개하고 주도하기에 가장 적합하고 준비된 나라이다.

2) 한국 주도의 동아시아 역사교육

앞서 언급했듯이 현재 일본의 근현대 역사인식은 청일·러일 전쟁으로 대만과 조선을 식민지화함으로써 서구열강과 같은 문명제국이 된 것을 자랑스럽게 서술한다. 만주사변 이후 쇼와시기의 팽창만 침략이고, 메이지 시기의 팽창은 문명화라는 편의적 역사인식이다. 일본의 ‘식민지 지배와 침략’을 인정하고 이를 ‘국책의 잘못’으로 명시해 ‘반성과 사죄’를 표하여 자성한 무라야마 담화(1995) 역시 침략과 지배의 범위를 명시하지 않았다. 중국 역시 중화사관에 의거한 중국관 동양사가 등장할 가능성도 있다.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의 하나로 한국은 2012년 한중일 3국중 유일하게 동아시아사를 고등학교 교과목으로 신설하고 화해와 협력의 관점에서 동아시아 지역사를 서술한 교과서를 발간하여 교육하고 있다. 동아시아사를 선도하고 있는 한국은 중화의 논리와 황국의 논리 사이에서 균형자 역할을 담당하면서, 앞으로 평화와 공존의 동북아 지역사가 새롭게 교육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같은 맥락에서 2013년 11월 14일 동북아 평화협력 방안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한·중·일 공동 역사교과서 발간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한일·중일 정부간 채널의 역사공동연구위원회 보고서와 연구성과물도 나와 있지만, 한중일 공동역사교과서 발간 제안은 박 대통령이 3국 정상으로 처음이다. 중국은 긍정적으로 반응하였고

일본정부도 당초 부정적 반응에서 하루 만에 환영한다는 입장으로 선회하였다.

그런데 이후 계속된 일본의 위안부 부정과 야스쿠니 참배등 한일간 역사 갈등이 심화되면서, 한국정부는 2014년 1월에 중국·동남아시아 국가와 공동으로 일본에 의한 '제국주의 침략역사'를 연구하겠다는 구상을 발표하였다. 중국 측이 '한국이 일본의 침략역사에 대해 국제 공동연구를 하겠다는 결정을 지지한다'라고 응하자, 일본은 중한 역사공동연구와 한국 교과서 서술을 비난하였다. 한중간 역사공동연구는 필요하지만, 일본과의 지나친 대립은 동북아 평화협력과 안중근의 동양평화론과도 맞지 않다. 일본의 인식을 개선하고 최근 악화되고 있는 한일 관계 해소를 위해 우선 국가차원의 한일 역사공동연구 기구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당장은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지만, 일본 정부와 학계, 교육계를 설득하여 '제3기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를 구성하여 공동의 역사연구를 발전시켜 나가도록 제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나아가 기존의 한일·중일 역사공동연구의 성과를 발전시키고 한계와 문제점을 극복한 형태의 역사공동연구를 주도해나가야 한다.

동아시아의 역사교육의 방향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한중일의 민간레벨에서 진행되어온 공동역사 교재편찬, 유럽의 게오르그에커트 국제교과서연구소가 학교교육에서 유럽의 식을 강화시키기 위한 활동들과 개별국가들의 교육정책, 한중일의 역사공동연구 경험과 공동의 역사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 한·중·일 3국간 공동의 역사교육이 가능하려면 국가와 민족중심의 역사를 극복해야 한다는 주장과 차이를 드러내는데 주저할 필요가 없다는 공감대를 확보해 나가야 한다. 한중일이 공동 역사교재를 개발하면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우선 각국의 입장을 비교하고 쟁점을 정리하는 작업을 추진함으로써, 장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해야 한다. 합의되지 않더라도 필요한 경우는 각국의 서로 다른 입장을 병기한다. 공동역사교육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를 놓고 대화를 진행하면서, 역사의 피해의식을 극복하고 상대방을 포용하는 대화와 협력의 관행을 만들어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민간영역에서의 역사갈등 해결을 위한 교육 활동이 지속적으로 성과를 이어낼 수 있도록 정부의 협력과 지원이 필요하다. 현재 한중일 3국의 공동역사교재는 『미래를 여는 역사』와 그 후속편 『한중일이 함께 쓴 동아시아 근현대사』 뿐이다. 앞으로 지역사의 시각으로 서술된 한중일의 공동역사교재를 계속 편찬하고 동아시아 각국이 이를 채택함으로써, 전쟁과 갈등을 넘어서서 평화와 민주주의가 보장되는 21세기 상생의 역사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아시아사 공동의 역사교육을 선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4. 공동역사교육의 방향

공동역사교재와 공동교육은 한중일의 역사갈등의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인가? 독일에서는 역사교육과 역사교과서의 지도원리인 다중관점(multiperspectivity)의 서술로 역사갈등 해결에 기여했다고 한다. 양국간 쟁점들과 관련하여 상대방의 시각들을 반영하는 자료들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자국의 민족주의적 역사해석만을 진실이라고 고집할 필요가 없으며, 교과서를 하나의 공식적인 민족국가적 역사기억을 기록한 경전처럼 인식하고 획일화된 역사 지식을 전수하는 교육에서 벗어난 역사교육이 학생들에게 민주적인 시민으로서 필요한 역량들을 길러줄 수 있었다는 것이다. 다중관점은 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상이한 역사해석들과 보조 자료들을 제시하고 학생들 스스로 판단하게 하고 역사의식을 길러주며, 그러한 탐구형 교과서가 평화교육 도구로서의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 일본과 한국에는 해당되지 않고 있다.

두 번째 방법은 지역사에 대한 인식이다. 한중일3국공동역사편찬위원회의 공동역사교재는 일국사의 시점이 아닌 3국집필자들이 공동의 서술로 알려졌다. 그런데 『미래를 여는 역사』(2005)에 본문이 아닌 칼럼으로 다루어진 ‘안중근과 이토 히로부미’에 대한 기술은 ‘의병부대의 지도자인 안중근이 이토를 단죄한 이유 이토의 15가지 죄’를 소개하면서 동양평화에 대한 언급은 없다. 안중근의거가 동아시아 미친 영향에 대한 언급은 보이지 않는다. 이토 히로부미에 대해서도 사실 나열에 그치고 있다. 후속편 『한중일이 함께 쓴 동아시아 근현대사』 1·2(2012)의 경우 1권(국제관계의 변동으로 읽는 동아시아의 역사)에는 안중근의거에 대한 서술이 보이지 않으며, 2권(테마로 읽는 사람과 교류의 역사)에 안중근은 1페이지, 이토 히로부미는 4페이지에 나오지만, 안중근의 경우 ‘일본의 침략과 지배를 둘러싼 전쟁기억’이라는 소제목 아래 ‘장충단 공원을 재건하고 안중근의사 동상을 건립하기 위한 활동과 1959년 안중근 동상이 세워진’ 내용이 소개되어 있다. ‘기억’의 주제로 서술하고 있으며, 지역사로서 공동의 역사인식을 위한 동양평화론의 의미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공동의 역사인식을 위한 역사교육이 동아시아 국가 간 역사 갈등을 해소하고 화해를 이루는데 기여하려면, 다중관점과 지역사의 인식이 서술된 공동교재들이 새로 만들어져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교재들이 학교현장에서 지속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 입시위주의 학교교육 환경에서 정식 교과서가 아니라는 한계는 어쩔 수 없지만, 고등학교 선택과목인 동아시아사 수업과 연계하거나, 수업지도안과 활용 사례 등의 지속적 보급을 통해 방과 후특별연구 수업 등의 교재로 활용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동북아역사재단은 한중일·한일의 공동역사교재 발간의 지원을 통해 공동의 역사인식을 위한 역사공동연구에 동참해 왔다. 안중근의거의 동양평화 사상을 계승하여, 동북아의 평화와 역사화해를 논의하기 위한 한·중·일 3국 학술회의를 중국의 뤄순, 하얼빈과 일본 등 국내외에서 개최하였다. 재단의 역사·영토교육을 맡은 동북아독도교육연수원은 동북아의 역사화해와 상생을 위한 교육기관을 지향하며, 일본과 중국등 주변국들이 모두 납득할 수 있는 역사교육 프로그램과 이론을 개발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교육하고자 한다. 안중근은 1905년 이후 교육에 뜻을 두고 매진하다⁹⁾ 교육의 한계를 느껴 하얼빈의거를 거행하였지만, 안중근의거가 목표한 동양평화는 현재 의거가 아닌 공동의 역사교육을 통해 이루어져 한다.

역사교육을 강화해야 미래가 있다고 한다. 동북아·독도교육연수원은 현재 동아시아사 교원연수를 비롯하여 동북아·독도 현장 및 사이버연수, 역사 아카데미, 찾아가는 역사강좌 등을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 일본 제국주의 침략사에서 비롯한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한일 관계의 여러 쟁점들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한일 역사현안 교육, 상생의 동아시아를 선도하는 열린 교육을 추진하고자 하며, 독도 주권수호교육·동아시아사 교육과정 개발, 온라인 및 재외국민 교육교재 개발 등 교사·학생 및 대중들에게 흥미있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교재를 만들어 배포하고자 한다.

9) 안중근은 1907년 봄 진남포 용정동의 자택에 三興學校를 설립하여 문부교육을 실시했고, 프랑스인 포리에(Faurie, Jean Bpt, 方蘇東 1875~1910)신부가 운영하던 敦義學校를 인수받아 교장직을 맡았다. 『경향신문』, 1907월 10월 16일자.

침화일군 제731부대 죄증진열관 세균전의 기억과 중국 애국주의 교육기지 건설의 새방향¹⁾

1. 머리말

최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동일본 대지진 피해 지역인 미야기현(宮城縣) 히가시 마쓰시마시(東松島市)의 항공자위대 기지를 방문해 곡예비행단 ‘블루 임펄스’를 시찰하면서 ‘731’이라는 편명이 적힌 훈련기의 조종석에 앉아 엄지손가락을 들어 올린 포즈로 사진을 촬영했다.²⁾ 이 사진은 일국의 총리가 731이라는 숫자가 담고 있는 역사적 상징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즐거운 표정을 지음으로서 더 이상 731에 거리낄 게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731은 여전히 중국과 동아시아 각국의 민족주의를 자극할 수 있는 역사적 상징임에도 불구하고, 일본 우익에게 731은 더 이상 금기나 부정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회화와 조롱의 대상이라는 점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이처럼 731은 피해자만이 기억하는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가해자가 현재까지도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역사문화’라 할 수 있다.

역사문화란 개인적인 기억을 넘어서 사회적이고 집단적으로 형성된 문화적 기억의 층위를 지칭하는데, 사회적 삶에서 이루어지는 역사의식의 실제적이고 효과적인 표현으로 이해된다.³⁾ 역사문화는 다양한 매개물과 메커니즘을 통해서 형성되고 작동된다. 그 중에서도 역사박물관은 공동체의 문화적 기억



(사진 1) 항공자위대 731편에 탑승하고 기념사진을 찍는 아베 총리(2013.5)

1) 신규환, ‘한중일의 공동역사연구와 역사교육의 방향’ 워크숍 발표문(2014.4.30)

2) 『서울신문』, (2013.5.13), 25면.

3) 이동기, 『현대사박물관, 어떻게 만들 것인가?』, 『역사비평』 96, 2011, 245~246쪽.

을 형성하고 소통할 수 있는 대표적인 역사문화의 발현 형식이며, 대중이 역사를 집단적으로 기억하고 소비하는 대표적인 매개물이다. 다큐멘터리나 영화가 일회적으로 소비된다면, 역사박물관은 지속적으로 역사지식이 소비되고 기억된다는 점에서 역사교육과 대중적 정체성의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전형적인 역사문화의 매개체이다. 이들 박물관들은 최근 애국주의 교육기지 및 전국 청소년 교육기지로써 중국 민족주의와 애국심 고취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다.⁴⁾

지역박물관 역시 역사박물관이나 지역 특색의 박물관을 개설하여 지역정체성과 국가정체성의 교육과 선전에 활용되고 있다. 그 중에서 침화일군 제731부대 죄증진열관(侵華日軍第731部隊罪證陳列館, 이하 731부대진열관)은 중국 동북부의 하얼빈시(哈爾濱市) 남부 외곽에 위치한 지역박물관이면서 세균전이라는 특별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⁵⁾ 731부대진열관은 그 규모나 성격은 초창기에는 시급박물관으로 출범했지만, 국가지도자와 중앙정부의 지원 속에서 국가급박물관의 위상을 갖게 된 독특한 사례이기도 하다. 731부대 유적은 세균전이라는 일체의 침략성과 반인류적 잔혹함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항일과 전쟁범죄의 상징물로 존재하였다. 731부대 유적을 중심으로 진열관으로 개조된 후, 현재에는 한 해 평균 20만 명 이상이 관람하는 중국을 대표하는 국가급박물관으로 성장하였다.⁶⁾

731부대진열관을 비롯하여 세균전 박물관은 2000년대 이후 중국 각 지역에서 등장하였고, 최근에서야 중국 국민의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 중국의 역사교과서 상에서 731부대의 잔혹한 활동상을 고발하고 있지만, 교과서의 특성상 할애될 수 있는 분량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⁷⁾ 731부대의 세균전 및 화학전 활동은 전쟁의 참혹성을 넘어 생체실험이라는 일제 만행의 잔혹성을 상징하는 것이고, 중국정부로서는 세균전의 기억을 통해 일제의 만행을 전 세계에 폭로하고 공동체의 문화적 기억을 중국 대중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인들에게

4) 1994년 8월 중국정부는 「애국주의 교육실시 강요」를 발표하였고, 박물관 등을 주요 애국주의 교육기지로 활용할 것을 지시하였다. 윤휘탁, 『신중화주의』(서울: 푸른역사, 2006), 88~96쪽.

5) 侵華日軍 第731部隊 遺址陳列館은 최근 侵華日軍 第731部隊 罪證陳列館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유적 자체보다는 범죄 증거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속칭 731陳列館 호은 731部隊展覽館 등으로 불리고 있다. 본고에서는 731부대진열관이라고 약칭하고자 한다.

6) <표 1> 최근 3년간 731부대진열관 관람인원

연도	중국인	외국인	합계
2010년	192,546명	16,484명	209,030명
2011년	186,002명	16,024명	202,026명
2012년	212,620명	13,300명	225,920명

자료: 731부대진열관 제공(2013.4.20)

7) 馬克思主義理論研究和建設工程重點教材 編寫組, 『中國近現代史綱要』(2008年修訂版), (北京: 高等教育出版社, 2009).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교육시킬 수 있는 수단이었다. 731부대진열관 건립 이후 중국정부는 애국주의 교육기지 중의 하나로 731부대진열관의 활동에 주목해왔으며, 정부와 민간 모두 진열관의 유지와 확장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최근까지 731부대진열관에 대해서는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여행관리학에서 다크 투어리즘(Dark Tourism)의 일환으로 연구하거나 건축학에서 731부대 개발에 관해 연구하기도 했다.⁸⁾ 이밖에 731부대진열관 내부 관계자들이 731부대진열관에 대해 소개한 글을 비롯하여 731부대진열관의 발전에 관한 연구들이 있다. 이들 연구는 주로 애국주의 교육기지 선정과 관련한 애국주의와 국방교육의 장소로서 731부대진열관의 의의를 강조해왔다.

이 연구는 731부대진열관이 중국사회에서 어떻게 건립되고 발전해왔는지, 특히 731부대진열관이 기존 전쟁박물관과 달리 어떤 목표와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최근 몇 년 동안 731부대진열관은 전시 콘텐츠와 규모 등에서 커다란 변화를 경험했다. 그 중심에는 731개발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신임 관장의 임명 등이 있었다. 본고는 우선 731부대진열관이 어떻게 건립되었는지, 중국정부의 정책적 방향을 검토할 것이다. 이어 731개발관리위원회의 등장과 그 의미를 살펴보고, 731부대진열관의 콘텐츠가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이 연구는 중국정부가 애국주의 교육기지를 어떻게 구축해 나갔는지, 세균전의 기억이 어떤 식으로 중국 민족주의 교육에 활용되는지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편협한 민족주의라는 혐의를 갖고 있는 중국의 애국주의 교육이 세균전의 기억을 통해 어떻게 새로운 지향을 갖게 되었는지도 탐구할 것이다.

2. 731부대진열관 건립과정

731부대진열관은 중일전쟁 종결 이후 현재까지 크게 4개 시기로 나누어 그 발전양상을 살펴볼 수 있다. 1단계는 1945년부터 1981년까지로 이 단계는 훼손과 보호가 병존했던 시기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731부대 유적은 별다른 보호를 받지 못했다. 1950년 일본이 세균전을 준비하고 실행하였다는 소련 하바롭스크 재판자료가 공개되면서 중화인민공화국

8) 다크 투어리즘은 1996년 영국의 맬컴 폴리(Malcolm Foley)와 존 레논(John Lennon)이 처음 제안했으며, 2000년에 단행본을 출간하면서 정식으로 제기된 용어로 전쟁, 학살, 재난 등이 일어난 곳을 여행하는 것을 지칭한다. Malcolm Foley and John Lennon, *Dark Tourism: The Attraction of Death and Disaster*, London, Continuum, 2000. 중국에서는 흑색여행[黑色旅遊] 혹은 흑암여행[黑闇旅遊]이라고 번역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역사교훈여행 등으로 번역하고 있다.

(中華人民共和國) 동베이인민정부(東北人民政府) 위생국(衛生局)은 하얼빈 평광구(平房區) 731부대 본부, 명자툰(孟家屯) 세군전 공장 및 안다(安達) 특별실험장 등을 보호하도록 하는 법령을 공포하였다. 1952년에는 후차오무(胡喬木)가 731부대 유적을 보호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1958년 대약진운동과 1969년 문화대혁명 이래로 731부대 유적은 크게 손상되었다. 대약진운동 기간 동안 731부대 동력반의 철근 골조를 뽑아서 제강하였고, 문화대혁명 기간 동안에는 지하동굴을 찾겠다는 명분으로 땅파기 작업을 대대적으로 실시하여 유적지의 담벽을 허물고 지하시설을 파괴하였다. 몇몇 공장주와 주민들은 731부대 유적에서 나온 벽돌 등을 이용하여 공장부지와 주택 건설용으로 사용하였다. 심지어 일부 기관은 731부대 시설에 가정집을 꾸미거나 사무실을 열기도 했다.⁹⁾

제2단계는 1982년부터 1998년까지 본격적으로 유적보호가 시작된 시기이다. 1982년 10월 18일 문화부(文化部)는 문건 1289호 「일본침화 죄행유적지를 잘 보호하기 위한 업무통지(做好保護日本侵華罪行遺址工作的通知)」를 통하여 각 성·시·자치구의 문화국(文化局) 주도로 일체의 만행을 증거하는 유적지를 보호하도록 명령하였다. 1982년 12월 하얼빈시는 정식으로 평광구 문물관리소(文物管理所)를 설치하여 731부대 유적을 관리하였다. 또, 시정부는 731부대 유적을 시급(市級) 중점문물보호단위로 지정하고 「관동군 731부대 죄행유적지 보호에 관한 통고(關於保護原日本關東軍第七三一部隊罪行遺址的通告)」를 제출하여 731부대 유적을 전면적으로 보호하기 시작하였다.

1983년 3월 7일, 헤이룽장성(黑龍江省) 인민정부(人民政府)는 하얼빈 일본세균공장죄증전람관(哈爾濱日本細菌工場罪證展覽館)을 설립하였고, 731부대 유적을 성급(省級) 문물보호단위로 지정하였으며, 10만 위안의 경비를 지출하여 문물보호, 자료조사, 전시준비 등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다. 1983년 8월 2일, 하얼빈시 평광구 인민정부는 기존 평광구 문물관리소를 폐지하고, 하얼빈 일본세균공장죄증전람관을 설치하였다.

1985년 7월 26일, 헤이룽장성 편제위원회(編制委員會)는 하얼빈 일본세균공장죄증전람관을 침화일군 제731세균부대 죄증진열관(侵華日軍第731細菌部隊罪證陳列館)으로 개칭하였다. 1985년 8월 15일, 침화일군 제731세균부대 죄증진열관은 외부에 전면 개방되었다. 1991년에는 성정부 및 시정부 40만 위안, 국가문물국 40만 위안, 일본민간기금 77만 위안 등 157만 위안이 유적보호 및 전시사업에 투여되었다. 1993년 9월에는 731부대유적 중 22개소가 보호유적으로 지정되었다. 유적지 3미터 이내는 특별보호구, 10미터 이내는 중점보호구, 20미터 이내는 일반보호구 등으로 지정되었다. 1995년 8월 15일, 731부대 유적지 300미터 지

9) 金成民, 『일본군 세균전』(서울: 청문각, 2010), 946쪽.

점에 진열관 신관을 개관하였다. 1997년 8월, 중국인 108명은 일본 도쿄지방법원에 731부대의 죄상을 사죄하고 피해자에게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진행하기도 했다.

제3단계는 1999년부터 2005년까지로 731부대 유적지를 정리하고 진열관이 재정비된 시기이다. 성정부 및 시정부 1,100만 위안, 사회 각계 700만 위안 등을 유적지 보호사업에 투입하였다. 이 기간 동안 유적지구 내의 143개 가가와 12개 공공기관이 타지로 이전하였다. 일본에서 민간인 배상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4년이 지나도록 일본 법원의 판결이 없자, 2000년 5월 중국정부는 731부대 유적에 대한 조사와 연구를 통해 1년여 동안 731부대 관련 유물과 자료를 본격적으로 수집하고 정리하였다. 2001년 6월 전세계에 731부대의 죄상을 공개하고, 중국인에게 반일 민족주의를 고취할 목적으로 침화일군 제731세군부대 최종진열관을 재개관하였다. 2003년 4월 9일, 하얼빈시 핑팡구 기구편제위원회(機構編制委員會)는 침화일군 제731세군부대 최종진열관을 침화일군 제731부대 최종진열관으로 개칭하였다. 2004년 12월에는 전국 12대[12家] 중점홍색여행지구가 선정되었는데, 731부대 유적은 등베이 홍색여행구의 일원으로 선포되었다. 2005년 731부대 유적은 전국 100대 홍색여행 표준지구로 선정되어 첫 번째 국채자금 2,680만 위안을 획득하였다.

제4단계는 2006년 이후 현재까지 731부대 진열관이 국가급 문물단위로 성장한 시기이다. 진청민(金成民) 731연구소장이 제안한 「731유적지의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관한 연구가 2006년 12월 『신화사(新華社)』에 게재되면서 731유적지가 국가 지도자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다.¹⁰⁾ 특히 리장춘 상무위원은 2006년 및 2010년 두 차례에 걸친 구두 지시로 731부대 유적의 국가적 중요성을 강조하고 국가관리를 지시하였다고 한다. 단지상 국장 역시 하얼빈을 방문하여 731부대 유적지 보호업무에 관한 좌담회를 개최하기도 했다.¹¹⁾ 2006년 중공중앙(中共中央) 국무원(國務院)이 731부대 유적을 전국중점문물보호단위로 지정한 것도 국가 지도자들의 관심과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1982년 시급 문물단위로 시작된 731부대 유적은 1983년 성급 문물단위로 지정되고, 2006년에 국가급 문물단위로 성장하게 되었다. 「하얼빈 침화일군 제731부대 유적지 보호조례(哈爾濱侵華日軍第七三一部隊舊址保護條例)」가 정식으로 제정되어, 731부대 유적에 대한 본격적인 관리가 실시되었다.

10) 731부대진열관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노력은 폴란드 아우슈비츠 수용소, 일본 히로시마 평화공원 등이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되면서 자극받은 것이다. 731부대유적을 등재시키려는 움직임이 1996년부터 시작되었고, 2002년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하기 시작하였다. 「731遺址記錄日軍二戰罪行將申報世界文化遺產」, 網易科技報道 <http://tech.163.com> (2004.10.30)

11) 金成民, 『일본군 세균전』(서울: 청문각, 2010), viii쪽.

〈표 2〉 731부대진열관 역대 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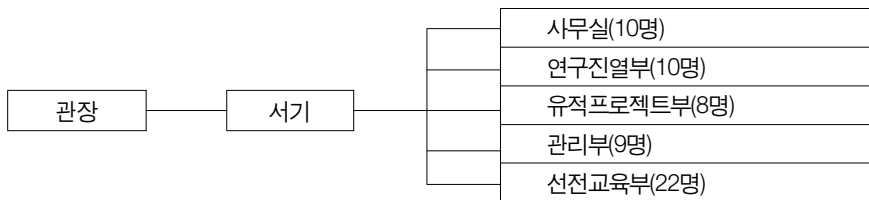
역대	성명	재직기간	비고
제1대	한샤오(韓曉)	1983. 4~1995. 3	1990년후 당지부서기 겸직
제2대	탄징보(譚景波)	1995. 3~1998. 7	핑팡구 문화국국장 겸임관장 및 당지부서기
제3대	왕이팅(王—汀)	1998. 7~2001. 6	당지부서기 겸직
제4대	왕펑(王鵬)	2001. 6~2009. 3	당지부서기 겸직
제5대	진청민(金成民)	2009. 3~ 현재	단창칭(單長淸) 서기 부임(2009. 10-현재)



〈사진 2〉 731부대진열관 전경: 정면 왼쪽은 2008년까지는 하얼빈시25중학이 사용하여 진열관으로 활용되지 못하다가 2009년 이후 진열관으로 확장되었다. 건물 맨우측 2층이 이시이 시로 부대장의 집무실이다. 이시이 집무실 오른쪽에 파괴된 보일러실이 보인다.

지금 현재 진열관 조직은 관장, 서기 이하 5개 조직, 6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임 왕펑(王鵬) 관장 시기에는 관장이 서기를 겸직하고 있었으나, 신임 진청민 관장 시기에 이르러 관장 아래 서기를 두고 현재의 조직으로 구성되었다. 그밖에 선전교육부 등 관리인원이 크게 늘어난 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해 유적프로젝트부가 보강된 점이 이전 시기와 크게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다.

〈표 3〉 731부대진열관의 조직구성(2013년 10월 현재)



사무실(辦公室)은 각종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연구진열부는 731부대 관련 연구 및 전시실 진열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유적프로젝트부(遺址項目部)는 731부대 유적지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정식 등재하기 위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사업부서이다. 최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예비 등록을 마치고 정식 등록을 앞두고 있다. 관리부(物業管理部)는 자재관리, 후방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선전교육부는 진열관 내에 가장 많은 인원이 배치되어 있는데, 안내원, 해설사, 경비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3. 731개발관리위원회의 조직과 활동

1997년 중공중앙선전부가 731부대진열관을 전국 100대 애국주의 교육시범기지로 선정한 이래로, 2000년 하얼빈 시정부는 731부대진열관을 국가급 문물보호단위 선정 및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해 관련문물과 유적을 정비하는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였다. 2001년부터는 731부대진열관 사업이 사회주의 정신문명 건설의 일환으로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시정부는 「731유적지 보호이용계획(731遺址保護利用規劃)」을 반포하고, 731본부 2호 건물물 중심으로 정비하였다. 2003년부터는 731부대진열관 사업이 사회주의 정신문명 건설뿐만 아니라 ‘애국주의 교육시범기지’ 및 ‘항전승리60주년’ 기념사업으로도 주목받았다. 2005년에는 731부대유적 주변 환경조성 공사에 1억 위안의 비용이 투입되었고, 전국 제27개 중점홍색 여행정품선로(重點紅色旅游精品線路) 중의 하나로 채택되어 국가개발자금이 2,930만 위안이 투입되었다. 2006년에는 731부대 유적은 국가급 문물보호유적으로서 국가박물관이 문화유산보호공작선진집체(文化遺產保護工作先進集體)로 선정하기도 했다.

2007년 핑팡구정부는 731부대유적의 합리적인 개발과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731개발관리위원회(731開發管理委員會)를 설치하고, 문화흥구(文化興區)라는 발전전략을 가지고 구체적인 업무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원래 개발관리위원회는 각급 박물관 및 유적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행정지원을 위해 발족한 조직으로 상부의 지시에 의해 성립한 것이다. 특히 731부대유적의 경우, 주민들이 유적지에서 거주하거나 활용되고 있는 빈도가 높아, 유적지의 보존을 위해서는 거주 주민의 이전과 유적지 복원 등 적지 않은 민원업무 및 행정지원을 필요로 한다. 이를 위해 731개발관리위원회는 진열관의 지도급 인사와 구정부 행정팀으로 구성되어, 731부대유적의 합리적인 개발과 관리를 지원하고 있다.

중국의 박물관 조직은 대개 국가박물관, 성정부, 시정부, 현정부, 구정부 등 각급 행정조

직에 부속된 기관으로 정부조직(市政府 혹은 市委)과 당조직(黨委) 등의 하부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컨대 난징대학살기념관(南京大屠殺紀念館)은 난징시위(南京市委) 선전부(宣傳部)에 소속되어 있고, 선양(沈陽) 9·18 역사박물관(九一八歷史博物館)은 선양시 문화국에 소속되어 있으며, 베이징항전관(北京抗戰館)은 베이징시(北京市) 핑타이구정부(豐台區政府)에 소속되어 있다. 이들 박물관은 모두 지방정부가 유지관리를 전액 지원하고 있다. 지급액은 박물관마다 일정치가 않아서, 9·18 역사박물관은 선양시가 매년 240만 위안을 지원하고 있으며, 난징대학살기념관은 난징시가 매년 210만 위안을 지원하고 있다. 박물관 관리체계상으로는 베이징항전관과 창춘만주국황궁박물관(長春僞滿皇宮博物館)이 관장 초빙 제도를 실시하여 박물관 기구를 개혁하고 있으며, 나머지 박물관들은 원래의 관리체계를 따르고 있다.

중국의 박물관은 국가급 박물관의 경우에도 대개는 시정부 등의 직접적인 관리와 지원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731부대진열관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맥락을 따르고 있다. 731부대진열관은 직접적으로는 핑광구정부의 관리와 지도를 받고 있으면서도 하얼빈시정부와 헤이룽장성정부의 중요 문물로서 관리되고 있으며, 명목상으로는 국가급 문물보호유적으로 대우받고 있다. 2007년 시정부 및 성정부 여행국(旅遊局)은 정부가 731부대진열관을 주도적으로 관리하되, 여행사와 합작하여 상호 이익이 되는 방향을 모색하였다. 이에 대해 시정부 및 성정부 계획위원회는 중앙정부 차원의 국채를 주로 투입하여 관련 유적을 개발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기타 자금은 보조적 역할에 그쳐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731부대진열관 왕평 관장은 2007년 731개발관리위원회를 조직하여 새로운 진열관 개발 모형을 구상하였고, 731부대진열관의 국가지원과 새로운 융자모형을 통한 주식제도의 도입, 관장 초빙제도 등 투자유치 및 수익창출 등 혁신적인 진열관 개혁모형을 기획하였다. 그러나 국가문물국이나 당중앙 선전부 등은 2008년 3월부터 박물관 무료입장 제도를 도입하는 등 왕평 관장의 구상과는 대립되는 방향을 제시하는 상황이었다.

2009년 왕평 관장의 퇴진과 신임 진청민 관장의 임명은 731부대진열관의 향방을 어느 정도 예측가능하게 한다. 왕평 관장은 줄기차게 731부대진열관과 애국주의 교육을 강조해 왔고, 진열관의 수익모델 창출을 위한 개혁모형을 기획하였다. 반면 진청민 관장은 731부대진열관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해야 한다는 「731유적지의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관한 연구」라는 보고서를 통해 국가지도자들의 주목을 받았고, 무료관람, 연구교류, 전시콘텐츠의 변화 등을 통해 731부대진열관의 개혁을 추구하였다.

4. 애국주의 내러티브와 진열관 콘텐츠의 구성

731부대진열관 설립 이후 진열관 콘텐츠 구성의 기본 방향은 일본제국주의의 잔학성을 전 세계에 알리고 애국주의 교육기지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탈냉전, 탈이념에 따른 국가정체성을 강화하려는 대안을 찾고 있었고, 1982년 일본교과서 왜곡 논쟁을 거치면서 애국주의가 크게 주목받았다. 1990년 5월 3일 장쩌민(江澤民) 국가주석은 「수도청년 5·4기념보고회(首都青年紀念五四報告會)」에서 수많은 청년들에게 애국주의 전통의 계승과 발양을 호소하였으며, 그 이후로 애국주의 교육이 본격화되었다.¹²⁾ 1994년 8월 23일 중국공산당 중앙선전부가 「애국주의교육실시강요(愛國主義教育實施綱要)」를 발표하면서 애국주의 교육을 통한 사회주의 문명건설을 제시하면서 시작되었다. 「애국주의교육실시강요」는 각종 박물관을 애국주의 교육기지로 적극 활용할 것을 지시하였다.

1995년 3월 민정부(民政府)는 중국의 주요 박물관, 기념관, 공원, 유적 등을 중심으로 100대 애국주의 교육기지를 발표하였고, 731부대진열관 역시 그 중의 하나로 이름을 올렸다. 애국주의 교육기지를 활용한 애국주의 교육은 개혁개방 이후 탈냉전과 탈이념의 추세 속에서 새로운 국가통합의 방안으로 청소년 및 대학생 역사교육의 일환으로 주목받고 있다.

1995년 5월, 중공중앙선전부, 국가교육위원회, 문화부, 신문출판서, 공산주의청년단 등은 「전국 초중등학생에게 100종 애국주의 교육도서를 추천하는 것에 관한 통지(關於向全國中小學推薦百種愛國主義教育圖書的通知)」를 발표하고, 100종의 애국주의 교육도서 독서, 100부 애국주의 영화 감상, 100곡 애국주의 가곡 애창 등을 초중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애국주의 교육내용으로 삼았다.

1996년 10월 10일, 장쩌민 총서기는 중공 14계 6중 전회 중요 강화에서 “우리의 사업을 계속 앞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국인민 특히 청소년 가운데 진일보하게 애국주의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우리들이 견지하는 애국주의는 편협한 민족주의와 본질적으로 구분된다. 우리 인민들이 이해해야 할 것은 대외개방을 견지하여 세계 각 민족의 장점을 열심히 배우고 선진적 과학기술과 경영관리경험을 적극 도입하여 우리의 자생력도 증강되어 조국의 발전을 가속시키게 된다. 이것이 바로 애국주의의 중요내용이다”라고 하였다.¹³⁾ 장쩌민은 중국정부가 강조하는 애국주의가 편협한 민족주의가 아니라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해

12) 윤휘탁, 『신중화주의』(서울: 푸른역사, 2006), 87~88쪽.

13) 江澤民, 「關於加強愛國主義教育(1996.10.10)」, 『人民日報』(1997.5.11), 1면.

대의개방과 국제주의를 강조하였다.

1996년 11월, 국가교육위원회, 민정부, 문화부, 국가문물국, 공청단중앙, 해방군총정치부 등은 전국 초중등학생들에게 100대 애국주의 교육기지를 추천하였다. 1997년 7월, 중선부는 100대 애국주의 교육시범기지를 공포하였고, 이것을 통해 전국 애국주의 교육기지 건설에 영향을 주고 움직여 나가게 하고자 하였다. 이 때 공포한 100대 시범기지 중 역사문화와 관련된 것이 19개, 제국주의 침략 및 민중투쟁과 관련된 것이 9개, 혁명투쟁 및 사회주의 건설과 관련된 것이 75개였다.

2001년 6월 11일, 중선부는 당의 빛나는 역사를 주요 내용으로 반영한 제2차 100대 애국주의 교육시범기지를 발표하였다. 2005년 11월 20일, 중선부는 제3차 66개 전국애국주의 교육시범기지 명단을 발표하였다. 2009년 5월, 중선부는 제4차 87개 전국 애국주의 교육시범기지를 발표하였는데, 그 뜻은 애국주의 교육기지 건설을 진일보하게 추동하고, 애국주의 교육기지작용을 더욱더 발휘하고, 군중성 애국주의 교육활동을 더욱 심화 전개하고, 애국열정을 격발시키고, 인민역량을 응집시키고, 민족정신을 배양시키는데 있었다.

731부대진열관 설립 이후 진열관의 주요 콘텐츠는 반일 민족주의를 선전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고, 애국주의 교육기지 선정 이후 정부가 국제주의 등을 강조하였지만, 진열관의 전시 콘텐츠는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았다. 2006년 731부대진열관 내부에서 세계평화와 애국주의 교육 강화를 실현하기 위해 논의를 한 적이 있었다.¹⁴⁾ 그러나 국제주의와 관련된 구체적인 콘텐츠를 제시하지는 못하였는데, 2012년 일본인 고아를 돌본 '중국 어머니의 큰 사랑' 전시실의 개관을 통해 국제주의와 관련된 콘텐츠를 고안해냈다.

731부대는 현 하얼빈시 중심부에서 동떨어진 남부 평광구에 산재하고 있는데, 진열관으로 사용되고 있는 본부건물을 비롯하여 731부대 숙영지와 부속건물 등 23개소로 구성된다. 731부대진열관은 본부 건물 등을 중심으로 731부대 유적을 전시물로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한 특징이다. 또한 731부대의 세균전과 화학전 활동을 부정하고 있는 일본정부를 의식하여 진열관 콘텐츠는 사실성과 실증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시 콘텐츠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731부대의 세균전 활동을 전시하기 위해 진열관측은 1990년 3월부터 731부대 본부건물 우측 1층을 전시관으로 사용하였고, 우측 2층을 사무실과 접대공간으로 사용하였다. 1995년 8월 15일, 731부대 본부건물 인근에 진열관 신관을 개관하고 1·2층에 걸쳐 전시관을 개관하였다. 그러나 전시공간이 여전히 협소하여 2001년 731부대 본부 건물로 전시실을 이

14) 程立華, 「論推動“731”陳列館愛國主義教育工作」, 『科技資訊』 18, 2006, 145쪽.

전하였다. 당시 본부건물의 좌측은 하얼빈시25중학교가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본부건물 우측 1·2층만을 세균전 전시실로 사용할 수 있었다.

2009년 신임 진청민 관장이 부임한 이후 하얼빈시25중학교가 이전하였고, 본부건물 전체를 전시실로 개조하였다. 이에 따라 본부 건물 우측 1·2층을 세균전 전시실 13개로, 좌측 1층은 일본고아를 돌본 ‘중국 어머니의 큰 사랑’ 전시실 2개, 좌측 2층을 화학전 전시실 6개로 구성하고 2011년 1월 개관하였다. 새로 개관한 전시실은 리모델링되어 세균전 전시실이 일부 보완되었고, 이시이 집무실이 새로 추가되었다. 또 본부건물 현관 뒤편으로 인적 사항이 확인된 3,000여명의 희생자 추모 회랑이 조성되었고, 국제자료센터가 설치되었다.

1) 세균전 전시실

① 제1전시실: 731부대의 건립과 멸망

1931년 일본군 참모부는 생물학전을 계획하고, 1932년 8월 이시이 시로(石井四郎: 1892~1959)가 주도하는 세균실험실에 도쿄 육군군 의학교에서 설립되었다. 1933년 하얼빈시 남부지역에 이시이 부대가 실험장을 설치하였다. 1935년 이시이는 하얼빈 핑팡지역에 새로운 세균공장을 이전하였다. 그밖에도 하이라얼(海拉爾), 쑤우(孫吳), 린커우(林口), 무단강(牡丹江) 등 지역에 지부를 건립하였다. 1942년 이시이가 군비횡령 문제로 사직하자 기타노 마사지(北野政次: 1894~1986)가 이를 승계하였다. 1945년 이시이가 다시 복귀하였으며, 패전 이후 731부대는 건물을 폭파하고, 증거자료 소각, 포로 살해 등 자신들의 행각을 덮기 위해 노력하였다. 731부대는 본부건물 뿐만 아니라 실험실, 소각장, 비행장, 지원부대 등을 거느린 대규모 시설이었으나, 전후 적지 않게 훼손되어 현재는 본부 건물을 중심으로 23개소만이 남아있다.



〈사진 3〉 세균전 제1전시실: 731부대의 건립과정과 미국립문서보관소가 2007년 공개한 생체실험보고서인 리포트 Q(페스트균 보고서), 리포트 A(탄저병실험 보고서), 리포트 G(비저균실험 보고서) 등이 전시되어 있다.

② 제2전시실: 평양특별군사지역(平壤特別軍事地域)의 건립

평양특별군사지역은 120km에 이르는 지역으로 그 주변에는 특별군사지역임을 표시하고 있다. 외부인의 차단을 위해 거주증명서가 발급되었고, 위반자는 정치혐의범으로 체포되었다. 이 지역을 건설하기 위해 대규모 중국인 노동자들이 동원되었으며, 생체실험은 마루타(통나무)라고 불린 731부대 특설감옥에 갇힌 수감자들을 대상으로 했다. 특설감옥은 사각형의 실험건물 가운데 2층의 2동으로 된 건물로 4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였다. 수감자들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밝히는 것은 생체실험의 실증을 밝히는 중요한 대목이었다. 진청민 주도의 731부대진열관 연구팀은 1997~98년 헤이룽장성 당인관에서 '특별이송'에 관한 당안자료를 발견하였으며, 그 문헌들은 생체실험의 대상자들이 731부대에 수감된 경로를 알게 된 결정적 계기가 되기도 했다.



(사진 4) 세균전 제2전시실: 1997년 헤이룽장성당인관에서 대상자가 투옥되었고 그들의 손과 발에는 족쇄가 채워졌다.



특설이송에 관한 당안자료가 발견되었다. 특설감옥에 생체실험

③ 제3전시실: 세균실험

731부대는 100여 종에 달하는 생체실험을 실시하였으며, 이 전시실에서는 당안에 기록된 33종의 실험을 전시하고 있다. 아울러 731부대원의 회고에 기초하여 각종 세균실험의 자세한 광경을 묘사하고 있다. 세균을 주입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주사기를 통해 세균을 주입하는 근육주사였다. 아울러 동상실험 과정이 묘사되어 있는데, 동상 후 지혈, 수혈, 해부, 절단, 봉합 등의 과정이 전시되어 있다.



(사진 5) 제3전시실: 각종 근육주사를 통해 세균실험이 이루어졌고, 동상실험 역시 731부대의 중요한 실험항목이었다.

④ 제4전시실: 독가스실험

731부대는 실내에서 생체실험뿐만 아니라 독가스실험을 진행하였는데, 가스발생실과 지하가스저장실을 설치하였으며, 731유적지에서 세균생산에 사용되는 용해술과 고압살균기 등이 발견되었다. 731부대원의 기억에 따르면, 731부대는 매일 각종 세균 3,000kg을 생산할 능력이 있었다고 한다.



〈사진 6〉 제4전시실: 독가스 실험을 위해 독가스 생산을 위한 다양한 시설이 준비되었다.

⑤ 제5전시실: 실험재현

이 전시실은 731부대의 잔인한 실험을 재연하고 있다. 바로 진공실험, 해부표본 제작 등 잔인한 생체실험이 재연되어 있다. 사체소각로는 3개가 있었는데, 부대원용, 실험동물용, 생체실험자용 등이다. 아울러 양측 벽면에 731부대원들의 증언과 731부대 노역자들의 증언을 게시하고 있다.



〈사진 7〉 제5전시실: 진공실험, 사체해부실습 등 다양한 생체실험 내용이 재연되어 있다.

⑥ 제6전시실: 이시이 집무실

2009년 이후 새롭게 전시되었다. 이곳은 이시이가 실제로 업무를 보던 장소이며, 이시이가 업무를 보는 광경이 그대로 재연되어 있다. 이시이가 사용하던 장롱과 의자 등이 전시되었다. 이시이 집무실 아래쪽으로 이시이가 사용하던 비밀통로가 남아있다.



(사진 8) 제6전시실: 이시이의 집무실과 이시이가 사용하던 실제 가구가 전시되어 있다.

⑦ 제7전시실: 야외실험

731부대는 야외실험의 필요에 따라 수많은 지역에 야외실험장을 설치하였다. 야외 생체 실험에 사용된 야외용 급수기구, 유탄포 차바퀴 등이 전시되어 있다. 1939년에는 노몬한 전투에서 세균전이 실시되었는데, 731부대원 40여명이 사망하기도 했다.



(사진 9) 제7전시실: 1939년 이시이는 노몬한전투에서는 세균전을 직접 지휘하기도 했다. 일본군부는 이시이에게 훈장을 수여하며 격려하였다. 당시에 사용하던 용접장비(오른쪽 사진)는 현재에도 작동이 가능하다.

⑧ 제8전시실: 야외실험장

안다(安達)실험장이 중요한 야외실험장 중의 하나였다. 야외실험장은 실험대상자를 묶어 놓고, 도자기 폭탄을 지상 100미터 이상에서 터뜨리고 세균이 인체에 잘 침투하는지 여부를 관찰할 수 있는 곳이었는데, 그 광경이 재현되어 있다. 실제 야외실험장에서는 발견된 적지 않은 도자기 파편이 발견되었고, 전시실에는 도자기 파편과 완제품이 함께 전시되어 있다.



〈사진 10〉 제8전시실: 안다 야외실험장에서 실험모습이 재현되어 있고, 실제 도자기 폭탄 파편과 모형 등이 전시되어 있다.

⑨ 제9전시실: 731부대 동물사육 및 실험용구

731부대는 말, 소, 양, 돼지, 원숭이, 쥐 등 적지 않은 동물들을 사육하여 혈청실험 및 세균실험을 전개하였다. 아울러 사체해부시 사용했던 인체 장기 걸개, 세균실험시 사용된 의료용구, 표본병, 온도계, 주사기 등이 전시되어 있다.



〈사진 11〉 제9전시실: 세균실험을 위해 각종 동물들이 실험도구로 사용되었고, 사체해부시 사용했던 장기 걸개 등이 전시되어 있다.

⑩ 제10전시실: 연구저작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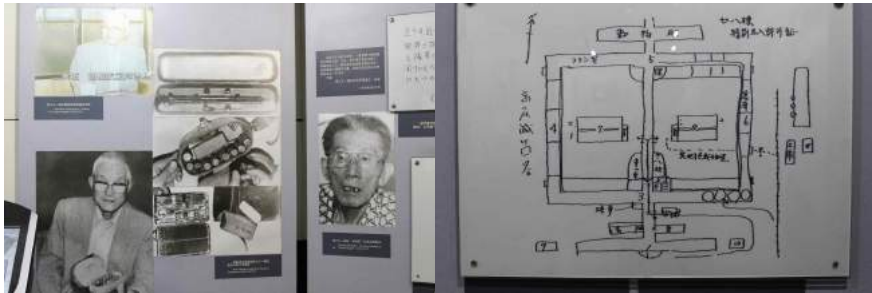
이 전시실에는 731부대 역사에 관해 연구한 국내의 저작들과 일제의 전쟁선전 잡지 등을 모아놓은 곳이다. 731부대진열관이 수집·조사한 서적만도 166권에 달한다.



〈사진 12〉 제10전시실: 731관련 저작과 전쟁선전에 활용된 잡지 등이 전시되어 있다.

⑪ 제11전시실: 참회

이 전시실에는 731부대원들의 참회와 회고 등 기록이 전시되어 있다. 731부대 특설병동을 직접 그린 그림, 특별호송차량 상세도, 참회록 등이 전시되어 있다. 심득룡을 직접 이송했던 헌병대원의 나오카타 이시바시(石橋直方)의 증언과 인터뷰 영상이 눈길을 끈다.



〈사진 13〉 제11전시실: 731부대원들의 참회와 증언 등이 전시되어 있다. 생체실험이 자행된 본부건물 뒤편의 실험동에 대해서도 자세히 언급되고 있다.

⑫ 제12·13전시실: 일본순회 전시물

이 전시실은 일본 ABC기획위원회가 1993년 7월부터 2005년 7월까지 일본의 60여개 도시에서 전시한 내용을 전시하고 있다. 100만 명 이상의 일본인이 참관하였다고 한다.



〈사진 14〉 제12·13전시실: 일본에서 순회 전시했던 전시물이 그대로 전시되어 있다.

2) 화학전 전시실

① 제1전시실

화학무기의 거대 살상력 때문에, 국제사회는 화학무기 사용을 금지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왔으며, 일련의 조약을 통해 화학무기 사용을 금지해왔다. 화학무기의 위력과 가격 경쟁력 때문에, 일본은 화학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기구를 구축하고 생산에 돌입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오쿠노시마(大久野島)는 화학무기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곳이었다. 이 섬은 세토(瀬戶) 내해(内海)와 히로시마(廣島) 남면 바다에 위치하는데, 군사전략상 지도상에는 표시되지 않았으나, 현재까지도 존재하는 섬이다.



〈사진 15〉 화학전 제1전시실: 일제는 지도상에는 나오지 않는 오쿠노시마라는 섬에서 화학무기를 생산하였다.

② 제2전시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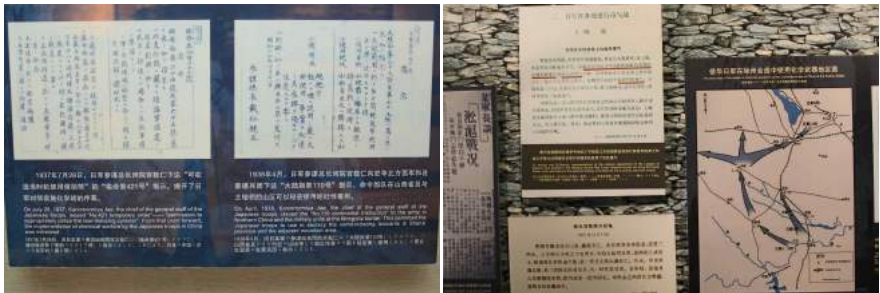
1937년 일본 육군은 독가스 장전포탄을 제작하기 위해 일본 후쿠오카현(福岡縣)에 병기 제조소를 건립하였고, 일본 해군 역시 독자적으로 화학무기를 연구하고 제조하기 위해 1943년 해군 공장을 건립하였다. 화학무기 제조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일본 지바현(千葉縣) 나라시노시(習志野市)에 육군나라시노학교(陸軍習志野學校)를 건립하여 화학부대 정예요원을 전문적으로 양성하였다.



〈사진 16〉 화학전 제2전시실: 일본 육군과 해군은 각각 독자적으로 화학부대를 운용하고 화학전을 준비하였다.

③ 제3전시실

이 전시실에서는 일본군이 전쟁 중에 사용한 화학무기 상황을 보여준다. 일본군이 중일 전쟁 기간 계속해서 지시한 화학무기 사용 작전지시서는 일본군이 화학무기를 사용하였다는 증거 중의 하나이다. 쑹후(淞滬)전투에서 우한(武漢)전투에 이르기까지 화학무기 사용을 점차 확대해 나갔는데, 전시실에는 그 전투에서 사용된 일본군의 총기류와 방독면 등이 전시되어 있다.



〈사진 17〉 화학전 제3전시실: 1937년 7월 일본군 참모총장은 중국전선에서 화학전을 실시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④ 제4전시실

중국군은 1939~41년 창사(長沙)전투에서 화학무기의 제물이 되었다. 일본군은 국민당군대에 대규모 화학무기를 투입하였고, 후방 근거지에도 대량의 독가스를 살포하였다. 일본군은 자신들의 독가스 사용 혐의를 희석하기 위해 오히려 중국군이 독가스를 사용했다고 주장하면서 국제적인 비난과 견책을 피하는 전술을 사용하기도 했다.



〈사진 18〉 화학전 제4전시실: 중국군은 장사전투에서 화학전의 희생물이 되었다. 화학전에 대비하여 일본군이 미구용 장비까지 갖췄는데 비해 중국군은 수건을 감싸는 정도가 최선이었다.

⑤ 제5전시실

일본군은 중국군뿐만 아니라 민간인에게도 화학전을 전개하였다. 1942년 5월, 일본군은 허베이성(河北省) 덩현(定縣) 베이투안(北疃) 지역에서 화학전을 실시하였다. 국제사회는 일본군에게 화학무기 사용을 금지할 것을 요구하였지만, 일본군은 국제법을 위반하고 화학전을 중지하지 않았다.



〈사진 19〉 화학전 제5전시실: 일본군은 화학전의 대상으로 정규군과 민간을 가리지 않았다.

⑥ 제6전시실

1945년 일본의 무조건 항복 이후, 일본 내의 화학무기는 UN군이 처리하였으나 중국 내의 화학무기는 방치되어 중국인의 생명과 재산, 환경 등을 위협하였다. 불완전한 통계에 따르면 17개 성·시·자치구 등 수십 개 지역에서 각종 유독탄 200만발, 독가스 100톤 이상이 발견되었다. 중국 전역에서 독가스 누출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다. 일본 정부는 화학전의 존재 자체를 여전히 부인하고 있다.



〈사진 20〉 화학전 제6전시실: 화학무기는 중국 전역에서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고, 그 피해자는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일본 정부를 상대로 법정투쟁이 계속되고 있지만, 일본정부는 화학전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3) 중앙 회랑



〈사진 21〉 중앙회랑: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해 새롭게 조성되었다. 예전과 달리 한국인들의 추모 공간에는 한글 이름과 사진 등이 부착되어 있다.

희생자 추모공간은 원래 마지막 전시공간에 조성되었다. 전시공간을 확대하면서 본부건물 출입구 뒤쪽의 중앙 회랑으로 이전하였다. 중앙 회랑은 본부건물 중앙에서 세균실침실로 통하는 중심 통로인데, 이곳 양쪽 벽면에 세균실침과 세균전으로 희생된 3,000여명의 명단이 올라 있다. 이 중에서 1,467명은 항일투쟁 등에 관련된 인사들로 특별이송을 통해 특설감옥으로 이송된 사람들이다. 중국인, 소련인, 몽고인, 한국인 등이 포함되어 있다. 2010년 초까지 심득룡과 이청천은 한국인 독립운동가임에도 불구하고 한자이름과 더불어 '조선족'으로 표기된 바 있었다. 2011년 이후 진열관 중앙 회랑으로 희생자 추모공간을 이전하면서, 한글이름과 사진 등을 부착하여 기존의 잘못을 바로잡았다. 한성진, 고창률, 이기수, 김성서 등을 포함하여 총 6명의 한국인 이름이 희생자명단에 올라 있다.

4) 일본인 고아를 돌본 중국인 어머니 전시실

이 전시실은 본부건물 좌측 1층에 조성되어 있다. 2011년 6월, 중국적십자사의 제안으로 설치되어 2012년 8월부터 전시가 시작되었다고 한다. “중국 어머니의 큰 사랑: 중국인 양부모와 일본인 고아(中國母親的博大情懷: 中國養父母與日本遺孤)”라는 제목이 붙은 전시실은 전쟁으로 버려진 일본인 고아들을 돌보는 중국인 양부모의 사연과 사진 등을 전시하고 있다. 이 전시를 통해서 종전 이후 60여 년 동안 전쟁으로 고통받아온 중국인 부모들이 고아들을 양육하고 일본으로 돌려보내기 위해 조력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 진열관측은 이 전시를 통해 어떤 것이 진정한 인도주의와 박애정신인지를 보여주고자 했으며, 세균전의 피해와 극명하게 대비되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보여주고 있다. 일반관람사에는 이 전시관을 볼 수 없고, 특별전시가 이루어질 때만 관람이 가능하다. 진열관측에 따르면, 안내인원이 충원되는 대로 일반관람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한다.



〈사진 22〉 중국 어머니의 큰 사랑 전시실: 전시 일본인 이주정책에 따라 중국에 적지 않은 일본인들이 이주해왔으나,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패배하자, 자신들의 자식까지도 버려두고 황급히 중국을 떠났다. 버려진 일본인 고아들을 돌본 것은 중국의 어머니들이었다.

5. 맺음말

이 연구는 제국주의 침략시기의 세균전의 기억을 항일 역사교육과 민족주의 교육에 활용하기 위해 중국정부가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그 결과물로서 731부대진열관의 건설 및 발전과정을 밝히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특히 2000년대 이후 동아시아 각국 사이에서 역사 및 영토 갈등이 본격화되면서, 세균전 관련 진열관 등의 건립이 계속되고 있어, 731부대 진열관은 중국정부가 대중들의 역사문화를 어떤 방향으로 유통시키고 소비하게 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고 판단된다.

기존의 역사박물관이나 전쟁박물관은 전쟁의 피해자 또는 제국주의 침략에 대한 중국인민의 영웅적 투쟁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 왔다. 이것은 중화민족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민족의 단결과 화합을 중시하는 사회주의 정신문명을 건설하기 위한 이데올로기로서 애국주의 교육기지 건설에 적합한 주제였다. 중국정부는 사회주의에 대한 사회이념을 강조하기보다 애국주의를 강조함으로써 국가통합을 위한 강력한 이데올로기를 창출하고자 했다. 그러나 애국주의에 대한 강조는 편협한 민족주의라는 딜레마를 탈각시키기 어려운 한계도 노출하였다.

반면 세균전의 기억을 활용한 애국주의 교육은 일본의 우경화에 대한 안티테제이자 피해자로서의 중국을 부각할 수 있는 최적의 매개물이었다. 즉 세균전의 피해는 오로지 중국인들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동아시아 각국의 사람들이 모두 피해자였으며, 피해 규모는 언제라도 확장될 수 있는 것이었다. 그런 점에서 731부대진열관은 중국인의 영웅적 투쟁을 강조하기는 어렵다는 한계 속에서도 전쟁의 피해자라는 인식과 세균전이 후방의 민간인들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는 인식을 강력하게 심어줄 수 있었다. 이러한 세균전의 기억은 최근 한중일 삼국의 동아시아 근현대사 역사서술에서도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¹⁵⁾

최근 731부대진열관은 세균전에 대한 기억 속에서 최근 중국의 민족주의 교육이 애국주의 교육기지를 활용한 편협한 민족주의를 지향하고 있다는 혐의를 벗고, 동아시아적 지평에서 민간교류를 활성화하고 보편적 인류애를 강조하는 계기로 삼고자 노력하고 있다. 더 나아가 731부대진열관은 단순한 피해자로서 애국주의에 호소하기보다는 인류의 보편적 양심과 세계평화를 최고의 가치로 부상시키고자 한다. 이것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노력과도 일맥상통한다. 731부대진열관은 2000년대 중반 이러한 기획 방향을 설정하고 있

15) 한중일3국공동역사편찬위원회 편, 『미래를 여는 역사: 한중일이 함께 만든 동아시아 3국의 현대사』(서울: 한겨레출판, 2012).

있고, 2012년 중국어머니 전시실의 개관을 통해 구체적인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 중국이 세균전이라는 미증유의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인들은 일본인 고아들을 성심성의껏 양육하는 등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복돋기 위해서 노력해왔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와 같은 콘텐츠 구성은 기존의 박물관들이 피해자로서의 중국인과 제국주의에 대한 영웅적 투쟁을 강조해 왔던 것과는 다른 전략을 구축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기존의 역사박물관과 전쟁박물관이 중화민족의 영웅적 투쟁을 강조한 애국주의를 통해 배타적 민족주의에 함몰될 수 있는 반면, 세균전의 기억은 피해자로서의 중국인이 보편적 인류애를 실천했다는 국제적 애국주의의 가능성을 열어주었다는 점에서 애국주의 교육기지 건설의 새로운 가능성을 창출한 것이었다. 또한 731부대진열관은 일본, 한국 등지에서 731부대 특별전을 개최하여 동아시아인들의 역사적 기억 속에서 일제의 만행에 대한 공감대를 이끌어내 동아시아 민간교류와 연대의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실제로 731부대진열관에는 일본에서 개최한 전시내용을 그대로 전시하고 있고, 최근에는 한국에서도 731부대 특별전이 개최되기도 했다.¹⁶⁾

세균전 관련 박물관의 건립은 인권과 평화에 대한 인류보편적 가치의 중요성을 일깨울 뿐만 아니라 전쟁과 반일의 공포심을 자극할 수 있고, 이는 지역사회에서 반일에 대한 정서가 강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암시를 내포하고 있다. 즉 세균전 관련 박물관의 건립은 반일의 국가적 정체성의 형성뿐만 아니라 세균전의 직접적 피해자로서 지역사회의 정체성에도 영향을 미치는 흥미로운 사례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세균전은 중국사회에서 제2차 세계대전 이전뿐만 아니라 한국전쟁 이후에도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는 점에서 중국정부가 지속적으로 중국 민족주의를 촉발할 수 있는 수단이 되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장기적으로 역사문화를 강화하는 매개체로서 역사박물관을 통한 지식의 유통이 국가적 레벨과 지역적 레벨의 차이를 드러낼 수 있는 사례로 관심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731부대진열관의 사례는 단순한 전쟁박물관에서 벗어나 중국정부가 중국 민족주의를 자극하는 다양한 경로의 하나로서 기존의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애국주의 교육에서 국제적인 애국주의 교육의 가능성을 열어두었다는 점에서 향후 중국의 애국주의 교육기지 건설의 방향을 가늠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것이다. 또한 731부대진열관 전시교류는 동아시아 반전교육과 민간교류의 장을 활짝 열어 전쟁반대와 평화정착을 염원하는 동아시아인들의 역사교육에도 적극적으로 활용될 것이다.

16) 최근 한국 독립기념관에서는 731부대진열관의 협조를 받아 한중 국제교류전의 일환으로 “일본 731부대의 세균전”을 주제로 2013년 10월 10일부터 11월 30일까지 특별전을 실시하였다.

□ 둘째날 (8.8)

성 소피아 성당- 유대인 박물관- 북대황 박물관
쌍성으로 이동 - 승옥문, 승은문 (쌍성보전투)
하얼빈으로 이동 - 송화강, 러시아거리

소피아 성당

소피아 성당은 하얼빈 시내에 자리잡고 있는 그리스 정교회 성당으로 53.35미터 높이에 전체면적이 721평방미터로 주변 극동지역에서는 최대규모를 자랑하고 있다. 배전정(拜占庭)양식 건축물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중국어로는 '수어페이아[索菲亞教堂]'라고 부르며 하얼빈 건축예술관이라고도 한다. 1903년 중동철로(中東鐵路)를 개통하면서 제정 러시아의 보병사단이 하얼빈에 들어왔고, 러시아 정부에서는 병사들을 위한 군 예배당으로 1907년에 나무 구조로 된 성당을 건축하였다. 1923년 9월 27일에는 재건축을 시작하여 9년 동안 반듯하면서도 우아하고 화려한 아름다움을 갖춘 성당으로 완성하였다. 1996년 11월 전국중점문화보호단위로 선정되었다. 1997년 6월 성당의 내부까지 예전의 원래모습으로 복원한 후 '하얼빈 건축 예술관'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현재는 성당 내부에 하얼빈의 역사가 담긴 흑백사진을 전시하고 있다.



유대인 박물관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나고 많은 유대인들이 하얼빈으로 유입되었는데 그것을 통해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중국에 유대인들이 많은 영향을 끼쳤으며 하얼빈 유대인의 역사를 담고 있는 박물관이다. 유대인들의 그 당시 생활상과 하얼빈으로 오기까지의 경로를 보여주고 있으며 당시에는 유대인 교회로 쓰였던 만큼 곳곳에 유대교의 흔적들이 남아있다. 창문이나 난간 곳곳에 장식되어있는 유대교 상징-다윗의 별이라 불리는 육방성. 박물관의 1층은 과거 하얼빈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림과 사진,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건물들을 모형으로 남겨놓아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건물들의 옛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북대항박물관



북대항은 일제 강점기에 독립운동의 무대가 된 북만주 벌판, 베이다황을 뜻한다. 중국 동북 지방의 북부를 이루는 송년 평원과 싡장 평원을 부르는 지역 이름이며 세계 3대 옥토지대 중 한 곳(중국의 거대한 식량창고)이다. 박물관에는 당시 이곳에서 일하던 베이다황 정신이 소개되어 있으며 다양한 판화들이 전시되어 있다.

베이다황 개간의 역사는 멀리는 진(秦)·한(漢)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정주민이 유입되기 시작한 때는 청(淸)대부터다. 강희제(康熙帝) 때 러시아인들이 헤이룽강 유역에 자주 침입하자 청나라 조정은 이곳에 병참을 세워 수비를 강화했다. 특히 건륭 56년(1793년), 화북지방에 가뭄이 심해 지자 많은 사람들이 이를 피해 베이다황으로 이동했다. 하지만 베이다황은 20세기 초반 하더라도 유목민 일부를 제외하고는 사람이 살지 않던 거대한 초원이자 숲, 습지대였다. 1940년대에도 이곳은 여전히 정착민이 살기 힘든 대초원이었다. 나라의 법과 제도는 야생이나 다름없는 이곳에서 아무런 힘을 쓰지 못했다. 사람보다 승냥이가 자주 보이는 곳이었고 유목민과 러시아 혹은 일본군과의 크고 작은 전투가 끊임없이 이어지던 곳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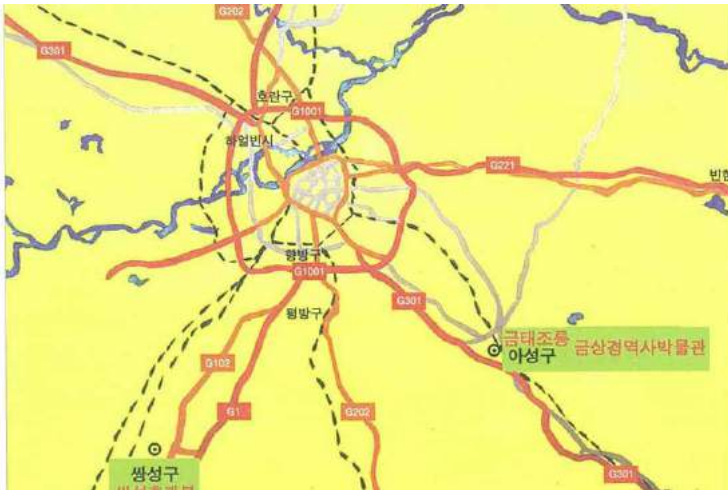
본격적인 개간은 중화인민공화국 탄생 후 이뤄졌다. 마오쩌둥(毛澤東) 국가 주석은 지난 1947년, 농촌 출신 왕젠 장군의 건의를 받아들여 이곳을 식량기지로 본격 개발하기 시작했다. 인민해방군 부참모장이던 왕젠(王震) 장군의 주도하에 수십만의 사람이 이곳을 농토로 개간했다. 국가 주도의 역사가 그대로 남은 까닭에 지금도 베이다황 집단은 중국 정부의 농간총국 산하 국영기업이다. 중국 정부가 동북방 변두리를 농토로 주목한 이유는 이곳이 헤이룽강과 우수리(Ussuri)강, 송화(松花)강 등 세 강이 만나는 천혜의 조건을 가졌기 때문이다. 러시아 국경과 가까워 많은 사람의 거주가 필요하다는 정치적 요인도 고려한 듯 보인다.

초기 개척은 군인들의 몫이었다. 50년대 들면서 인민해방군 15개 사단을 통합한 인민해방군 제 97사단의 군인 10만여 명이 목숨을 바치며 이곳을 인간의 땅으로 만들어나갔다. 1976년까지 이곳에서 질병이나 사고로 죽은 사람은 1만 명이 넘는다. 소련의 도움으로 1954년, 드디어 농장이 본격 개간되기 시작했다. 중국 정부는 이듬해 8월 개간팀을 본격 파견했다. 인민해방군은 만들어지는 농장마다 마치 군부대처럼 이름을 붙여나갔다. 현재도 291농장은 당시 이름 그대로 남아 있다. 82세가 되던 1990년, 왕젠 장군은 자신의 평생을 바친 베이다황에 마지막으로 방문해 "국가를 위해 100억근 쌀과 고기를 생산하도록 분투하자"라는 글을 남겼다.

문화혁명기에 접어들면서 개척은 '지식청년'들의 몫이 됐다. '지식청년은 농촌에 가서 빈한한 농민에게 재교육을 받으라'는 마오쩌둥의 지시 아래 총 267만 명의 지식청년이 전국 각지로 흩어졌다. 1976년까지 54만 명이 넘는 지식청년이 베이다황을 거쳐갔다. 이들 중에는 제11대, 12대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를 지낸 후야오방(胡耀邦)도 있다. 당시 지식청년들은 매일 같이 새벽 3시에 기상해 하루종일 노동하는 고된 삶을 이어갔다. 이 힘든 시기와 특수한 환경이 이른바 '베이다황 정신'을 낳았다. 베이다황 정신이란 '어려움을 이겨내 분투하고, 용감하게 개척하며,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하고, 개인을 없애고 봉사하자'라는 말로 요약된다.

〈쌍성(雙城)〉

쌍성시는 하얼빈시 서남부 방향 약 40킬로미터 지점 송화강 남안 송눈(松嫩) 평원에 위치해 있다. 유구한 역사를 간직한 문화고성으로, 흑룡강의 남대문으로 불리며, 2014년 하얼빈시가 되었다. 주(周)나라 때에는 숙신(肅慎), 한(漢)나라 때에는 읍부(婁婁)라 불렸다. 본래 송화강(松花江) 유역의 물길(勿吉)이 지배하였으나 6세기 중엽 물길의 세력이 약화되자 각 부족들이 자립하였는데, 이들을 총칭하여 말갈이라 부른다. 이들 부족 중 대표적인 것은 예맥(濊貊) 계통으로 농업을 주로 하던 속말(粟末), 백산(白山)이다. 속말과 백산부족은 고구려에 복속하였다가 고구려가 멸망하자 영주(營州: 遼寧省朝陽)로 이주하였고, 후에 발해가 성립되자 대부분의 말갈족이 발해의 지배를 받았다. 그러나 흑수부족만은 송화강과 헤이룽강(黑龍江) 하류 지역에 근거를 두고 발해에 대항하였고 발해 멸망 이후 흑수말갈은 거란에 복속되어 여진(女眞)이라 불렸으며, 그후 생여진(生女眞)과 숙여진(熟女眞)으로 나뉘었다가 생여진은 금(金)나라를 건국시킨 주체가 되었다. 遼대 초기 동경(東京)에 속하였고 10세기 발해가 멸망한 후, 여진(女眞)이 흥기하면서 백두산에서 송화강 유역까지 세력을 넓힌 생여진 왕안부(生女眞 完顏部)의 땅이 되었다. 800년전 요와 금의 주력부대가 결전을 벌인 최전방이며, 지금까지 금대의 옛 성 유적이 남아있다. 金代 上京路 會寧府, 元代 요양행성(遼陽行省)에 속하였으며, 淸 가경(嘉慶) 19년 (1814) 성을 세운 이후, 인구가 늘어나게 되었다.



쌍성 승옥문 승은문



승옥문(承旭門)

승옥문은 쌍성의 오래된 門樓(성문위에 지은 다락집), 청
同治 7년(1868년) 쌍성보 성벽을 재건하고, 동쪽에 승옥
문, 서쪽에 承恩문, 남쪽에 永和문, 북쪽에 永治문을 세
웠다. 현재에는 동문인 승옥문만 남아있다. 승옥문은 높
이 11.5미터, 동서 길이 8미터, 남북 넓이 8.75미터, 총
건축면적 70평방미터이다.



옛 모습대로 보존되어 있는 쌍성보 동문(승옥문)의 모습

승은문(承恩門) - 한국독립군의 쌍성보전투雙城堡戰鬪 유적지

1932년 9월 한국독립군과 고봉림考鳳林이 지휘하는 중
국의 길림자위연합군이 전략적 요충지이며 물산의 집결
지인 쌍성보를 공격하여 일·만군을 격퇴한 곳이다.
이 전투에서 중국군은 동문과 남문을 공격하고 독립군
은 서문을 공격하기로 결정한 후 공격을 개시하였다. 성
내에는 만주군 3개여 단이 완강히 저항하였으나 독립군
의 공격으로 북문으로 도주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북
문 밖에는 미리 이와 같은 사태가 있을 것을 예상하고
매복시켜 둔 연합군의 공격으로 대부분 사살되었다.
쌍성보전투에서 한국독립군과 고봉림군의 사상자는
30~40명에 지나지 않았고, 일본군은 부대원의 절반 가
량을 잃었고 만군은 1,000여명의 사상자를 내고 2,000
여명이 투항하였다고 한다. 1932년 11월에 있는 2차 쌍
성보전투에서도 한국독립군은 뛰어난 전투를 벌였으나,
일·만군에 비해 화력이 열세하여 전략적 거점인 쌍성
보를 내주고 동만으로 이동하였다.



이항천이 이끄는 한국독립군이 점령하였던
쌍성보의 서문(승은문). 최근 복원한 것임

송화강, 러시아거리

흑룡강의 지류 중에 하나이며 지류 중에는 최대의 지류
다. 총연장 2000km에 달한다. 중국의 동북부인 길림성,
흑룡강성의 텃줄이다.
백두산 천지에서서 발원하여 두개의 성을 거처며 주민들
에게 필수적인 물을 공급한다. 물이 녹아 있을 때는 기
선의 항해가 가능해서 내륙 운하로 사용되지만 겨울이
길어 5개월간은 얼음 상태로 있는데 이때는 썰매를 이
용한다.



● 북방민족, 북방왕조의 이해

황진상 (광운전자고등학교)

- 요(遼), 송(宋), 금(金), 서하(西夏), 원(元), 고려 등의 10-14세기는 다원적 국제질서
- 북방왕조는 ‘중국사’인지, 아닌지

• 북방민족, 북방왕조의 이해

황진상 (광운전자고등학교)

- 요(遼), 송(宋), 금(金), 서하(西夏), 원(元), 고려 등의 10-14세기는 다원적 국제질서
- 북방왕조는 '중국사'인지, 아닌지

1. 북방 민족의 성장 과정과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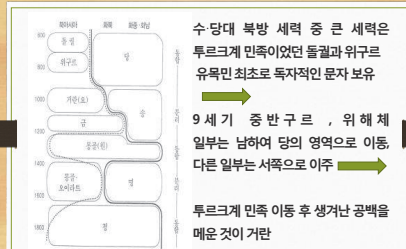
(1) 북방 민족의 성장 과정:

홍노 등장 → 홍노가 한에 복속 → 5호 16국, 위·진·남북조 시대 → 수·당의 중국 통일과 기미 정책 → 거란과 여진의 성장

1. 북방 민족의 성장 과정과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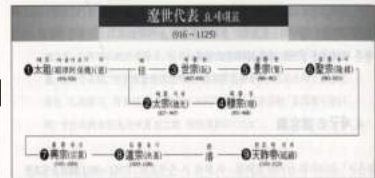
(2) 북방 민족의 성장 요인

- ① 당의 기미 정책에 저항하면서 민족의식 성장
- ② 중원의 선진 문물 수용
- ③ 송의 문치주의 실시와 군사력 약화 → 중원 진출 용이
- ④ 기온 하강으로 북방 민족의 생활 무대 위협



2. 거란의 성장 (907-1125)

- 거란(요) 왕조는 아홉아보기가 황제를 칭한 때부터 천조제가 금에 투항할 때까지 9명의 황제, 210년 동안 존속(916-1125).
- 거란 왕조는 죽명인 거란을 국호로 쓰기도 하고, 중국 쪽으로 요(遼)라는 국호를 쓰기도 함. 국수파가 집권하면 거란, 한화파가 집권하면 요로 불림.



- 907 통일
- 911 평양
- 914 고려
- 925 고려
- 937 개창
- 937 개창
- 937 개창

○ 거란의 태조 아홉야보기: 907년 거란의 각 부 통일
916년 대가란국 세우고 황제라 칭하며 중국식 연호 사용 926년 발해 정벌 중국 역사상 북방 지역을 처음 통일(그 면적이 북송의 두 배), 발해 멸망 후 회군 도중 사망.

○ 거란의 태종: 5대 10국의 혼란기를 이용하여 연(遼) 운(雲) 등 16주를 넘겨 받아 회북 지방 진출
- 연운 16주는 현재 산시와 허베이 북부로 연은 베이징 주변 운은 다퉁 주변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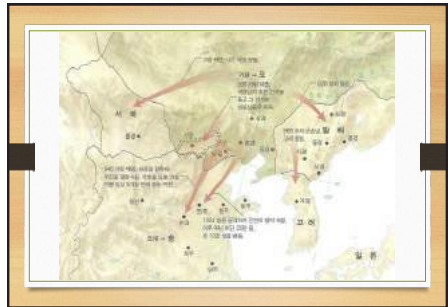
- 979 고려
- 984 연안
- 989 고려
- 993 고려
- 993 고려
- 993 고려
- 993 고려
- 993 고려
- 993 고려
- 993 고려

○ 거란의 성종 때 전성기:
12세에 즉위, 처음에는 어머니인 소(蕭) 태후가 섭정 실시(소씨는 대대로 요의 황족인 아홉씨와 결혼) →
993년 고려 침략(소순녕: 소배압의 동생, 거란 황후의 친정 아버지)
1004년 전연의 맹약 체결

전연(澶淵)의 맹약

- 10세기 후반 거란과 송은 군사적으로 대치하면서 몇 차례 대규모의 군사적 충돌
- 1004년 겨울 거란군은 송의 수도 개봉(開封)에서 약 100킬로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황허강변의 전연군(전주(澶州))를 포위

○ 거란(요)의 기마 군단이 허베이(河北)의 모든 도시를 유린하면서 모든 도시를 유린하면서 황허 연안에 있는 전주(전연)에 밀어 닥침. 황허를 건너면 바로 송의 수도 카이펑(번경). 그러나 보급로가 너무 길어지면서 거란의 성종도 송의 진공과 강화 조약 체결 전연의 맹약 →



요의 북면관제와 남면관제



- 거란은 북방 민족의 본거지를 지키면서 중국 내지를 지배
- 영토 내에 수렵, 유목, 농경 등 다양한 생업을 가진 여러 민족이 포함 통치도 각 민족의 풍속에 따라 다르리는 정책 실시
- 거란인을 비롯한 다른 유목민족들에게는 부족제에 기반을 둔 북면관, 한족과 발해인들에게는 주권제에 기반을 둔 남면관으로 구별하여 성격을 달리하는 사회 통합

고려와 송, 거란의 관계

- 고려는 발해가 거란에 의해 멸망(926년)되자 발해의 유민을 받아들이며 이들을 우대
- 942년에는 거란의 태종이 보내온 낙타 50필을 만 부교 아래에서 굶겨 죽이고, 사신 30인을 유배
- 947년 정중 때 광군을 조직하여 거란 침입에 대비 (광군은 현종 때인 1011년에 광군사로 개편)

고려와 송, 거란의 관계

- 960년 송 건국, 광종 치세 962년 송과 고려 교류 시작.
- 993년 고려는 송에 보내 월병을 청하였으나 출병을 거부 하자 30년 만에 국교를 단절.
- 1089년 송과 고려를 국교를 재개할 때까지 84년 동안 외교 단절.
- 거란의 3차에 걸친 고려 침공(993년부터 1019년 12월까지 약 30년에 걸쳐 침입)후 1019년 양국 국교 회복, 고려는 송 대신에 요의 연호 사용, 요가 멸망하는 1125년까지 활발한 교류

유목 문화의 성장과 이에 따라 나타난 국제 관계의 특징

1.3 서역의 문화유산, 거란의 고대 문화

서역문화의 발달과 유목 문화의 성장에 따라 나타난 국제 관계의 특징

1. 서역 문화의 발달과 유목 문화의 성장에 따라 나타난 국제 관계의 특징

2. 서역 문화의 발달과 유목 문화의 성장에 따라 나타난 국제 관계의 특징

3. 서역 문화의 발달과 유목 문화의 성장에 따라 나타난 국제 관계의 특징

자료3에서 거란과 고려가 대장경을 통한 교류를 활발히 할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인지 설명해 보자.

해설답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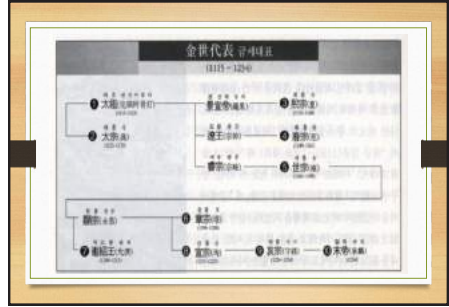
송은 요에게는 전연의 맹약에 따른 화평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고려에게는 요를 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장경을 전해 주었다. 요는 고려와의 관계를 중시하여 "거란대장경"을 고려에 전해 주었다.

3. 서하의 흥기 (1038-1127)

- 독립: 당 중엽 이래 송의 서부 일대에서 활약하던 유목 민족인 탕구트족의 이원호가 황제를 칭하며 하(서쪽에 있어 서하라고 함)를 세움 (1038). 서역과의 통상 요충지 장악으로 송을 압박.
 - 발전: 송, 요와 함께 정립하는 형세를 이룸
- 1040-1042년까지 서하와 송 전쟁, 1044년 양국간 조약 체결. 서하가 송에 신하의 예, 송은 매년 은 7만2천냥, 비단 15만3000필, 차 5만근을 서하에 지급. 국경에 무역장을 개설해 교역을 허용

4. 여진의 흥기와 남송의 건국

- 장백산과 흑룡강 유역에 살던 여진족은 고대에는 숙신, 위진·남북조 시대에는 물길, 당대에는 말갈로 불림.
- 여진족은 10세기 초 이후 요의 지배를 받음.
- 1114년 요를 공격하여 대송, 1115년 하얼빈 남동쪽의 안출호수(按出虎水) 부근 아성(阿城)에 있던 완안부의 주장인 아골타가 자립하여 황제(재위1115~1123)에 올라 국호를 금(金)이라 함.



4. 여진의 흥기와 남송의 건국

- 송의 휘종은 금이 요보다 강하다는 소식을 듣고 금을 이용하여 요를 멸망시키고, 연(燕)·운(雲) 등 16주 등을 회복하고자 함. → 연운 16주를 되돌려받는 대신 요에게 주던 세폐를 금에게 주기로 동맹 체결.
- 아골타의 동생이 태종으로 즉위, 1125년 서하와 연 합하여 요 천조제를 포로로 잡고, 요를 멸망 시킴.

4. 여진의 흥기와 남송의 건국

- 송의 무능을 간파하고 1126년 송의 흥종 정강 원년, 송의 수도 변경(汴京)을 함락, 북송 멸망, 남송과 회수에서 대산관 에 이르는 선을 경계로 대립(정강의 변).
- 1153년 흥종을 시해한 해릉왕이 수도를 연경(燕京, 지금의 베이징)으로 옮기고 중도(中都)라고 함.

4. 여진의 흥기와 남송의 건국

남송 : 북송 멸망 후 남송 건국(1127) → 금이 진회를 석방하여 남송과 화의 진행 → 금 회종 때인 1140년 금의 남침 → 금의 대패, 송의 장군 악비 금군 저지 → 악비 사형에 처해지고 1141년 금과 군신 관계를 맺고 세폐를 바치며 평화 유지

송은 금에 신하라고 칭하며, 송 황제는 금의 책봉을 받도록 함. 금 황제 생일과 신년을 하례하는 사절을 매년 파견, 세폐 대신 세공으로 매년 은 25만냥과 비단 25만 필을 바치도록 약속. [세폐는 형제 관계에서, 세공은 군신 관계에서 바치는 조공이다]

12세기의 금과 송(남송)

금의 4대 해릉왕은 아골타가 일어났던 상경(오늘날 하얼빈)에서 연경으로 천도하였는데, 현재의 베이징이 왕조의 수도가 된 것은 이때가 처음. 이는 북방 출신의 여진인들이 북의 만주와 남의 중원을 동시에 지배하기 위해 두 지역의 접점을 선택한 것.

12세기의 금과 송(남송)

루거우차오(노구교)

1189년 금 세종 때 남북 교통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연경 남쪽 노구강 위로 다리를 건설하기 시작해 1192년 완공. 처음에는 광리교라 부르다가 후에 강의 이름을 따서 루거우차오(노구교)라고 하였다.

금의 이원적 통치 체제

- 여진은 유목민은 맹안 모국제로, 농경민은 주현제로 병용하여 다스렸다. 300호를 1모국부로 하고 10모국부를 1맹안부로 조직하였다. 1모국부에서 100명의 군사를 징집해 1모국군으로 하고, 10모국군으로 1맹안군을 편성하였다.
- 맹안(猛安, 10모국의 장)은 천(千)을 의미, 모국(謀克, 300호의 장-100명 군사)은 '족장'을 의미. 군사제도인 맹안·모국을 1114년 태조가 행정기능 겸임, 평화시에는 생업, 전시에는 군사, 여진인과 거란인에게만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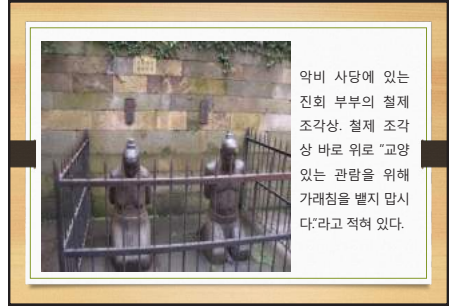
악비(岳飛, 1103~1142)와 진희(秦檜, 1090~1155)

- 민족의 원수 여진족을 물리친 구국의 영웅 악비와 그를 죽이고 원수의 나라에게 고개를 숙여 평화 조약을 구결한 매국노 진희(후세의 민중 평가)
- 1126년 말 북송 왕조는 여진족이 세운 금의 공격 앞에 멸망, 1142년 봄, 금과 북송의 후신인 남송 사이에 평화조약 체결
- 이러한 과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인 바로 악비(1103~1142)와 진희(1090~1155)

악비(岳飛, 1103~1142)와 진희(秦檜, 1090~1155)

- 악비와 한세충 등의 무장이 금의 공격을 어렵사리 막아내고 있던 시기인 1130년 10월, 북송이 멸망한 다음 금에게 포로로 끌려갔던 인물인 진희가 귀환.
- 악비는 진희의 강화 정책에 반대. 진희는 모반의 혐의를 악비를 체포, 1142년 말 처형. 당시 악비의 나이는 40살
- 오늘날 항저우의 서호 남쪽 기슭에는 악비의 사당, 악비의 묘소. 입구에는 진희 부부의 철제 조각상 있음

악비
중국 송대의 영웅



고려와 여진, 금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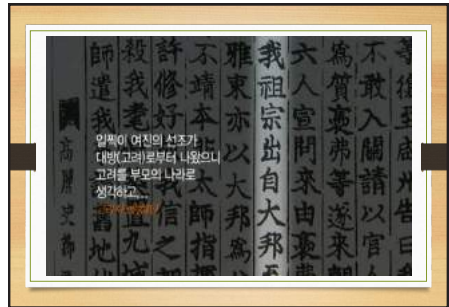
- 아골타의 선조들에 대한 기록이 담긴 '금사'에는 금의 시조는 김함보라는 인물로 원래 '고려'에 살던 인물로 서술.
- 송나라 사람이 금에 갔다가 전해들은 이야기를 적은 '송막기문'에서는 금의 시조가 신라인으로 서술.

고려와 여진, 금의 관계

- 청의 '만주원류고'에서는 "신라왕의 성을 따라 국호를 금이라 했다"며 금의 시조가 신라인이라고 밝힘.
- 청의 역사서 만주실록에서 청 황실의 성은 '애신각라(愛新覺羅)'로 '애신'은 한자어로 금, '각라'는 한자어로 성, 씨족으로 기록.

고려와 여진, 금의 관계

- 고려는 1104년 여진 정벌 실패, 윤관은 신기군, 신보군, 함가군을 구성된 별부반을 편성.
- 1107년 여진 정벌 시도, 동북9성을 쌓고 군대를 주둔 시킴.
- 고려 예종 4년 1109년 동북9성을 여진에게 반환



자료2를 통해 송대 이후 전개된 국제 관계의 특징을 말해 보자.

개사 답안

송과 요, 금, 고려는 세력 균형의 원리에 따라 어느 한쪽을 완전히 제압하지 못한 채 다원적 국제 관계를 형성하였다.

오늘의 질문에 대한 답변

- 현재 중국에서는 거란의 요, 여진의 금, 몽골의 원 그리고 만주족의 청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 중국 역사로 가르치고 중국의 역사라고 생각하고 있나요?

- 2002년 중국 당국은 동북공정을 시작하면서 악비가 더 이상 민족의 영웅이 아니라는 고등중학교 역사 대강을 발표한다. 왜 중국 당국은 민족의 영웅 악비를 갑자기 격하시키려는 것일까?



- 황허 문명권에서 일어난 한족들은 전통적으로 한족 외의 민족들은 오랑캐인 이민족을 생각했다.
- 그런데 만주의 역사를 중국의 역사로 편입하는 동북공정의 역사관에서는 민족의 영웅 악비가 중국 통일의 장애물이다. 어제의 민족 영웅이 오늘은 반통일 인물로 전락한 것이다.

- 여태까지 적국으로 보던 북방계 나라들을 자국사로 포괄하다 보니, 특히 금을 중국의 역사로 편입시키려 하다 보니 할 수 없이 부득이 수천년 내려오던 영웅을 추락시키는 것이다.
- 이러한 궁색함을 보면 동북공정이 얼마나 허구인가를 명백히 알 수 있다.

관련 단원	Ⅲ. 국제 관계 변화와 지배층의 재편 1. 유목 민족의 성장과 다원적 국제 관계		
학습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료를 통해 북방 민족 국가의 성격과 10세기 이후의 국제 관계 특징을 분석할 수 있다. • 대장경을 통해 송, 거란(요), 고려의 문화 교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준비물	활동지, 필기구	교과서	88~89쪽

자료 1 북방 민족 국가의 성격

㉮ 한 대 흉노의 선우

흉노의 최고 군주인 선우는 군사 지휘관이 되어 부족민과 함께 약탈 전쟁을 수행하였다. 선우에게 있어서 약탈전은 매우 중요했다. 유목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획득하는 것은 물론, 흉노인들의 충성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군사적 재능을 보여 주어야 했기 때문이다. "사기" 흉노전을 보면 "천마에서 머리를 빼거나 포로를 잡은 자는 한칸 술을 내리고, 취당한 노획품은 노획한 자에게 주어진다. 만약 사람을 얻으면 그 자를 노비로 삼게 한다."라고 하여 빼앗은 전리품은 전쟁에 공이 있는 자들이 나누어 가졌음을 알 수 있다.

㉮ 거란(요)의 칸

아울아보기는 거란의 한 부족인 임라족의 부족장이었다. 그는 당시 혼란한 증원 지방을 원정하여 한인(漢人)을 붙잡아 자신의 근거지로 옮겼으며, 그중 재능 있는 자를 뽑아 정치, 경제, 문화의 각 방면에 동용하였다. 이런 활약으로 8부족의 추대를 받아 칸에 즉위하였다. 나아가 한인이 가져다준 재정 수입과 관료의 도움을 받아 건제 군주권을 확립하고자 하였다. 아울아보기는 3년마다 교대로 뽑던 칸을 종신제로 바꾸며 중국식 황제를 칭하였다. 여기에 반대하는 부족장들은 과감히 제거하였다. 이 과정에서 동족의 반란이 계속 일어났으나, 이를 철저하게 제압하며 자신에 대한 도전을 용서치 않았다.

자료 2 송 대 이후 국제 관계의 특징

㉮ 서희의 외교 담판

성종 12년(993) 거란(요)이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오자 조정 일부에선 영토 일부를 거란에 떼어 주고 화의를 맺자는 할지론(和議論)이 등장하였다. 서희는 이러한 주장을 과감히 비판하며, 거란(요)의 목적이 고려와의 관계 개선임을 잘 파악하고 외교 담판을 시도하였다. 거란(요) 역시 군대의 진군이 저지당하고 송이 언제 배후를 공격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담판에 임할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고려는 강종 6주를 획득하고, 거란(요)에 조공을 바치는 조건으로 강화를 맺었다. 이를 통해 고려는 새로운 영토를 확보하고, 거란(요)은 송과의 전쟁에 집중하게 되었다.

㉮ 전연의 맹약(1004)

- 송은 군비로서 요(遼)에 매년 비단 20만 필, 은 10만냥을 보낸다.
- (송의) 진중은 (요의) 성종의 모친을 숙모로 삼고, 양국은 형제의 교분을 가진다.
- 양국의 국경은 현 상태로 한다. 양국의 포로 및 국경을 넘은 자는 서로 송환한다.

㉔ 정강의 변(1126)

송은 금과 함께 거란(요)을 협공해 연은 16주를 회복하려 하였다. 그러나 송은 금과 거란의 전쟁 상황만 지켜보며 금에게 약속한 공물을 지급하지 않았고, 오히려 금의 내분을 조장하였다. 이에 금이 남하하여 송의 수도 카이펑을 공격하였다. 다급해진 휘종은 제위를 아들인 흠종에게 물려주고 사태의 처리를 맡겼다. 결국 송은 수도를 포위한 금과 협상을 벌여 영토의 환양과 배상금 지불 등을 약속하는 굴욕적인 강화를 맺었다. 그러나 주전파는 강화에 반발하였고, 끝내 강화는 지켜지지 않았다. 이것으로 인해 다시 금의 총공격이 시작되었다. 40여 일간을 치열한 공방전 끝에 1126년에 수도 카이펑이 함락되었다. 그해가 정강 원년이였다. 금은 흠종과 휘종 이하 왕족과 관료 수천 명을 포로로 잡아 민주로 끌고 갔다. 두 황제는 포로 생활을 하며 여생을 마쳤다.

자료 3 대장경을 통해 본 송, 거란(요), 고려의 문화 교류

대장경이란 불교의 사상과 문화를 집대성한 총서로, 10세기 이후 송, 거란(요), 고려는 모두 이를 제작하였다. 당시에 대장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엄청난 재정과 인력, 정교한 판각 기술뿐만 아니라, 판각을 하는 데 기초가 되는 많은 불경이 필요하였다. 이러한 불경은 송, 고려, 거란 사이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전파되어 동아시아 삼국의 불교 문화를 더욱 풍성하게 하였다.



○ 초조대장경

송은 건국 이후 태조 대에 처음으로 대장경을 완성하였다. 이 대장경을 수입하여 거란은 “거란대장경”을 만들었다. 그리고 고려는 불력으로 거란을 물리치고자 하는 의도를 갖고 거란의 침입이 극성이던 원종 대에 “초조대장경”을 제작하였다.

3차에 걸친 고려와 거란과의 전쟁이 마무리되자 두 나라 사이에는 평화가 찾아왔다. 그러자 불경을 통한 교류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문종 때 의천은 기존 대장경의 내용을 보완하고 주체적인 대장경을 제작하기 위해 송, 거란, 일본의 대장경까지 수입하였다. 그중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이 “거란대장경”이었다. “거란대장경”에는 송의 판본보다 양이 많고 귀중본이 많아 이를 통해 기존 대장경의 오류와 누락을 바로잡고 새로운 “속장경”을 제작할 수 있었다. 당시 송과 거란, 고려는 대장경의 교류를 통해 불교 문화를 융성시켰던 것이다.



활동 과제

- 1 자료 1을 바탕으로 흥노의 선우와 10세기 거란의 카간의 성격을 비교해 보자.

- 2 자료 2를 통해 송 대 이후 전개된 국제 관계의 특징을 말해 보자.

- 3 자료 3에서 거란과 고려가 대장경을 통한 교류를 활발히 할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인지 설명해 보자.



활동지

북방 민족의 성장과 이에 따라 나타난 국제 관계의 특징

반 _____ 번 _____
이름 _____

오늘

- 현재 중국에서는
골의 원 그리고
각하고 있나요?
- 중국 역사로 가

【읽기자료】 오늘날 중국 당국이 가장 고심하고 있는 정책적 과제 가운데 하나가 소수 민족 문제이다. 현재 중국은 공식적으로 55개 소수민족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다. 그 대부분은 중국 중앙정부의 통치에 순응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티베트족이라든가 위구르족 처럼 한족에 대해 커다란 적개심을 지니고 있는 민족도 있다. 이러한 이질적 민족들을 다 독거려 중화인민공화국이라는 정권 아래 안주하게 하는 것이야말로, 중국의 통치자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10여년 전부터 추진되어 한국인의 감정을 심하게 거슬리게 했던 동북공정도 그러한 민족정책의 일환으로 시작된 것이었다. 현재 중화인민공화국은 청조의 확대된 영토를 기본적으로 계승하고 있는데, 청을 이어받은 중화인민공화국이 현재 중국 지역을 통치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장선 상에서 현재 청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신해혁명 이후 20세기 청

은 중국인을 학살하는 잔인한 이민족으로 평가받았고 20세기 영화에서도 청은 부정적으로 표현되었던 것과 대비되는 평가이다. 현재의 중국이 신장, 위구르, 티베트까지 지배할 수 있는 근거를 청에서 찾기 위해, 청의 역사를 현재 중국의 역사로 만들기 위해 『청사』 100권을 편찬 중에 있으며 이른바 ‘청사공정’이 진행 중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중국 교육당국에서는 중국역사의 주체가 한족이 아니라 중화민족이었다고 말하고 있다. 중국 역시 한족이 중심을 이루는 국가가 아니라 ‘통일적다민족국가’라고 한다. 한족만이 아니라 여러 다양한 소수 민족이 어우러져 중국이라는 통일 국가를 이루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여진족이나 거란족, 몽골족, 위구르족, 티베트족, 그리고 심지어 조선족까지 중화민족의 일원이라고 말한다.

중국이 통일적다민족국가라는 관점에 의거한다면, 북송과 남송 뿐만 아니라 요와 금 등도 중국을 구성하는 정권의 하나가 된다. 동일한 논리에서 송과 금 사이의 전쟁도 중국이라는 국가 안에서 일어난 내전에 불과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악비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남송과 금의 전쟁에 내전이라면, 더 이상 악비를 ‘민족의 영웅’이라든가 ‘구국의 영웅’이라 말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대략 1990년대까지만 해도 중국 학계의 악비에 대한 평가는 전통적인 입장을 거의 그대로 계승하였다. 악비와 진희의 대립구도를 민족영웅과 매국노라 이해하였다. 하지만, 중국 당국의 민족정책이 강화되고 통일적 다민족국가론이 대세를 이루어 가면서 악비에 대한 평가에도 미묘한 변화가 생겨나고 있다. 젊은 학자들을 중심으로 정책 당국의 입장에 따르는 견해가 점차 많아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악비 평가의 변화를 잘 보여 주는 것이 『악비연구』라는 부정기 간행물이다. 이 간행물은 악비의 사당이 있는 항저우에서 발간된다. 1988년 1집이 나온 이래 지금까지 5집이 발간되었는데, 1996년에 간행된 4집까지만 해도 악비를 민족 영웅이라 인식하는 논문이 절대 다수였다. 그런데 중국 당국의 민족정책이 강화되며 『악비연구』는 거의 10년 만인 2004년에 이르러 5집이 가까스로 발행되었다. 그리고 5집에 수록된 논문들은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악비와 무관한 것들로 채워져 있다. 사실상 『악비연구』가 아니라 『송대사연구』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악비라는 인물이 지닌 정치적 민감성, 그리고 그로 말미암은 악비에 대한 관심의 저하 등이 반영된 산물이라 하겠다.

【생각해 볼 문제】

1. 악비가 영웅으로 추앙받는 이유를 중국의 전통적인 민족주의적 관점인 화이론 관점에서 서술해 보시오.

예시답안 한족 중심의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보게 되면, 악비는 나라가 처한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외적의 침입을 앞장서서 막아 낸 수호자이자, 잃어버린 영토를 수복하기 위하여 적 점령지로 진군하는 정복자이기도하다. 한국사의 예를 든다면, 이순신 장군인 동시에 광개토태왕인 셈이니, 한족이라는 민족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악비가 영웅 중의 영웅인 것이 어찌보면 당연하다.

2. 현대 중국의 민족정책 변화와 함께 악비에 대한 평가가 변화하고 있는 것을 연관지어 서술하시오.

예시답안 현대 중국의 민족정책은 과거의 한족중심에서 벗어나 중화민족의 재창출을 강조하고 있다. 한족뿐만 아니라 여러 소수민족들을 모두 중국역사의 주체로 인정한다는 것인데, 이런 입장에 서게 되면 악비는 중국인 한족으로서 같은 중국인 여진족에 맞서 싸웠을 뿐이니 내전에서 활약한 장군일 뿐 '구국의 영웅' 또는 '민족의 영웅'일 수는 없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과거 악비에 대한 숭배와 추앙이라는 전통적 시각은 중국 정부의 이런 시각에 따라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3. 남송의 진화와 고려의 이자겸·김부식의 주화론에 대해 평가해 보시오.

예시답안 당시 금과 남송의 힘을 비교하면 진화가 선택한 평화의 길은 어쩌면 남송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였다. 또한 전쟁을 지양하고 평화를 추구한다는 의도에 있어서도 주화론은 그리 나쁘지만은 않을지 모른다. 실제로 불안한 대외 관계 속에서도 강남의 경제력을 눈부시게 성장하기도 했다. 다만, 평화가 어떤 대가를 치르거서라도 추구해야 할 가치가 있는 것인지도 생각해 볼 문제이다. 해마다 비단 25만 필은, 25만냥이라는 막대한 세폐를 바친다는 것은, 결국 백성들에게서 더 많은 세금을 걷어야 했기 때문이다.

금이 중국 대륙에서 세력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금은 고려에 대해서도 압박을 가해오면서 군신의 관계를 요구한다. 당시 고려에서 정권을 장악하고 있던 이자겸, 김부식 등은 대외적 평화가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금의 요구를 승낙했다. 고려의 이같은 선택으로 금

은 고려에 대한 군사침략을 하지 않았다. 이러한 금과의 맹약은 전통적인 고려의 실리 외교의 연장선상에서 볼 때 당시 고려의 조야에서 큰 마찰 없이 받아들여졌던 것이다. 남중국의 남송과 북중국을 장악한 금의 대립관계에 개입하지 않으려는 고려의 전략적 선택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참고자료】

- 강재언, 『선비의 나라 한국유학 2천년』, 한길사, 2003
 김인현 외, 『통으로 읽는 중국사』, 삼양미디어, 2011
 공미라 외, 『한국사 개념사전』, 아울북, 2010
 동아시아사연구회, 『새로보는 중국역사인물』, 범원사, 2004
 박종기, 『새로 쓴 5백년 고려사』, 푸른역사, 2013
 박한제 외, 『아틀라스 중국사』, 세계질, 2007
 미야자키 마사카즈 지음, 오근명 옮김, 『하룻밤에 읽는 중국사』, 랜덤하우스중앙, 2005
 손승철 외, 2009개정교육과정 고등학교 『동아시아사』 교과서, 2014
 신승하, 『세계 각국사 시리즈 중국사』, 대한교과서주식회사, 2008
 안병우 외, 2009개정교육과정 고등학교 『동아시아사』 교과서, 2014
 요시노 마코토 지음, 한철호 옮김, 『동아시아속의 한일 2천년사』, 2005
 이수웅, 『역사 따라 배우는 중국문학사』, 다락원, 2014
 이삼성, 『동아시아의 전쟁과 평화』, 한길사, 2012
 임상선, 『동아시아속의 북방민족』, 『2012년 하계 동아시아사 교원연수』, 동북아역사재단, 2012
 토마스 바필드 지음, 윤영인 옮김, 『위태로운 변경』, 동북아역사재단, 2009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문화교양학과, 『인물로 본 문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2010
 황진상 외, 2009개정교육과정 고등학교 『동아시아사』 교과서, 2014
 KBS 역사스페셜, 『역사스페셜 5』, 효형출판, 2004
 KBS 역사스페셜, 『민주대탐험 2부 - 금 태조 아골타는 신라의 후예』, 2009.09.05.

□ 셋째날 (8.9)

일본관동군 731 부대 진열관 - 동북열사 기념관 - 흑룡강성 박물관
 아성 금대조릉 - 금 상경역사박물관 -하얼빈으로 이동

731 부대 기념관



하얼빈시 남쪽에 위치하는 731부대 유적은 1939년 이시이 시로가 창설한 생화학 실험 기지로, 일본군의 끔찍한 만행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곳이다. 적은 예산으로 대량 살상이 가능한 세균전의 이점에 눈을 뜬 일본은, 1930년대 이곳 하얼빈에 세균전 실험기지를 건설했다. 중일전쟁 중에 지어져 한국, 중국, 러시아 등 국적을 불문하고 약 3,000명에 이르는 포로가 이곳에서 희생되었다. 일본군은 죄수에게 역병과 매독 전염균을 주사하는 등 반인륜적인 행동을 서슴지 않았고, 심지어는 산 채로 화로에 구워 죽이거나 동사시키기까지 했다. 독일군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와 맞먹는 잔인한 범죄가 자행됐지만, 미군정과의 거래로 731부대는 비밀에 부쳐졌다. 생체실험 대상은 주로 한국, 중국, 러시아, 영국 포로들이었다. 전쟁 기간 동안 이곳에서 실험으로 희생된 사람 수는 약 4,000명에 이른다고 한다. 1945년 소련 군대가 하얼빈에 진주했을 때,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일본군은 남아 있던 400명의 포로를 처형한 뒤 이곳을 불태워버리고 달아났다. 그러나 1980년대 초 731부대 장교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문서가 일본의 한 대학에서 발견되면서 하마터면 영원히 비밀로 남겨질 수도 있었던 일본군의 만행이 세상에 낱알이 공개되었다. 이 부대가 세상에 알려진 것은 1980년대 초 한 일본기자에 의해서이며, 그 이전까지는 의학실험 자료를 건네받는 대가로 이시이 시로의 만행을 면죄한 미국인이 알고 있었던 극비사항에 해당되는 것이었다고 한다.

일본군의 소행을 세상에 폭로하기 위해 1982년 731부대가 생체실험을 했던 장소를 전시관으로 개관했다. 당시의 상황을 엿볼 수 있도록 수술도구, 해부도구 등 실제로 사용되었던 도구가 전시되어 있으며, 생체실험을 모형이나 사진으로 확인할 수 있어 만행의 끔찍함이 생생하게 느껴진다.

관동군 731부대는 세균전을 목적으로 조직된 부대로 악명 높았다. 이곳에 한인 희생자 명단이 전시되어 있어 주목된다.

731부대 본부건물에 있는 전시관에는 '조선족'으로 밝혀진 沈得龍의 결혼사진이 전시되고 있다. 그리고 출구쪽 통로에 심득룡과 李清泉의 이름이 '조선족'이라고 현판에 새겨져 있다.

현재 731부대 본부건물과 일부 유적지가 남아있어 일본 관동군 세균부대의 잔혹상을 증거하고 있다. 유적지 옆에 '침화일군 731부대 죄증진열관'이 있어 이 세균부대의 만행을 적나라하게 전시·고발하고 있다.

이미 '조선족'으로 밝혀진 사람들에 대한 자료수집은 물론, 아직도 확인되지 않은 한인들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작업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동북열사 박물관

1931년 세워진 3층 높이의 건물로 하얼빈 경찰청으로 쓰여졌으며 일본이 동북 3성을 침략했을 때 중국인들을 핍박하던 장소이다.

현재는 동북 열사 기념관으로 바뀌어 항일 전쟁의 과오를 잊지 않고 동북에서 활동했던 열사들을 기념하는 전시들로 꽉 차 있으며 한국인 열사들의 이름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흑룡강성 박물관

1904년 러시아인에 의해 지어진 러시아풍의 건물이다. 전시실은 크게 2곳으로 나뉘어져 있다. 자연사박물관에는 고생대에 존재했던 생물체의 화석과 광물, 토양과 현재 흑룡강성에 서식하는 동식물을 전시 하고 있으며 역사박물관에는 고대에서 현재에 이르는 지역 역사를 총망라한 전시품이 진열되어 있다. 숙신의 <석축>에서부터 발해와 료 금 송 원 명 청은 물론이고 근래의 유물까지 전시되어 있다. 지금의 흑룡강성이 한때는 숙신과 부여, 고구려와 발해의 영토이었음은 분명하나, 흑룡강성박물관에는 부여와 고구려의 유물을 진열하지는 않고 있다. 역사적 관점에서 볼 때 박물관에 신석기시대의 유물로 전시되어 있는 링안(寧安)시 출토의 흑요석 <석축>은 숙신의 이름난 활촉이다.



흑룡강성박물관 2층의 원나라시기의 유물진열관에 <대완(大碗, 접시)>이 원나라의 자기로 전시되어 있다. 이 <대완>은 할빈시에서 출토된 것으로, 자기의 안쪽은 국화문이 백상감 되어 있고, 바깥쪽은 국화문이 흑백상감 되어 있다. 자기의 유약이라든가 상감기법을 보면 이는 원나라에서 만든 자기가 아니라 멀리 고려에서 만든 것이 원나라시기에 이곳까지 들어왔다가 출토된 것이다. 이 자기가 한반도의 남단인 전남 강진에서 만든 것인지는 검토되어야 하지만, 생산지인 고려에서 상당히 먼 곳까지 온 것만은 매우 흥미로운 사실이다. 특히 발해의 많은 유물들이 이곳에 전시되어 있다.

<아성(阿城)>

아성(阿城)은 여진족이 건국한 금(金)나라(1115년~1234년)의 발원지. 요나라를 밀어내고 중국 화북지방을 지배한 아구타(阿骨打)의 금나라(1115~1234) 수도 상경(上京)이 옛 이름이다. 1115년 아골타(阿骨打)가 이곳을 수도로 삼은 뒤 금나라를 건국했다. 예전에는 도시였지만 지금은 하얼빈 시에 통합됐다. 아록초객하(阿勒楚客河)가 아성시의 남쪽에서 흐르고, 동쪽은 송늪평원(松嫩平原)이 있다. 아성은 上京會寧府라 불리는데, 상경·중경·동경·남경·서경의 5경을 뒤 넓은 영토를 다스린 발해의 5경제를 금나라가 이어받은 것이다. 발해의 5경제는 고구려의 5경제를 계승했다.

당시 금나라 황실은 발해인을 왕비로 맞았다. 금나라의 성군인 세종의 어머니, 4대 황제 해릉왕의 어머니는 모두 발해 여인이었다. 또한 아골타는 발해인을 신뢰하여 발해 유민 장호(張浩)를 새로운 수도 북경 건설 책임자로 등용했다. 금나라는 발해의 대제국 경영의 경험을 적극 활용하여 국가체제를 확장해 나갔던 것이다.

아성은 처음에 회령으로 불렸지만 나중에는 상경의 이름이 더해지면서 ‘金上京會寧府’로 붙여졌다. 그 뒤 38년간 4대의 치세를 받고 있던 중, 해릉왕이 금나라 수도 상경회령부를 태우고 연경으로 옮겼다. 지금 남아있는 오래된 성벽과 유적은 비교적 보존상태가 잘 되어 있으며, 유적도 많이 남아있다. 흔적이 남아 있는 금나라 발원지 터에 2018년까지 대대적 발굴사업과 함께 금나라 유적지를 새로 만들어 놓는다고 한다. 아성(阿城)은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곳곳에 들어서고 있다.



▲ 아성시의 상경회녕부를 알리는 문

금 상경역사박물관

금 상경역사박물관은 흑룡강성 하얼빈시 아성시 남교에, 금 태조릉과 인접해 있다. 금나라의 첫 수도인 상경 인근에서 출토된 유물을 전시하는 역사박물관이다. 1961년 설립 당시에는 아성박물관이라고 칭하고, 중국에서 유일한 금나라를 주제로 한 전문전시관으로 문을 열었으며, 1986년 금상경박물관으로 바뀌었다. 1988년에 9개의 전시실이 새로 만들어졌다. 금나라의 수도로 봉해졌을 때의 기록을 보존하고 있다. 현재 중국 유일의 금대 문물 소장 박물관으로 약 2100여점의 유물을 소장하고 있다. 그 중에는 국가 1급 보호 문물도 21건에 이른다. 소장 문물 가운데 1급 소장품 30건, 3급 이상의 소장품이 56건이다. 금나라 시기의 생산도구, 전쟁무기, 궁정예기(宮庭禮器), 관부인감(官府印鑑), 종교법기(宗教法器), 금은장식품 등이 진열되어 있다. 그 중 중요한 것들을 석기, 옥기, 陶器, 瓷器, 청동기, 고서화 등으로 나누어 전시하고 있다.

여기에 전시되고 있는 아성의 백성(白城)에서 출토된 금대의 <항해경>과 <쌍용경>은 고려의 동경과 쌍둥이처럼 똑 같다. 고려동경이 금나라시기에 이곳에 온 것인지, 금나라의 동경이 고려로 간 것인지, 아니면 당시에 어느 한 쪽이 다른 한 쪽의 것을 복제한 것인지가 연구되어야 할 유물이다.

또한 흥미로운 점은 아성에서 출토된 문진인 <구형진지(거북이형 문진)> 역시 고려시대의 유물과 유사한데, 고려의 것은 금나라의 것보다 약간 더 크고 더 뚜렷하게 잘 생겼다. 이러한 유물은 상당히 더 있을 것인데, 이들 일부만 보더라도 고려는 금나라나 원나라와 상당히 교역을 하였던 점을 잘 알수가 있다. 타국의 먼 북방에서 우리 선조들이 만든 유물을 보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일이다.

박물관에 나란히 늘어서 있는 금나라 초기 황제들의 흉상 중 특이한 점은 아구다의 넷째 아들 완안종필(完顏宗弼, 여진식 이름은 우추), 곧 금진왕의 동상이 황제들의 것보다 더 크다는 것이다. 완안종필은 유명한 군사전략가로, 송(宋)군을 연달아 격파하며 장강(揚子江) 이남까지 침공했다. 나중에 성을 완안(完顏)에서 첨(詹) 씨로 바꿨는데, 대만의 첨 씨들이 그의 후손이다. 선조를 기리기 위해 대만의 자손들이 돈을 모아 이 큰 동상을 세웠다.

북방민족의 중국 공략은 이후에도 지속돼, 누르하치(奴爾哈赤)는 만주 일대에 흩어져 있던 여진(여진, 명나라 사람들은 女直이라고 불렀다)을 통일하고 중국 역사상 가장 광활한 영토를 거느렸던 청나라를 세웠다.

누르하치는 명나라의 여진족 약화 기도에 의해 나뉘어 해서 여진, 건주 여진, 야인 여진 중 건주 여진 사람이었다. 건주 여진은 조선과 바로 맞닿은 곳에 자리를 잡은 부족인데, 누르하치의 성공에는 조선도 큰 역할을 했다. 조선이 명나라 황제에게 바칠 조공으로 누르하치에게서 수탈 가족을 사갔고, 누르하치는 그 대가로 조선의 농기구를 가져와 이를 화살 등 무기로 만들어 결국 명 대군을 격파하는데 썼기 때문이다.



▲ 입구로 들어가 바라본 금태조릉 모습

금나라 태조 완안아골타(完顔阿骨打: 1068~1123)의 능 (제위 1115~1123)



金太祖 完顏 阿骨打

금나라 정사인 『금사』와 금 건국 당시, 송나라에서 씌어진 『송막기문(松漠紀聞)]을 보면 “금나라 시조의 이름은 함보(函普)인데 처음에 고려에서 온 신분이다”라는 내용과 “여진의 추장은 신라인이고 완안씨는 중국말 왕과 같다”

즉 아골타의 조상은 고려에서 온 신분이며 신라인이라는 것. 아골타의 출생년도를 계산해보면 금나라 시조 함보가 여진에 들어온 시기는 신라 말, 고려 초다. 당시 신라와 고려의 왕권교체가었던 한반도의 사정을 생각하면 두 사서는 같은 말을 적고 있다.

김교헌은 麗金 시대라는 인식을 통하여 고려(남조)와 금(북조)을 우리 민족의 역사로 인식했으며, 박은식의 『몽배금태조(夢拜金太祖)]을 담은 사론이다. 유목민족이라 한 곳에 머무르지 않아 마땅히 城이라고 부를 것이 없었으나, 아골타가 황제가 되었을 때(1115) 궁궐을 짓기 시작했다고 한다.

□ 넷째날 (8.10)

정율성 기념관 - 방흥기념탑, 스탈린공원

정율성 기념관



정식이름은 '인민음악가 정율성 생애사적 전시관' 으로 정율성이 살아 있을 때의 행적을 한 눈에 볼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곳이다. 안중근 의사가 직접 적을 쓰러뜨렸다면 정율성은 노래의 선율로 인민해방군의 심장을 격동시켜 일본을 물리친 혁명가이다. 기념관에는 그의 사진과 친필 악보, 피아노 등과 같은 직접 썼던 물건과 연대기가 전시되어 있다.

정율성 기념관



방흥기념탑은 1957년 일어난 송화강 대홍수를 기념하여 만든 것으로 그 탑의 위에 있는 조각상은 중국 공산당의 영웅들을 조각해 놓은 것이다. 탑에는 당시의 수위가 표시되어 있어 홍수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말해주고 있다. 당시 하얼빈 시민들은 단결하여 필사적으로 홍수를 이겨냈는데 심지어는 자신들의 양식인 밀가루 포대까지 동원하여 독을 쌓았다는 미담도 있다고 한다.

스탈린 공원



하얼빈을 관통해 흐르는 송화강을 따라 1953년 조성한 강변 공원이다. 강의 범람을 막기 위해 세운 길이 약 42km의 제방을 따라 나 있는 산책로와 주변 녹지, 여러 개의 동상과 오락시설들로 이루어져 있다.

공원 중앙에는 제방을 완성하여 범람을 막은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1958년에 세운 홍수방지 기념비가 있다. 이 비는 제방 건설 이전에 홍수로 사망한 수많은 사람들을 추모하는 의미도 같이 지니고 있다.

여름에는 사진촬영 부스와 아이스크림 판매대, 그리고 보트를 타려는 사람들이 많고, 겨울에는 얼어붙은 송화강에서 스케이트, 아이스하키, 썰매를 즐기는 사람들이나 얼음배(프로펠러를 돌려 얼음 위를 미끄러져 가는 배) 등이 많다.

중국 동북지역의 독립운동과 주요 한인 단체

장세윤 (동북아역사재단 교육연수원 교수실장)

1. '만주(중국 동북지방)'와 한민족 독립운동의 의미

일찍이 우리가 '만주'라고 불렀던 중국 동북지역은 고조선·부여·고구려·발해 등 여러 왕조가 존속했던 역사의 무대였고, 고려·조선 시대는 물론 현재까지도 한민족의 활동과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가졌던 전략적 요충지였다. 특히 이곳은 거란·몽골·여진족 등 과거 우리가 야만족으로 여겼던 북방민족의 고향이었다. 이들 북방민족들은 당시 변방으로 여겨졌던 이곳을 바탕으로 넓은 영토와 다양한 민족을 아우르는 대제국을 건설하기도 했다. 때문에 과거 만주지역은 '용흥지(龍興之地)'로 불리기도 했다.

이곳은 특히 19세기 후반기부터 한민족의 이주와 정착이 본격화하였고, 20세기 전반기에는 독립운동의 강력한 근거지가 되어 한국근현대사는 물론 중국근현대사에서도 매우 큰 영향을 끼치는 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곳이었다. '만주' 역시 과거 일상적으로 쓰였던 용어이다. 그러나 지금은 '중국동북(지방·지역)'으로 정착되고 있다. 때문에 우리도 '만주'라는 용어 대신 '중국동북(지방, 지역)'이란 말을 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¹⁾

중국동북으로 이주한 한인(韓人)들은 어려운 조건에서 억척스럽게 살아가면서도 조국과

1) '만주(滿洲)'라는 명칭은 1613년 기록된 『구만주당(舊滿洲檔)』에 처음 보인다고 한다. '만주'라는 말이 널리 쓰이게 된 계기는 청 태조 누르하치가 1616년 후금 정권을 세우면서 자신을 '만주 칸(汗)'이라 하고, 1635년 청 태종(홍타이지)이 기존의 여진인을 대신하여 '만주인'으로 공식 채택한 데서 기인하였다. 이후 점차 부족 명칭에서 지명으로 바뀌어 알려지게 되었다. 즉 '만주'라는 명칭은 청 나라 초기에 여진족 자신의 부족 명칭이었다가 그들의 거주지 명칭으로 쓰이기 시작한 것이다. 지명으로서의 만주는 처음에 요서(遼西)·요동(遼東) 지방을 가리켰지만, 곧 현재 중국동북지방 전역을 지칭하게 되었다. 20세기 초에는 '동삼성(東三省)'으로도 불렸다(윤휘탁, 「만주는 동아시아에서 어떤 곳일까」, 『만주-그 땅, 사람 그리고 역사』, 고구려연구재단, 2005, 12쪽 및 윤영인, 「만주라는 지명에 대하여」, 같은 책, 24쪽). 현재 중국에서는 '만주' 대신에 '동북(지방)', 또는 '동삼성' 등으로 부르고 있다. 주로 요녕·길림·흑룡강성 등 3성지역을 가리키는 개념으로 쓰이고 있다. 최근 중국에서는 '만주'의 유래에 대한 새로운 논문이 발표되어 주목된다(馬偉, 「“滿洲”: 從族名到地名考」, 『東北史地』 2013년 3기[2013.5]).

민족을 위한 희생과 고통을 감내하면서 치열한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 특히 우리에게 잘 알려진 신흥무관학교와²⁾ 북로군정서 사관연성소 등을 통한 인재양성, 서로군정서와 대한통의부, 간도국민회와 대한독립군, 정의부·참의부·신민부, 1930년대 전반기 국민부와 조선혁명당·조선혁명군, 한족자치연합회와 한국독립당·한국독립군 등 민족자치 및 독립운동을 총괄하는 여러 기관의 활동 등은 매우 유명하다. 1920년대 초반 봉오동전투와 청산리대첩 등은 일본 정규군을 상대로 거둔 독립군의 승전으로 잘 알려져 있다. 1930년대에 들어서는 당·정·군이러는 새로운 조직형태를 갖춘 독립군의 항전도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었다.³⁾

1910년대 독립군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 신흥학교(신흥무관학교) 관련 연구는 이현희, 박환, 서중석 등에 의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⁴⁾ 또 2011년 신흥무관학교 설립 100주년을 계기로 기념학술회의가 열리고, 학술지의 특집논문도 발표되었다.⁵⁾ 1920년대 초 남만주 독립운동에 큰 영향을 끼친 대한통의부 관련 연구는 박결순의 연구가 거의 유일한 실정이다.⁶⁾ 추후 중국측 자료를 발굴, 수집하고 중국 동북지역에서 활동한 인물과 단체 관련 지역을 조사하면서 여러 독립운동과 단체들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독립운동이란 식민지상태로 전락한 식민지 피압박 약소민족이 자주국가의 수립과 자립경제의 실현을 위하여 제국주의 종주국의 지배와 침략상태를 전복하기 위해 노력·투쟁하는 근대의 민족저항운동을 말한다. 독립운동은 피압박피지배 약소민족이 현실에서矛盾되고 있는 식민지 종주국의 지배와 침략, 수탈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전개하는 다양한 형태의 저항운동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모순된 현실을 변혁하기 위한 현실변혁 운동으로서의 조직적 무력투쟁은 물론, 여러가지 사회운동이나 농민·노동·문화운동 등

2) 일반적으로 '신흥무관학교'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설립 당시 명칭은 '신흥학교(新興塾)'였으며, '신흥강습소', '신흥중학' 등으로 불리기도 하였다.

3) 중국 동북지방에서의 독립운동 관련 일부 성과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신유하, 『한국민족 독립운동사연구』, 을유문화사, 1985; 박영석, 『만주지역의 독립운동』, 『한국독립운동사의 재조명』,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89; 박영석, 『만주노령지역의 독립운동』,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89; 윤병석, 『독립군사-봉오동, 청산리의 독립전쟁』, 지식산업사, 1990; 한국독립운동가협회 역음, 『중국동북지역 한국독립운동사』 집문당, 1997; 신주백, 『만주지역 한인의 민족운동사(1920~45)-민족주의 및 사회주의운동 계열의 대립과 연대를 중심으로』, 아세아문화사, 1999; 채영국, 『한민족의 만주독립운동과 정의부』, 국학자료원, 2000; 조동걸, 『한국독립운동의 이념과 방략』, 독립기념관, 2007; 장세운, 『중국 동북지역 민족운동과 한국현대사』, 명지사, 2005; 박환, 『만주지역 한민족운동의 재발견』, 국학자료원, 2014; 김영범, 『혁명과 의열-한국독립운동의 내면』, 경인문화사, 2010; 박환, 『만주지역 한민족운동의 재발견』, 국학자료원, 2014.

4) 이현희, 「신흥무관학교 연구」, 『동양학』 19, 단국대 동양학연구소, 1989; 박환, 「만주지역의 신흥무관학교」, 『만주한인 민족운동사 연구』, 일조각, 1991; 박환, 「신흥무관학교에 대한 새로운 사료와 졸업생들의 민족운동」, 『만주지역 한민족운동의 재발견』, 국학자료원, 2014; 서중석, 『신흥무관학교와 망명자들』, 역사비평사, 2001.

5) 『신흥무관학교와 항일무장독립운동』(신흥무관학교 100주년기념 학술회의 발표자료집), 신흥무관학교 100주년기념사업회, 2011 등을 들 수 있다. 학술지 특집논문으로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발간 『한국독립운동사연구』 40집(2011.12)에 한시준·김주용·김태국의 논문이 게재되었다.

6) 박결순, 「大韓統義府 研究」,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4집(1990),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다양한 대중운동이나 조직운동의 형태로 전개되기도 한다.⁷⁾ 하지만 세계사적으로 볼 때 피압박 약소민족 스스로 독립운동을 통해서 독립한 나라는 산업혁명 이후에는 거의 없었다고 할만큼 어려운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⁸⁾

2015년은 광복70주년, 나아가 제2차세계대전 및 ‘아시아태평양전쟁’ 종전70주년이 되는 의미있는 해였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물론 중국일본과 동남아, 구미(歐美) 등지에서도 이와 관련된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었다. 예를 들면 러시아에서는 2015년 5월 9일 제70주년 (對獨抗戰) 승전기념일 행사를 매우 성대하게 치렀으며, 중국 역시 같은 해 9월 3일 항일전쟁 승리(승전) 70주년(勝戰節) 행사를 국가적 차원에서 성대하게 치러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구 소련(러시아)과 중국은 독일과 일본을 상대로 치른 전쟁에서 엄청난 인적·물적 피해를 입었으나, 결국 나치독일과 군국·제국주의 일본을 상대로 하여 승전을 거둔 것으로 자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민족도 세계각지에서 끈질기게 치열한 독립운동을 전개하여 작간접적으로 독립을 ‘쟁취’하는데 크게 기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과 의미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듯하여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수 없다.

이에 해외 독립운동사에서 가장 큰 비중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한민족의 중국 동북지역(만주) 이주와 이곳에서 전개된 독립운동과 주요 단체 등을 간단히 개관하고, 그 특징과 의미를 간략히 정리, 보고하고자 한다.

7) 장세윤, 「중국 동북지역 독립군의 형성과 유형」, 『중국 동북지역 한민족 항일투쟁의 역사적 의의(광복70주년·항전70주년 공동학술회의)』(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중국 연변대학 민족연구원 공동주최 학술회의 발표논문집, 2015년 6월 18일), 3쪽

8) 조동걸, 『한국독립운동의 이념과 방략』,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7, 3~5쪽 참조.

2. 19세기말 ~20세기 초 한인들의 중국 연변(북간도) 이주

일반적으로 만주(중국동북) 지방은 독립운동의 주요 무대가 되었던 곳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간도(북간도, 중국 연변)⁹⁾ 지방은 독립군으로 상징되는 바와 같이 항일무장투쟁 세력의 무장항쟁 근거지로서 이해되어 왔다. 따라서 이곳으로의 한민족의 이주와 그들의 사회경제적 여건을 개관할 필요가 있다.

연변(북간도)지방은 17세기 중엽 만주족이 청(淸)을 건국하여 중국 관내(關內)로 들어간 뒤 19세기 중엽까지는 청의 발상지로 신성시되어 엄격한 봉금(封禁)지대로 설정되었다. 그러나 1860년대 이후 한·중인(특히 韓人)의 이주가 증가하고 러시아가 남하정책을 취하게 되자, 청조가 이를 저지하기 위해 개방정책을 취함으로써 봉금정책은 폐기되었다. 더욱이 1911년 신해혁명(辛亥革命)으로 청조가 멸망한 뒤에는 한족(漢族)의 이주가 자유롭게 진행되었다.¹⁰⁾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걸쳐 (북)간도는 주로 한인들에 의해 개발되었다. 그리하여 1929년의 경우 간도 거주 한인은 그 지역 거주민의 약 76%를 차지하게 되고 약 39만의 인구를 헤아리게 된다.¹¹⁾ 그러나 이 지역이 1909년 '간도협약(間島協約)'으로 중국 영토에 공식 편입된 뒤 중국 정치권력의 비호하에 중국인 이주자가 크게 증가하였다. 또 1910년 대한제국이 일본에 병합된 이후 한인 이주자도 늘어나면서 한인들은 점차 어려운 국면에 처하게 되었다.

즉 1920년대 후반 간도지방의 한인들은 중국관헌의 압박과 횡포, 중국인 지주와의 대립, 일제와의 정치·경제적 대립과 갈등, 그리고 한인 사회 내부에서의 계급분화에 따른 지주·소

9) 간도(間島)라 하면 평안북도 대안(對岸)의 서간도와 함경북도 대안의 북간도로 대별되지만 일반적으로는 북간도(현재의 중국 연변)를 가리키는 경우가 많다. 북간도의 지역범위는 대체로 연길(延吉), 화룡(和龍), 왕청(汪淸), 훈춘(珲春) 등 4개 현(縣)을 가리켰다. 경우에 따라 훈춘 지방은 제외되기도 했다. 그것은 훈춘이 두만강의 지류인 해란강(海蘭江)의 바깥에 위치하였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도 '간도'는 북간도를 지칭하는 의미로 쓰고자 한다. 현재 중국에서는 이곳을 '연변(延邊)'으로 부르고 있다. 이곳은 1952년 '연변조선민족자치구'가 창립되었고, 1955년 '연변조선민족자치주'로 개칭되어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인(韓人, 조선족)의 자치가 허용되고 있다. 1982년의 경우 조선족은 이곳에서 전체 인구의 약 40%인 75만 4,500여명이 거주하였다(『연변조선족자치주개황』, 집필소조, 『연변조선족자치주개황』, 연길: 연변인민출판사, 1986, 2쪽). '만주' 또는 중국동북 지방은 대체로 현재의 요령성·길림성·흑룡강성을 가리킨다. 간도의 지리적 범범이나 개념에 대해서는 일치된 정의가 없고 중국·일본·한국 사이에 일정한 차이가 있었다. 대체로 간도는 만주 동남부 지역, 즉 현재의 길림성 동남부 지역을 가리키는 데, '북간도'라고도 한다. 압록강 이북 지역과 송화강 상류, 압록강의 중국측 지류인 혼강(渾江) 일대를 '서간도'라고 불렀다.

10) 趙中孚, 『清代東三省北部的開發與漢化』, 『中央研究院 近代史研究所集刊(下冊)』 第15期(1986), 臺北:中央研究院 近代史研究所, 1~3쪽.

11) 李勳求, 『만주와 조선인』, 평양:승실전문학교 경제학연구실, 1932, 96쪽.

작농의 대립격화라는 여러 가지 모순에 직면하게 되었던 것이다. 특히 1930년경 한인의 약 87%가 농민인데 그 중의 약 57%가 자작 겸 소작농 또는 전업 소작농이라는 사실은¹²⁾ 한인들의 열악한 처지를 단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1929년경 일본측의 조사에 따르면 만주의 한인중 간도(중국 연변) 거주 한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64%였다.¹³⁾ 그런데 한인의 간도 이주 동기는 경제적 궁핍이 주요인이었다. 실제로 1931년경 이주한 한인을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약 95%가 경제적 곤란에서 이주한 것으로 나타났다.¹⁴⁾ 따라서 간도 이주 한인은 애초부터 경제적 궁핍이라는 굴레를 쓰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1929년경 간도지방에서 한인은 약 3/4의 인구비율을 차지하고 있었고 중국인은 23.7%, 일본인은 0.4%의 비율이었다. 그러나 민족별 토지소유 비율을 보며 한인이 약 56%, 중국인이 약 44%를 점하여 토지 소유비율은 양 민족 사이에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¹⁵⁾ 또한 1933년의 민족별 1인당 토지소유 면적을 보면 한인이 0.34정보(町步, 1정보는 3,000평입)를 가진 반면, 중국인은 1.05정보를 소유하여 거의 3배의 면적을 갖고 있다. 그리고 같은 해 농가 1호당 경지면적은 한인이 3.31정보인데 반해 중국인은 4.8정보였다.¹⁶⁾

1930년의 민족별 계급구성을 보면 한인은 지주가 약 7.3%인데 중국인은 약 44.2%, 자작농은 각각 35.5%와 32.5%, 소작농은 31.9% 대(對) 13.7%, 자소작겸농은 각각 25.4% 대 9.6%로 나타났다.¹⁷⁾ 이를 통해 우리는 한중 양민족의 사회경제적 존립형태에 심한 격차가 있음을 간파할 수 있다. 특히 중국인의 절반 가까운 비율이 지주라는 사실은 결국 한·중 양민족 사이의 대립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소작 한인의 약 59%가 한인 지주로부터 토지를 대여받아 경작하고, 중국인으로부터 농토를 분배받아 소작하고 있는 한인은 오히려 약 41%로 더 적다는 사실이다.¹⁸⁾ 이는 한인 사회 내부의 계급분화가 이미 상당한 수준에 이르러 지주-소작관계가 광범위하게 성립하고 있음을 뜻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를 통해 중국인 지주 못지 않게 한인(韓人) 지주와 소작농 사이에도 계급적 갈등이 폭발할 가능성이 많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다.

12) 金正明 編, 『朝鮮獨立運動』 5, 東京:原書房, 1967, p.585: 滿鐵調査課, 『滿鐵調査月報』 1933.1월호, 115쪽.
 13) 滿洲國軍政部 顧問部, 『滿洲共產匪の研究』, 1937, 509쪽과 이훈구, 앞의 책, 96쪽을 토대로 작성한 숫자임.
 14) 『만주와 조선인』, 102~103쪽.
 15) 『滿洲調査月報』 1933년 1월호 115쪽.
 16) 『滿洲共產匪の研究』, 141, 145쪽.
 17) 주 11과 같음.
 18) 『滿洲共產匪の研究』, 560쪽.

한편 이곳의 소작료는 한인들의 이주 초기는 비교적 낮았으나, 점차 이주자가 증가하면서 소작료가 상승하고 소작조건이 악화되었다. 대체로 1925년 이후부터 소작료가 수확고의 절반을 넘기 시작했다고 한다.¹⁹⁾ 벼농사는 한인 농민들의 장기(長技)였기 때문에 비교적 많은 수익을 주었다. 그러나 간도지방은 산이 많고 기후가 한랭하여 콩과 옥수수, 조 등 잡곡의 경작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은 곳이었다. 특히 이 가운데 콩은 만주의 특산물로서 1920년대 이후 수출이 급격히 늘어났고, 이에 따라 경작면적도 확대되었다. 콩은 1925년부터 1930년 사이 매해마다 간도지방 농산물 수출액의 70~80%를 상회하였고 1930년대 초에는 콩을 비롯한 잡곡 등 곡물의 상품화율이 거의 89%에 달한 주요 농산물이었다.²⁰⁾

콩을 중심으로 한 농산물의 수출 및 상품화율이 높다는 사실은 이곳의 농가경제가 자급 자족 체제에서 벗어나 세계적 규모의 상품유통과정에 편입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1929년의 세계대공황은 간도지방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리하여 쌀 값의 경우 1930년에 예년의 절반이하로 떨어졌고, 콩·옥수수·조 등 잡곡가격도 크게 떨어졌다.²¹⁾ 그 결과 한인 농가는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받게 되었다. 이에 따라 지주와 소작인의 계급적 대립이 심화 확대되었다. 또 공황의 파급으로 생활이 어려워진 한인 농민들은 중국인 고리대자본이나 동양척식회사(東洋殖産株式會社, 약칭 동척)와 같은 일본의 상업 고리대자본을 통해 영농(營農)이나 생활자금을 빌어쓰는 경우가 많아져 이들에 대한 예속이 더욱 심화되었다.²²⁾

거기에 이 지역의 곡물 유통과정이 거의 일본 상업자본의 뒷받침을 받는 곡물상과 중간 상인들에 의해 장악됨으로써 농민들은 더 많은 피해를 보아야 했다.²³⁾ 이러한 간도지역 곡물 수출과정에서의 일본 상업자본의 독점과 동양척식회사의 대부(담보금융)에 의한 토지약탈은²⁴⁾ 한인 농민들의 생존권을 실질적으로 박탈하는 것이었다. 실제로 동척(東拓)이나 '동

19) 현용순이정문·허유구 편저, 『조선족백년사화』 제1집, 瀋陽:遼寧人民出版社, 1985, 64~66쪽 및 『조선족약사』 80쪽(백산서당, 1989 재간본).

20) 콩은 1925년 간도지방 농작물 수출금액에서 약 83%를 차지했고, 1929년에는 76.5%, 1930년에는 약 72%를 차지했다. 또 상품화율은 콩이 88.9%, 기타 잡곡이 35.8%에 달했다고 한다(『滿洲共産匪の研究』, 73,566쪽).

21) 『昭和五年吉林地方朝鮮人情ニ關スル件』, 국회도서관 소장 일본외무성, 육해군성문서 제2,300권, 9,929쪽.

22) 중국인 고리대의 이자는 적어도 1년에 2~3할, 보통 연 6~7할의 높은 비율이었다. 한인 농민들은 이같은 중국인 고리대로 비참한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 동척(東拓)에서는 한인 농민들에게 토지집조(執照, 토지문서)를 저당하도록 해서 대부하는 방법으로 토지를 약탈했으며, 토지를 小作주는 경우 40내지 50%의 소작료를 받았다(『滿洲共産匪の研究』, 576쪽 및 『조선족백년사화』 제1집, 67쪽).

23) 곡물을 사들이는 지방 상인과 도시 중개인들은 거의 일본 독점제법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매관적 존재였다. 三井物産과 三菱商社, 日清製油 등 일본계 4상사에 대한 콩과 콩깻묵(豆粕)의 매수 수출점유율은 1921년에 28.1%였으나, 1926년은 55.6%에 달했고 이 회사 명의 외에 간접으로 그 세력권하에 있는 비율은 훨씬 더 높았다. 또 해마다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었다(柴田善雄, 「日本の對滿洲」通貨政策の形成と其の機能の實態」, 『社會經濟史學』43卷 2호(1977.8) 180쪽).

이권업(東亞勸業) 등의 약탈적 토지점병은 점차 치열해져서 1925년 이후 지주와 자작농은 감소하고 빈농과 고농(雇農)은 크게 증가했던 사례가 이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또 상당수의 한인들이 ‘동척’이나 동아권업의 소작인으로 전락했다. 이로 인해 이주 당시부터 반일감정이 강했던 한인 농민들은 그러한 경향이 더욱 높아질 수 밖에 없었다.

결국 이러한 배경에서 한인 농민을 비롯한 대중은 계급적 평등과 반제(反帝)·반일(反日)투쟁을 주요구호로 내세우는 사회주의 사상에 점차 공감하게 되었고, 중국인 및 한인 지주에 대한 투쟁과 일제에 항거하는 무장투쟁을 전개하게 되었던 것이다.

3. 19세기 말~20세기 초 한인들의 남만주지역(서간도) 이주

중국동북의 남만주(東邊道) 지방은 청조의 신성한 발상지와 팔기병(八旗兵)의 근거지라는 이유로 17세기 중엽이래 봉금지대로 설정되었다. 이후 청조는 약 200년 동안 이 지역에 대한 봉금지책을 기본적으로 고수하였지만 요동(遼東)지방 등에 대한 한족(漢族)의 유입이 꾸준히 계속됨에 따라 봉금지책은 이완되어 점차 부분적 이주와 개간을 허용하고 권장하게 되었다. 청조는 1860년대 이후 이 지역의 부분개방을 전면개방으로 수정하였는데, 1895년 청일전쟁이 종결된 후부터는 적극적으로 이민정책을 추진하였다.

특히 1911년 신해혁명으로 청조가 타도된 뒤 한족의 이주는 정책적 제한없이 자유롭게 전개되었다. 청조는 19세기 후반 이래 중국동북에 한족 이주민이 대폭 증가하자 1907년에 정식으로 봉천(奉天, 1929년 遼寧省으로 개칭)·길림(吉林)·흑룡강성(黑龍江省) 등 3성을 설치하고 동삼성(東三省) 총독을 두었다.

한편 19세기 후반, 특히 1860~70년대 사이에 조선 북부지방에서는 자연재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봉건관리들의 수탈도 심화되었다. 이에 적지 않은 한인들이 비공식적으로 압록강을 건너 서간도(東邊道)지역에 이주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대체로 평안북도 북부지역에서 살던 가난한 농민들이었다. 한족(漢族) 이주민에 의한 동변도지역의 개간은 이미 1840년대부터 시작되었다. 청(淸) 정부는 수시로 이들을 조사하여 내쫓았지만, 결국 1860년대부터는 대세를 거스를 수 없어 이주민에 의한 개간을 승인하지 않을 수 없었다. 1860년대부터 압록강 상류·중류 지역인 장백(長白)·임강(臨江)·집안(輯安)·관전(寬甸) 등의 각 현(縣)에

24) 1926년부터 1931년까지 6년 동안 동척은 농업대부 자금 명목으로 간도지방에 약 827만 엔(圓)을 고리대로 투자하고 결국 약 12만 묘(2,400만 평)의 토지를 약탈하는 데 성공했다(『조선족략사』, 76쪽).

삶의 터전을 마련한 한인 이민들은 1904년에 벌써 4만여명을 헤아리게 되었다.²⁵⁾ 이러한 서간도 지역으로의 이주는 북간도(延邊) 지역 보다 10여년이나 앞선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청정부는 1875년과 1881년에 각각 동변도와 연변지역을 개방하였지만, 한인들의 이주는 그 이전에 이미 진행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남만주(南滿洲) 지역은 이미 한족과 만주족의 이주개간이 시작되었고 추후 한인들의 토지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았으며, 중국 관헌의 탄압이 연변지역보다 심했기 때문에²⁶⁾ 한인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때문에 한인들은 보다 조건이 좋은 연변지역으로 집중하여 이곳이 주요 집거지로 자리잡게 되었다.

압록강 대안지역에 한인들이 많이 이주한 것은 지리적으로 가까울 뿐 만아니라, 만주로 들어가는 길목이었기 때문에 쉽게 접근할 수 있었던 원인이 컸다. 압록강변의 장백·임강·집안현은 대한제국의 멸망 직후인 1911년에 이주민이 급증하는 현상을 파악할 수 있다. 1904년에 비해 무려 32.4%나 급증했다. 이는 궁핍한 농민 뿐만 아니라 일제의 침략 및 식민지 통치에 반감을 품고 망명하는 민족운동 관련인사들이 적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1918년에는 장백과 집안현 등 한인들이 이미 정착한 곳의 이주율은 둔화된 반면, 임강과 관전(寬甸), 흥경(興京) 등 그동안 한인의 이주가 적었던 미개척 지역으로 폭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흥경현의 경우는 매우 이례적인 데, 1910년대 후반에 집중적으로 한인의 이주가 이루어졌음을 나타내고 있다.²⁷⁾

이러한 사정은 당시 흥경현 행정구역이 현재의 유허현(柳河縣) 서부와 무순현(撫順縣) 동부, 본계현(本溪縣) 북부 및 청원현(淸原縣)의 남부를 포괄한 광범한 지역이었다는 사실과 관련된 것이었다. 그러나 이런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지역이 1910년대 후반에 한인들의 이주가 집중되고 있음은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²⁸⁾ 이같은 배경에서 흥경현(1929년 新賓縣으로 개칭)이 정의부 및 국민부, 조선혁명당군의 유력한 근거지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조선혁명당 세력이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던 1934년 경 동변도²⁹⁾ 4개 현에 거주

25) 洪鍾儀, 「在滿 조선인 이민의 분포상황과 생업-1910~1930년을 중심으로」, 『白山學報』41(1993), 120쪽.

26) 孫春日, 「中國 연변조선족 集居區의 형성에 대하여」, 『박영석교수 화갑기념 한국사학논총』 하(대구당, 1992), 232~245쪽.

27) 이러한 興京縣의 이주민 숫자는 중국측 기록으로도 어느정도 확인된다. 즉 新賓滿族自治縣縣委朝鮮族志編纂組編, 『新賓朝鮮族志』(瀋陽: 遼寧民族出版社, 1994), 10쪽에는 1920년 이 지역의 韓人 숫자가 13,326호에 65,222명이 거주하고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1910년대 후반의 짧은 시기에 이렇게 많은 한인들의 이주가 이루어졌는 지에 대해서는 재검토의 여지가 있다.

28) 행정구역의 변동과 韓人들의 北滿지역 이주 등으로 1929년 3월 흥경현의 한인 인구는 26,825명으로 줄어들었다고 한다. (『新賓朝鮮族志』, 9쪽)

29) 동변도란 중화민국 정부가 1914년에 공포한 법령으로 중국동북을 봉천성·길림성·흑룡강성의 3성으로 구분하고 그 아래에 설치한 10개 도(道)의 하나였다(姜在彦, 「在滿朝鮮人の抗日武裝闘争-南滿における東北人民革命軍 第1軍を中心にして」, 『朝鮮民族運動史研究』 제5호(1988), 11쪽). 대체로 현재의 요녕성 동남부·길림성 남부와 압록강以西 사이의 지역을 가리킨다.

하는 한인들의 인구비율은 관전현 2.4%, 집안현 10.4%, 환인현(桓仁縣) 4%, 통화현(通化縣) 4%로 평균 4.4%에 불과했다.³⁰⁾ 이 비율은 이후에도 크게 바뀌지 않았다. 따라서 이 곳의 이주한인들은 연변과는 달리 그야말로 '소수민족'으로 온갖 악조건을 무릅쓰며 살아야 했다. 이러한 경향은 이 지역이 중만(中滿)·북만(北滿)이나 연변지역보다 인구가 조밀한 반면, 가경지(可耕地)가 적었으며 그 가운데도 기경지(既耕地)의 비율이 높고 토질도 양호하지 못한 농업조건으로 확인된다. 또 주목되는 점은 동변도 지역이 다른 만주지역에 비해 소작농 및 자작·소작점농의 비율이 훨씬 높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항일무장투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던 1937년 경의 통계를 보면 통화현은 96%, 집안현은 80%, 임강현은 91%, 장백현은 90%, 무송현(撫松縣)은 75%로 집계되는데, 연변지역의 경우 64%이며 길림성 평균은 52%로 나타난다.³¹⁾ 동변도 지역은 한인(韓人)은 물론 중국인들도 대다수의 농민들이 매우 열악한 처지에서 생존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이 때문에 이 지역은 조선 혁명군은 물론 중국공산당계 항일유격대의 온상으로 기능하기도 했다.

일반적으로 한인 소작농의 경작조건은 매우 열악하였다. 계약형태는 보통 문서계약이 아닌 구두(口頭)계약이었으며, 그 계약기간은 대부분 1년이고 3년 이상의 계약은 매우 드물었다. 또 소작료는 거의 40내지 50%의 고율이었다. 여기에 종자대(種子代)와 현물(現物) 소작료 운반비는 소작인이 전액 부담하였고, 각종 비료대금과 세금도 부담했다.³²⁾ 또한 소작료 이외에 지주가의 가사를 돕기도 하는 등 각종 경제외적 장제가 있었다. 특히 논(水田)의 소작료는 보통 10묘(畝, 약 2,010평) 당 5석(石) 정도의 비율이었고 금납(金納)은 거의 없었는데, 금납의 경우 대두(大豆, 콩)를 표준으로 한 시가를 지주에게 납부했다.³³⁾

1930년대 중반 동변도 4개현을 평균한 경작면적은 연변의 그것과 비교할 때 2/3에도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이 지역에 이주한 한인들은 토지가 부족한 형편에서 상대적으로 좁은 토지를 빌어 소작에 종사했기 때문에, 연변에 이주한 한인보다 더 열악한 조건에서 대다수의 중국인들 사이에 끼어 살아야 하는 형편이었다. 더구나 토지소유권이 없었기 때문에 한인들은 거의 절대 다수가 소작농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압록강 중류 유역의 4개현을 비롯한 남만의 동변도 지역에 사는 한인들은 이처럼 열악한 사회경제적 여건에서 대부분 소작농으로 존재하며 중국인 지주의 착취와 압박에 시

30) 廣瀨進, 「間島及東邊道地方に於ける鮮農の特殊性」, 『滿鐵調査月報』 1936년 9월호, 140쪽. 1920년대 후반 중국 동북 전체에서 한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8%였던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31) 「東邊道治安工作委員會と宣撫工作」, 『宣撫月報』 1937년 7월호, 滿洲國 中央宣撫小委員會 編, 19쪽; 윤휘탁, 「일제하 만주국의 치안숙정공작 연구-만주항일무장투쟁의 내적 구조와 관련하여 -」(서강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5), 37쪽에서 인용.

32) 『滿洲共產匪の研究』, 560~562쪽.

33) 滿鐵 經濟調査會 第2部, 「滿洲各地に於ける小作慣行及小作料」, 『滿鐵調査月報』 1935년 10월호, 64쪽.

달렸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주한인들을 중심으로 강한 민족주의적 성향을 보이게 되었다. 왜냐하면 연변지역과 달리 한민족 내부에서의 계급분화가 거의 없었기에 서로가 비슷한 처지에 있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조선혁명당과 조선혁명군, 국민부 등 독립운동 세력이 비교적 오랫동안 이곳을 근거지로 하여 끈질기게 독립운동을 지속할 수 있었다.

남만주지역 한인들 대부분은 지주의 소작료와 고리대의 이자를 내고 나면 일년 내내 힘들어 농사를 지어도 남는 것이 없고, 오히려 빚을 얻어 생계를 유지해야 했다. 그런데 한번 빚을 얻으면 고리채(高利債)의 악순환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 한마디로 한인농민들은 극도의 빈곤상태에 허덕였던 것이다.

한인들의 이주형태가 단순한 반궁유민(貧窮流民)이 아니라 생활향상을 위한 정주형(定住型) 이민이라는 일본인 연구자의 주장이 있으나,³⁴⁾ 실제로 생활향상을 달성한 이주자는 거의 없었고 오히려 지속적으로 파산몰락해간 것이 당시 추세였다. 1935년 연변의 연길현 양성촌(陽城村)의 경제상황을 세밀하게 분석한 연구 결과도 마찬가지이다.³⁵⁾ 비교적 여건이 좋은 연변의 자작농과 자소작겸농의 경우도 매 가구 평균 118元の 적자를 보이고 있었던 것이다. 이 가운데 대부에 의한 토지구입 등 채투자 비용을 제외하면 평균 10元の 실질적 적자라고 하는데, 이는 매우 모험적 경제활동이었다. 그만큼 위험부담이 컸던 것이다.

그런데 이 지역은 물론 남만에서 토지를 담보로 동양척식주식회사의 융자를 받았다가 이를 갚지못해 토지를 빼앗긴 농민들이 적지 않았다. 또 상품화된 대두(콩) 등의 판매는 거의 일본인이 경영하는 상업자본의 독점을 통해서 행해지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곡물 유통 과정에서의 일본 상업자본 독점과 '동척'의 대부(담보금융)에 의한 토지약탈은 모두 일본제국주의의 경제적 기초를 이루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치열한 항일투쟁 전개의 원인을 제공하기도 했다.

재만한인들의 경제적 처지가 이처럼 열악했기 때문에 1920년대 후반부터 공산주의운동이 급속히 발전하게 되며, 여기에 한인들이 대거 참여하게 되었다. 1920·30년대 민족주의 계열 운동단체들은 거의 관할구역을 정해놓고 거주한인들에게 군자금 명목의 각종 '의무금'을 징수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위에서 보았듯이 재만한인들은 일반적으로 그날그날의 생계를 걱정해야할 정도로 생활의 여유가 없었다. 이 때문에 동만(東滿) 및 북만(北滿)지역은 1930년대 초를 고비로 좌익계 독립운동이 크게 발흥하게 되며 독립운동 단체들의 각종 의연금과 의무금의 징수는 갈수록 어려워지게 되었고, 심지어는 이를 저지하기 위한 자위

34) 金森襄作, 「滿洲」における中朝共産黨の合同と間島5-30蜂起について, 『朝鮮史叢』 1, 朝鮮民族運動史研究會, 1993)

35) 김기훈, 「만주국하 在滿 조선농민의 경제상황-1930년대 延吉縣 陽城村 B屯을 중심으로-」(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연구소 연구보고서, 1996), 46쪽.

단까지 조직하는 사례도 일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만일대에서 활동한 조선혁명당 계열 민족해방운동 조직들은 이같은 여러가지 어려움을 감내하면서도 다양한 전술과 연대 투쟁으로 각종 위기상황을 타해 나갔다.

4. 중국 동북지역(만주) 주요 독립운동 개관

1) (항일무장) 독립운동사의 시기구분과 방략

(1) 시기구분(독립전쟁론)과 특징

- ① 제1기 : 1895~1910 국내중심, 의병전쟁
- ② 제2기 : 1910~1930년대 중반, 중국동북(만주) 중심, 독립군·동북항일연군내 한인 항쟁
- ③ 제3기 : 1930년대 후반~1940년대 전반, 만주 독립운동(독립군과 동북항일연군 내 한인들의 항일전) 쇠퇴, 중국 관내(關內) 지역 운동 발전, 한국광복군과 조선의용대(조선의용군) 활동

(2) 독립운동 방략

- ① 독립전쟁론 : 이동휘·홍범도, 만주연해주 지방, 무장 독립항쟁, 독립군
- ② 외교독립론 : 이승만, 대한민국 임시정부, 임시정부 구미외교부
- ③ 실력양성론 : 안창호, 국내 언론, (비밀)결사, 교육·산업 진흥(육성)
※자치론 : 이광수·최린 등, 국내 민족개량주의, 대일(對日)협력 논리. 이광수, 「민족적경륜」, 『동아일보』(1924.1.2~6, 5회 연재) - 국내외 논란



홍범도 의병장(오른쪽)

2) 신민회의 독립군기지 개척운동과 명망가들의 중국동북 이주

일제의 침략이 본격화하면서 서·북간도 지방을 항일 부흥운동의 기지로 삼아 국권 회복 운동을 전개하려는 계획은 1895년경 김형진(金亨鎭)·김창수(金昌洙; 김구) 등이 구상하고 현지를 답사한데서 출발하였다.³⁶⁾ 그 뒤 이러한 계획은 유인석 의병진영에 전달되었다.³⁷⁾ 1896년 8월 말 중국 봉천성 회인현(懷仁縣)으로 망명했던 유인석 등은 서간도에서 연해주로 이동하여 1910년 6월 '13도의군'을 조직하는 등 국권회복운동을 지속하였다. 또 1900년대 초 북한 지역에서 의병항전을 주도했던 이진룡(李鎭龍)·조맹선·박장호·백삼규(白三圭)·전덕원(全德元)·홍범도·채응언(蔡應彦) 등도 서간도와 북간도 지방으로 망명하여 재기를 도모하였다. 이처럼 서북간도 지역이 독립운동 기지로 중요시된 것은 우리나라와 가깝다는 지리적 이점 및 과거 우리 민족의 활동무대와 연고지라는 인식, 또한 상당수의 한인들이 이미 이주하여 정착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국의 독립운동 기지로 가장 먼저 주목된 곳은 북간도 지역이었다. 1905년 을사5조약의 체결로 대한제국의 멸망을 예견한 이상설·이동녕·이회영·정순만·여준 등의 민족운동가들은 1906년 4월 경부터 북간도의 중심지인 연길현 용정촌을 독립운동 기지의 대상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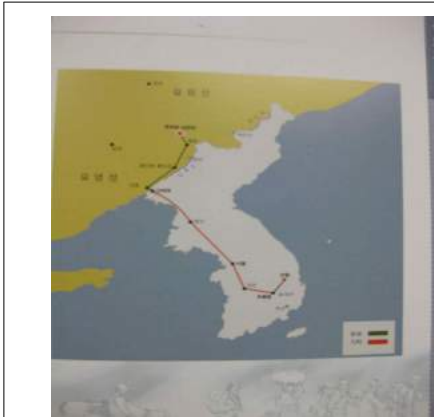
36) 김구(도진순 주해), 『백범일지』, 돌베개, 1997, 68~75쪽.

37) 조동걸, 「전통명가의 근대적 변용과 독립운동 사례 - 안동 川前門中の 경우」, 『대동문화연구』36,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00, 407쪽.

삼고 경영에 착수하였다. 이들은 그 해 가을 용정촌에 민족교육의 요람인 서전서숙 등 각종 민족학교를 설립하여 큰 성과를 거두었다.

한편 신민회는 1907년 4월 안창호의 발기에 의해 양기탁(梁起鐸)·전덕기(全德基)·이동휘(李東輝)·이동녕·이갑(李甲)·유동열(柳東說)·안창호 등 7인이 창건위원이 되고, 노백린(盧伯麟)·이승훈(李昇薰)·안태국(安泰國)·이시영(李始榮)·이회영·이상재(李商在)·윤치호(尹致昊)·이강(李剛)·조성환(曹成煥)·김구·신채호(申采浩)·이종호(李鍾浩)·주진수 등이 중심이 되어 창립되었다. 신민회는 공화주의 이념을 지향하는 비밀조직이었는데, 교육구국운동, 계몽강연·학회운동, 출판운동, 민족산업 진흥운동, 청년운동 등을 전개하여 큰 성과를 거두었다.³⁸⁾

특히 신민회는 일제가 대한제국의 군대해산을 감행한 직후인 1907년 8월 해외의 독립군 기지 개척과 독립군 창건 문제를 최초로 검토하였다. 이후 신민회가 이같은 방침을 본격적으로 논의한 시기는 의병운동이 퇴조기에 접어든 1909년 봄이었다. 이때 신민회는 양기탁의 집에서 전국 간부회의를 열고 국외에 적당한 후보지를 골라 무관학교를 세우고 독립군 기지를 창건하여 강력한 독립군을 양성키로 하였다. 그러나 이 사업이 실현되기 전에일제는 안창호·이동휘·유동열·이종호·김희선(金義善) 등 다수의 신민회 간부들을 구속하였다가 이듬해 2월에야 석방하였다. 이에 신민회는 1910년 3월 긴급 간부회의를 열어 '독립전쟁 전략'을 채택하고, 무관학교 설립과 독립군기지 창건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안동인들의 남해주 이주 경로
(『한국독립운동의 성지, 안동』 2007, 51쪽)



1910년대 민주, 연해주 주요 독립운동 단체 분포도

38) 신용하, 「신민회의 창건과 그 국권회복운동」, 『한국민족 독립운동사연구』, 을유문화사, 1985, 17~24쪽.

‘독립전쟁론’은 한말의 구국계몽운동 및 항일 의병전쟁의 이념과 논리가 합일적으로 발전한 새로운 논리였다. 일본 침략세력으로부터 민족해방과 조국독립을 달성기 위한 가장 정확한 길은 적당한 때에 일제와 독립전쟁을 결행하는 것이라는 독립운동의 이론체계였다. 독립전쟁론의 첫 실천방안이 바로 국외에 독립군 기지를 설치하는 일이었다. 집단적 이주도 구상되었다.³⁹⁾

신민회의 이러한 구상에 따라 1910년 4월 안창호·이갑·유동열·신채호·김희선·이종호·김지간(金志侃) 등이 출국했으며, 가을에는 이동녕·주진수 등도 만주 일대를 비밀리에 답사하여 후보지를 선정하였다. 또 9월부터 12월 사이에 선발대인 이동녕·이회영 등은 독립군기지 건설을 위한 단체이주를 추진했는데, 봉천성 유하현 삼원보에서 기지개척 사업에 착수하였다. 신민회는 1911년 봄에 대대적인 단체이주를 실행하려 하였다. 그러나 총독부가 이러한 움직임을 포착하고 1910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에 걸쳐 황해도 ‘안악사건(일명 안명근 사건)’과 ‘양기탁 등 보안법 위반사건’, 같은 해 9월에 ‘테라우치(寺內正毅) 조선총독 암살음모사건(일명 신민회사건, 또는 105인 사건)’을 일으켜 안창호·이동휘·이갑·유동열·이종호를 비롯한 신민회원 등 600여 명을 대거 체포하였다. 이에 신민회는 큰 타격을 받고 조직이 거의 와해되었다.⁴⁰⁾

이러한 일제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신민회 계열 인사들은 1911년 봄 삼원보에 자치조직인 경학사(耕學社)와 신한민촌을 건설하고 4월(혹은 6월)에 ‘신흥강습소(新興講習所)’를 세우는 데 성공하였다. 이곳에서 이시영·이석영·이회영 일가와 이동녕·양기탁, 이상룡·허위·김대락 일가 등이 가산을 정리하고 집단으로 이주하여 한인 마을과 독립군 기지를 개척하였다. 신흥강습소는 뒤에 ‘신흥무관학교’로 이름을 바꾸었다. 이 학교는 많은 인재를 배출하여 1920~1930년대 독립운동의 초석을 다졌다.⁴¹⁾

이밖에 이동휘는 연해주에서 조직된 권업회의 후원을 받아 1914년 북간도 왕청현 나자구(羅子溝)에 대진학교(大甸學校; 일명 동립무관학교)를 세웠다. 이 학교는 권업회의 주요 임원인 이종호가 자본금 천원을 각출하고 이동휘와 지역 유지인 최정국·염재균·전의근 등이 중국과 협의하여 세웠다. 이 학교는 군사교육과 민족교육을 실시하였다. 일제의 항의로 인해 1916년 폐교되었으나, 이후 북일학교와 북로군정서 산하의 사관연성소등으로 그 맥을 계승하여 1920년대 초의 독립전쟁에 크게 기여하였다.⁴²⁾ 또 신민회 시절 안창호와 함

39) 신용하, 위의 논문, 100~106쪽.

40) 105인사건과 신민회에 대해서는 윤경로, 『105인사건과 신민회 연구』, 일지사, 1990 참조.

41) 신용하, 위의 논문, 100~119쪽.

42) 신용하, 앞의 논문, 119~121쪽.

게 이상촌 건설운동을 추진하였던 김필순(金弼淳)은 1911년 통화로 망명하여 서간도 개척에 참여하였다. 그는 세브란스 의전 동기인 이태준(李泰俊)과 함께 몽고에서 의료사업을 하면서 북만주 치치하얼(齊齊哈爾)에 수십만 평의 토지를 매입하고 100여 호의 한인들을 이주시키기도 했다.

1911년 5월 결성된 권업회 역시 군자금 비축활동의 일환으로 블라디보스톡과 북간도의 혼춘에 각각 '양군호(養軍號)'와 '해도호(海島號)'라는 잡화점을 운영하였다.⁴³⁾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은 1915년 7월부터 1917년 11월까지 밀산의 김성무 농장에서 독립전쟁을 준비하고 있던 홍범도가 북간도 지방으로 진출하여 '대한독립군'을 결성하는 등 1920년대 초의 무장투쟁으로 결실을 맺었다.⁴⁴⁾ 이처럼 1910년대 독립군기지 개척운동의 성과를 바탕으로 1920년대 봉오동청산리전투 등의 독립전쟁, 나아가 1920~1930년대 항일무장투쟁이 전개되었다.

안동 유림의 남만주(서간도) 이주 역시 이같은 신민회 등의 일련의 동향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었다. 안동지역 유지들은 김동삼과 김만식(金萬植) 등을 사전에 현지에 파견하여 답사케 한 뒤, 이주가 추진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⁴⁵⁾ 또 안동 지역사회의 리더 이상룡은 주진수(朱鎭洙)·유인식(柳寅植) 등을 통해 신민회의 위와 같은 계획을 알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10년 12월 경 협동학교 임원들은 만주로 망명한다는 계획을 구체화하고, 김동삼과 김형식(金衡植, 김대락의 아들), 이원일(李源一)을 선발대로 파견하였다.⁴⁶⁾ 이상룡·김대락 등 안동유림 문중의 만주 이주과정에서 김동삼이 큰 역할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김동삼은 줄곧 만주지역 민족운동의 선두에 서서 독립운동과 이주민들의 자치, 행정, 교육운동 등을 선도하였던 것이다.

특히 백하 김대락은 중국(만주) 이주와 망명에 대하여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 그것은 만삭의 임부인 손부(孫婦)와 손녀를 대동한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경술국치로 조국이 일본 식민지가 되었으므로, 분만할 신생아가 일본 백성으로 태어나는 것에 대하여 강한 거부감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⁴⁷⁾

43) 윤병석, 『1910년대 연해주지방에서의 한국독립운동』, 『국의 한인사회와 민족운동』, 일조각, 1990, 208쪽.

44) 장세운, 『홍범도 - 생애와 독립전쟁』, 독립기념관, 1997, 143~154쪽.

45) 김희곤, 『안동 사람들의 항일투쟁』, 512쪽.

46) 위의 책, 513쪽.

47) 조동걸, 「백하일기 기사」, 『우사 조동걸전집』 참조.



중국 길림성 통화현 합니하 신흥무관학교 터 원경

3) 의열단의 창립 - '정의'와 '맹렬'에서 '의열단' 명명

김원봉(金元鳳)이 1919년 봉천(奉天, 지금의 瀋陽)에서 이여성(李如星)과 김약수(金若水)를 만났을 때 고국에서 일어난 3·1운동 소식을 듣게 되었다. 김약수, 이여성은 “독립운동은 반드시 해외에 나와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국내로 돌아가 인민 대중을 토대로 하여 독립운동을 전개하겠다”며 국내로 돌아갔다. 하지만 김원봉은 “무력투쟁을 통해서만 독립을 이룰 수 있다”며 한인 등 독립운동 세력이 모여있던 길림(吉林)으로 갔다. 의군부(義軍府) 등 지린 한인 독립운동계의 핵심 지도자들은 대한광복회 회원이던 황상규, 김좌진, 손일민 등이었다.

3·1운동에 적극적으로 투신한 민중의 저력을 깨닫게 된 김원봉은 지금까지 품어왔던 생각을 바꾸게 된다. 즉 군대-독립군-를 길러서 세계 최강인 일본과 대결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고, 우선 너무나도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사실이 문제였다. 결국 오랜 고민 끝에 도달한 결론이 암살, 파괴, 폭동 등을 내세운 폭력투쟁이었다. 3·1운동에서 민중의 힘을 믿게 되었고, 그 민중의 힘을 이끌어낼 수 있는 선도적 역할을 하자는 것이었다. 작지만 강고한 결사체를 조직하여 적의 중심 인물들을 암살 차단하고, 적의 중심 기관들을 파괴함으로써 민중 속에 내재한 엄청난 혁명역량을 이끌어내는 도화선이 되자는 것이었다. 이때 그는 남만주 서간도 지역에서 폭탄제조법을 배우는 등 일본제국주의와의 무장투쟁노선을 분명히 하였다.

1919년 11월 9일, 길림성 파호문 밖 중국인 농민의 집에 김원봉과 뜻을 같이하는 이들

이 모였다. 모두 13명인데, 거의 밀양, 대구 일원에서 3·1운동 당시 만세 시위를 주도하다가 중국동북으로 건너온 사람들이었다. 즉 김원봉, 윤세주(尹世胄, 1901~1942), 이성우(李成宇), 광경(郭敬), 강세우(姜世宇), 이종암(李鍾岩), 한봉근(韓鳳根), 한봉인(韓鳳仁), 김상운(金相潤), 신철휴(申喆休), 배동선(裴東宣), 서상락(徐相洛) 외 1명이 모여 그 유명한 ‘의열단’을 결성한 것이다.



결성 직후 의열단 대원들의 모습(우측 끝이 김원봉)

황상규가 지도자인 의백(義伯)으로 추대되었는데, 단체의 이름은 ‘의열단(義烈團)’이라 하였다. 공약 제1조에 ‘천하의 정의의 사(事)를 맹렬히 실행하기로 함’에서 ‘정의’의 ‘의(義)’와 ‘맹렬’의 ‘열(烈)’을 따온 것이었다. 암살 대상으로 정한 것이 7가지 부류였으니, 이른바 칠가살(七可殺)로 다음과 같다. ①조선총독 및 조선총독부 고관 ②일본 군부 수뇌 ③대만 총독 ④매국적 ⑤친일파 거두 ⑥적의 밀정 ⑦반민족적 토호열신(土豪劣臣). 다음은 파괴 대상으로 ①조선총독부 ②동양척식회사 ③매일신보사 ④각 경찰서 ⑤기타 왜적 주요 기관 등이었다.⁴⁸⁾ 이들은 본거지를 중국 동북(만주)에서 상해(上海)·남경(南京) 등지로 옮겨다니면서 국내의 일제 경찰서 폭파, 일제 요인 및 친일 주구배 처단 등 무정부주의적 투쟁을 지속하였다.

이후 김원봉은 1920년대 초·중반, 6년 여에 걸쳐 의열단 단장으로 대규모 의열투쟁 계

48) 엄인호, 『김원봉 연구』, 창작과비평사, 1993; 김영범, 『한국 근대민족운동과 의열단』, 창작과비평사, 1997 및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김성동, 「현대사 아래랑-의열단 의백 김원봉①」, 『위클리 경향』 796호 (2008.10.21자) 참조.

획 및 경찰서·동양척식주식회사 등에 대한 폭탄 투척사건 등을 배후에서 지휘 조종하며 개인적 무장투쟁 수단에 의한 일제와의 항쟁을 지속하였다. 그러나 조직적 체계를 갖춘 연합투쟁 및 조직투쟁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1925년에는 중국의 황포군관학교(黃埔軍官學校) 훈련생으로 입소하여 투쟁노선을 변경하게 되었다.⁴⁹⁾

4) 1920년대 초 독립군의 항쟁

(1) 봉오동전투(1920.6.7) 중국 길림성 화룡현 봉오동

- 가) 대한북로독군부(大韓北路督軍府)의 성립: 대한독립군(홍범도), 국민회군(안무), 군무도독부(최진동) 연합부대
- 나) 독립군 900여명 형성, 독립군 수십명 전사, 부상
 - 일본군(‘조선군’) 함경북도 나남 주둔 제19사단 월강(越江)추격대대(야스카와 소좌) 100여명 사상 피해(임시정부는 120여명 사살로 파악)



1920년 6월, 10월 봉오동청산리전투 지역 개념도

49) 이상은 박태원, 『약산과 의열단』(백양당, 1947); 국회사서관, 『북한인물록』(1979); 한홍구 엮음, 『항전별곡』(거름, 1986); 염인호, 『김원봉 연구』(창작과비평사, 1993); 한상도, 『대륙에 남긴 꿈: 김원봉의 항일 역정과 삶』(역사공간, 2006); 김삼웅, 『약산 김원봉 평전』(시대의창, 2008);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인물대사전』(중앙M&B, 1999), 392~393쪽 등을 참고로 작성.

다) 봉오동전투의 의의: '독립전쟁의 제1회전'으로 알려져 독립운동의 열기 고조, 연변(북간도) 일대 동포들 사기 드높임. 동포들 '준 전시상태'로 인식. 대규모 독립군 연합부대의 첫 일본군 정규군 격파

(2) 청산리독립전쟁(1920.10.21~26) 길림성 안도현 3도구(三道溝) 청산리일대

가)일본군의 토벌작전: 연변(북간도)지역 대상 조선 주둔 일본군 12,000여명 집결.

①이소바야시지대(磯林支隊) 4,000명 ②기무라(木村)지대 3,000명

③아즈마(東)지대 5,000명

나) 독립군의 근거지 이동 : 백두산(장백산) 부근 2도구~3도구 일대 포진

다) 독립군 연합부대의 성립(북로군정서, 대한독립군, 국민회군, 군무도독부 등 2,000여명)

: 추격해오는 일본군 아즈마지대 5,000여명과 대결

라) 청산리독립전쟁의 전개

①백운평전투 ②완루구전투 ③천수평(泉水坪, 샘물골)전투 ④어랑촌전투 ⑤맹개골전투

⑥만기구전투 ⑦쉬구전투 ⑧천보산전투 ⑨고동하곡전투

마) 전과: 독립군 전사 130여명, 부상 220여명 계 350여명

(이범석은 독립군 전사 60명, 부상 90명, 실종 200여명으로 파악.

단 실종자 대부분은 돌아왔다고 함)

- 일본군 피해: 1,000여명 피살설(박은식, 『한국독립운동지혈사』),
1,254명설(직후 임시정부 발표, 『독립신문』)

*최대 전과설: 일본군 전사 1,200여명(연대장 1명 포함), 부상 2,100여명
총 3,300여명설(이범석, 과장된 것으로 보임)

* 객관적 전과: 일본군 500여명 내외의 살상된 것으로 보임
(임시정부는 600여명 사살로 파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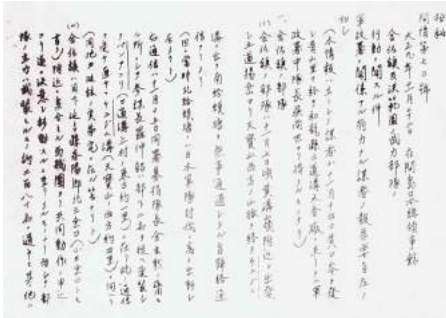
바) 영향: '경신참변'(일명 간도참변, 1920.10~11월)으로 연변일대 한인 농민 다수 피살(북간도 2,626명, 서간도 843명, 합계 3,469명설) 등 큰 피해.

독립군 근거지 뿌리뽑혀 민족주의운동 쇠퇴, 후일 사회주의운동 배태



흑룡강성 해림시 김좌진 흉상(좌)과 일제의 동향보고

(3) 대표적 독립군 사령관



홍범도(1868~1943), 김좌진(1889~1930), 안무(1883~1924), 허재욱(?~?)

1920년대 중반 참의부 독립군의 모습

5) 1920~30년대 만주 연해주 한인 분포와 독립운동 단체(지도)



남만주의 정의부(正義府)참의부(參議府), 북만주의 신민부(新民府)는 한인 교민들의 자치조직이자 독립운동 영도 조직이었다.

6) 1930년대 조선혁명군과 한국독립군의 활동

(1) 조선혁명당과 조선혁명군

가) 중국동북에서의 민족유일당운동과 조선혁명당(1929)의 성립

축성회(개인본위론) → 재만유일당책진회 → 혁신의회 성립

협의회(단체본위론, 단체중심론) → 국민부 → 조선혁명당 성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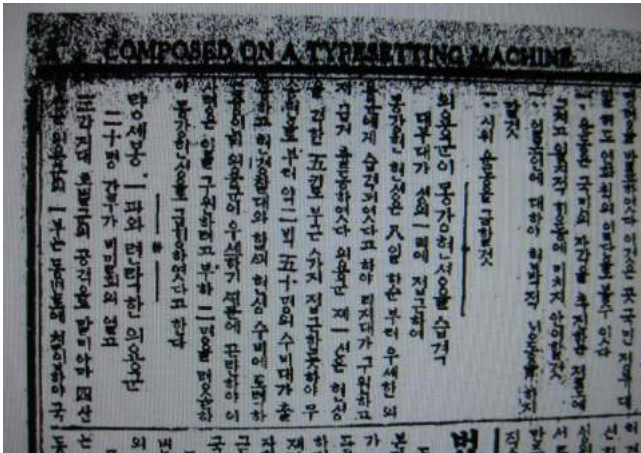
나) 조선혁명당의 '이당치국(以黨治國)' 실현 : 조선혁명당(지도정당, 남만주 일대 독립운동 총괄 등 이념 주도), 국민부(자치행정기관), 조선혁명군(자위조직, 독립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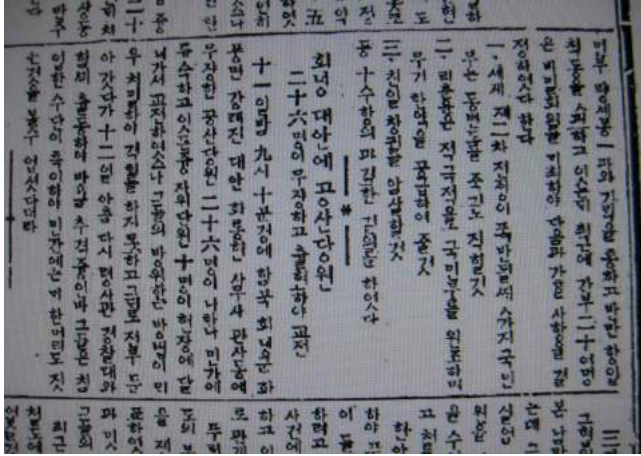
* 조선혁명당 당의(黨義): “본당은 혁명적 수단으로써 구적(仇敵) 일본 침략 세력을 박멸하고 4천년 독립하여 온 국토와 주권을 회복하고,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건설하며, 국민 전체생활의 평등을 확보하여 나아가 세계 인류의 평등과 행복을 촉진한다.”

- 다) 조선혁명군(사령관 양세봉)의 활약: 영릉가전투, 신빈현전투, 중국의용군(요녕민중자위군 등)과 연합 항전, 일본군 및 만주국군 등과 치열한 전투 수행
 - 중한항일동맹회 결성(1935.9.20)과 남만주지역에서의 한중 연합항전
- 라) '조선혁명군정부'의 성립(1934.11)과 민족주의계열 독립군 최후의 항전(1937~38), 동북항일연군과 연계 작전



조선혁명군 독립군 사령관 양세봉 흉상(중국 요녕성 신빈현)





양세봉의 조선혁명군과 이춘윤(李春潤) 중국의용군 부대가 연합작전을 협의하고 결정한 내용. 세계 제2차대전 발발까지 전망하고 있는 사실이 매우 주목된다(신한민보 1933.10.19자).

(2) 한국독립당(1930) 및 한국독립군의 성립

가) 한국독립당(지도정당, 북만주일대 독립운동 총괄 등 이념 주도),
 한족총연합회(자치·행정기관), 한국독립군(자위조직, 독립군)

나) 한국독립군의 활동과 중국 관내지역 이동

- 동경성(東京城)전투, 경박호(鏡泊湖)전투, 쌍성보전투 등.
- 대표적으로 대진자령(수분하)전투(1933), 조선군 이케다(池田)연대 전멸시키고 막대한 막대한 군수물자 노획 전과 거둬. 무기와 피복, 식량 등을 노획함. 독립전쟁 사상 최대규모 군수물자 노획
- 1933년 10월 이후 당수 홍진(洪震), 사령관 이청천, 참모 조경한·오광선·공진원·김창환 등 장병(40여명) 1차이동, 관내 민족운동 세력과 연계. 총 90여명 관내이동

(3) 대표적 독립군 사령관

양세봉(1894~1934) 이웅(이준식, 1900~1966) 이청천(1888~1959) 등

7) 1930년대 동북항일연군의 활동과 한인(韓人)들의 활약

(1) 항일유격대의 성립

반석현(磐石縣)에서 ‘개잡이대(打狗隊, 1931.10)’와 이홍광(李紅光, 용인 출신), 연길현·왕청현·화룡현·훈춘현 항일유격대의 성립과 한인들의 주도적 역할

(2) 동북인민혁명군(1933)

제1사 이홍광, 2사 조국광(중국인), 총사령 양정우(楊靖宇, 중국인)

- 이홍광 200여명 인솔, 평안북도 후창군 동흥(東興) 진입 전투(1935.2.13.):
경관, 일본인 등 9명 사살. 중국공산당계 대규모 항일세력의 국내진입 및
점령이란 점에서 주목되나, 우리에게 별로 알려지지 않음

(3) 동북항일연군(1936): 제1~11군에서 제1~3로군으로 통합

- 가) 제1로군: 남만주, 1·2군(이홍광, 주진, 안봉학, 최현, 김일성)
- 나) 제2로군: 동만주(연변), 4·5·7·8·10군(최용건)
- 다) 제3로군: 북만주, 3·6·9·11군(김책, 허형식)

(4) 보천보전투(1937.6.4)

가) 식민지 ‘조선’ 진입계획(1937.3) → 서강회의(2·4·6사 간부)

① 제6사(북조선과건대, 『동아일보』 1937.6.6. 또는 북조선원정대,
백봉 『김일성전』 1권), 김일성 인솔 → 보천보 진입

② 제2·4사(보조 타격작전, 최현) → 무산 진입

나) 실행: 제4사 → 무산공격(5.15), 제6사 → 보천보 공격(6.4)

① 병력 6사 90명, 국내 조국광복회 80여명(박달, 박금철) 연계

② 경찰 주재소, 면사무소 등 공격

다) 보천보 인구: 한인 274호, 중국인 2호, 일본인 26호

라) 전과: 일인 2명 사살, 경기관총 1정, 장총 6정, 모래권총 2정, 탄약 1,170발,
현금 1,100엔, 의류 2,382점 탈취.

면사무소·소방서·산림 관사주택 각1동 방화 총격 등

마) 조국광복회 10대 강령 및 선전 비라살포: ‘조선인민에 알린다’,
‘일본군대에 복무하는 조선인 병사에게 고함’ 등



1930년대 중반 중국공산당 북민주지역의 지도자들(앞줄 가운데 趙尙志, 뒷줄 오른쪽에서 세번째가 許亨植)

(5) 대표적 항일투쟁가

이홍광(1910~1935), 김일성(1912~1994), 최현(1907~1982), 허형식(1909~1942), 김책(1903~1951), *전광(오성륜, 1898~1947, 변절)



독립군과 동북항일연군이 넘나들던 압록강변의 초소(왼쪽)



길림시 육문중학 구내에 세워진 김일성 동상

8) 중국동북에서 활동하다가 관내로 이동, 한국광복군 지휘관으로 활동한 독립군 장교

이청천(1888~1957, 신흥무관학교 교관, 한국독립군), 이준식(이웅, 1900~1966, 조선혁명군), 김학규(1900~1967, 조선혁명군), 이범석(1900~1972, 북로군정서) 등

5. ‘독립군’의 개념

윤병석은 1980년대에 ①‘독립전쟁론’과 독립군, ②독립군단의 정비와 항일개전(抗日開戰), ③봉오동 청산리의 독립전쟁, ④독립군단의 통합운동과 항전으로 구분하여 주로 1920~30년대 독립군의 역사를 정리한 바 있다.⁵⁰⁾

윤병석은 독립군을 “1860년대 이래 이주한 한인(韓人)이 근 100만에 달하던 서북간도를 비롯한 남북만주와 노령 연해주에서 1910년대에 편성되어, 그 후 1930년대 말엽까지 독립

50) 윤병석, 『독립군사-봉오동, 청산리의 독립전쟁』, 지식산업사, 1990 참조.

전쟁을 목표로 한 강인한 항일진을 전개하였던 민족의 군대”로 정의하였다.⁵¹⁾ 그리고 1910년 전후로부터 독립사상의 큰 조류는 일제를 驅逐하고 민족의 해방과 나라의 독립을 회복할 수 있는 확실한 정도는 일제와의 독립전쟁을 감행, 승리하여야만 된다고 하는 ‘독립전쟁론’이었다고 주장하였다.⁵²⁾

또 그는 독립군을 광의의 개념과 협의의 개념으로 나누어 해석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즉 그는 독립군을 “1910년 경술국치(庚戌國恥) 후 만주·연해주에 근거지를 두고 한국의 독립을 위해 일본제국주의자들을 상대로 무장투쟁을 전개한 인물들의 총칭. 이 용어는 광의의 개념과 협의의 개념으로 나누어 해석할 수 있다. 광의의 해석으로는 경술국치로 국권을 강탈당하고 난 뒤 무력으로 일제 침략자들을 물리치기 위해 활동한 한국 독립운동가들을 독립군이라 할 수 있다. 이 경우는 만주와 연해주에서 활동한 독립군은 물론이고 대한민국임시정부 산하의 한국광복군, 의열단이나 한인애국단 소속의 의사들 및 기타 의열사들까지도 독립군에 포함시킬 수 있다. 그러나 협의의 개념으로는 만주와 연해주를 근거지로 하고 무장투쟁을 전개한 애국투사들을 가리킨다. 일반적으로 독립군이라 하면 이 협의의 개념에 의한 인물들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규정한 것이다.⁵³⁾

그러나 그의 정의는 너무 단순한 것이 아닌가 한다. 특히 투쟁의 대상을 ‘일본제국주의자’, 또는 ‘일제’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개념의 모호성, 그리고 조직의 차원보다는 반일투쟁을 전개한 (개인적) 인물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아쉬운 점이 있다고 판단된다.⁵⁴⁾

한편 조동걸은 한국독립운동을 초기(1910~1919)·중기(1919~1931)·후기(1931~1945) 독립운동 등 3단계로 구분하였다.⁵⁵⁾ 그런데 그는 ‘중기(1919~1931)의 독립운동’에서 동북인민혁명군과 동북항일연군, 이들이 소련으로 넘어가 1942년 편제된 동북항일연군 교도려(국제군단 88여단) 등을 ‘중기 독립운동’ 기간에 전개된 ‘재만(在滿) 독립운동’에 포함하여 서술하였다.⁵⁶⁾ 특히 그는 한국독립운동이 국내독립운동과 재만 독립운동, 재중(在中) 독립운동의 3대 지역운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독립전쟁’은 청산리독립전쟁에서 보듯이 재만독립군이 개척했다고 하였다. 또한 만주에서는 ‘한중연합군’으로서 동북항일연군의 역사가 전개되었

51) 윤병석, 위의 책, 287쪽.

52) 위와 같음.

53) 윤병석, 『독립군』, 『한국독립운동사사전(운동단체편)』 4,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4, 223쪽.

54) 윤병석은 일찍이 한 개설서의 결론 부분에서 동북항일연군을 독립군의 한 유형으로 간단히 파악, 정리한 바 있지만(윤병석, 『독립군사』, 지식산업사, 1990, 288쪽), 이후의 저술에서 이러한 입장을 구체적으로 서술한 경우가 별로 없는 것 같다.

55) 조동걸, 『한국독립운동의 이념과 방략』, 2007 참조.

56) 조동걸, 위의 책, 174~179쪽.

고, 중국 관내에서는 조선의용군과 한국광복군의 역사가 전개되었다고 한다. 따라서 이제는 한국광복군과 조선의용군, 동북항일연군의 역사를 하나로 묶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서로 비하해서는 안되며, 앞으로는 독립운동이나 독립군에 관하여 저술할 때는 같이 소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⁵⁷⁾

아쉬운 대로 필자는 독립군을 간단하게나마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자 한다.

“주로 1910~30년대 중국 동북지방이나 연해주 일대에서 뚜렷한 독자적 조직(체계)과 근대적(공화주의, 혹은 복벽주의나 保皇主義, 사회주의 등) 이념을 갖추고 조국의 국권회복이나 독립, 민족의 해방(또는 반제·반봉건투쟁)을 위해 일본군이나 경찰, 친일파, 조선총독부 관헌이나 밀정, 조선총독부 산하 기관이나 지방조직, 일본 정부나 외무성 또는 그 산하 기관이나 그 소속 인물단체, 괴뢰 만주국 관헌이나 경찰, 만주국군, 친일 조직, 침략조직 등을 상대로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한 조직 혹은 그 조직 소속의 인물들”, “1910년 8월 대한제국이 멸망한 이후부터 1945년 8월 일제가 패망한 시기를 전후하여 일제 강점기에 조국의 독립(혹은 광복)과 한민족의 해방을 위해 일본과 일본군 등 침략세력에 맞서 무장투쟁을 전개한 인물, 혹은 조직이나 단체”

이에 필자는 ‘독립군’의 범주에 1910~30년대 주로 중국 동북지방(만주)에서 활동한 항일 무장투쟁 세력을 포함하되, 중국공산당 만주 지부조직에 가담하여 활동한 한인(조선인)들도 이 개념을 적용하고자 한다. 다만 항일유격대와 동북인민혁명군, 동북항일연군 등의 형성 과정만을 개관코자 한다.

6. 독립군 지도자(홍범도)의 군사금모집 사례와 죽음을 각오한 항일무장투쟁, 그에 대한 동포들의 평가

블라디보스톡에 있는 러시아 극동문서보관소에는 1910년 전후 중국동북(연변) 지방과 러시아 연해주(沿海州)에서 활동중이던 홍범도장군이 쓴 것으로 보이는 일부 편지가 보관되어 있다. 즉 ①홍범도가 사무담당 최원세(崔元世)에게 보낸 편지(1910.8.24), ②홍범도의 편지3통(1910.3.28, 1910.2.11, 1909.11.13) 등 홍범도의 이름이 적혀있는 편지 4통이 바로 그

57) 위의 책, 184쪽.

것이다. 그 중 필체나 내용상으로 보아 홍범도가 직접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편지는 3통이며, 1통은 다른 문사(文士)가 대신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주요 내용은 군자금 모집과 무기 구입, 그리고 독립운동가 사이의 갈등 관계를 보여주는 것들이다. 주요 편지 3통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홍범도의 편지(1909년 11월 13일)

죄은지 오래되어 아쉽습니다. 삼가 살피지 못하여 이처럼 추운 날씨에 여러분 기체만강 하온지 궁금합니다. 저는 예전과 다름없으니 다행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일전에 오셨을 때에도 말씀하셨거니와 이곳에 당하여 우리 겨레도 시급하옵고, 군대의 물건을 사는 것도 매우 시급합니다. 겸하여 타처(他處) 각사(各社)에서는 조속히 필납(畢納)하였는데 귀처(貴處)에서는 어찌하여 여름부터 다른 곳보다 먼저된다고 하였으면서도 차일피일(此日彼日)하니 어찌된 일이 온지 알 수 없습니다. 귀처로 말미암아 나란 일은 말할 것도 없고 내왕인의 신발값도 되지 못할 모양이니 이번에 강00편으로 의연금(義捐金)을 조속히 송부(送付)하여 주시며, 만약 금번에 보내주지 못할 양이면 귀처 공원(公員-공무를 맡아 일하는 사람)을 허커로 오게 하옵소서. 오직 급하와 불비례(不備禮-예를 갖추지 못함: 발표자). 1909년 11월 13일 홍범도(인)⁵⁸⁾

2) 홍범도의 편지(1910년 2월 11일)(대리로 쓴 것으로 추정)

전후 한달이 지났으나 우울함이 날로 심합니다.

삼가 살피옵건데 요즘 몸이 평안하신지 우러러 마음속 깊이 빕니다.

저는 아직은 옛날처럼 잘 지내고 있습니다. 바쁘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바쁘더라도 빨리 처리해야 하므로 우러러 아뢰오니 얼마가 되었던지 영수증에 기록된 원조금(援助金)을 내려보내 주시길 천만 바라옵니다. 경술(庚戌, 1910년) 2월 11일 홍범도(인)⁵⁹⁾

홍범도가 1910년 3월 군자금과 무기를 모집하기 위해 분투한 사실은 그가 보낸 다음과 같은 편지 내용으로 더욱 확실히 알 수 있다.

58) 박환, 『사건으로 보는 러시아지역 한인의 삶과 기억의 공간』, 민속원, 2013, 313쪽. 원본은 블라디보스톡 러시아 문서보관소 소장.

59) 박환, 위의 책, 314쪽. 원본은 블라디보스톡 러시아 문서보관소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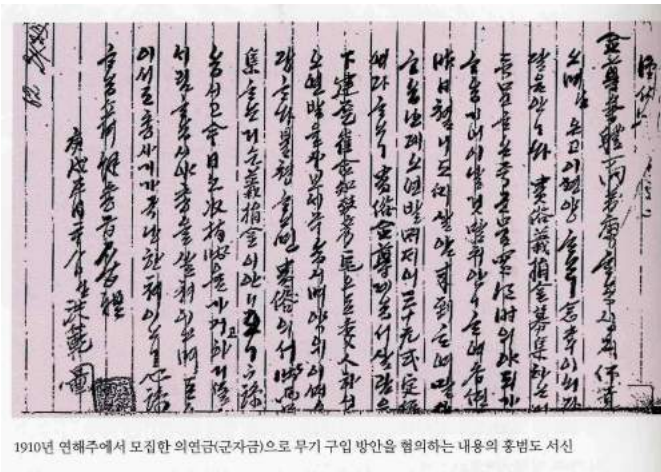
3) 흥범도의 편지(1910.3.28)

맹춘(孟春)에 아뢰옵니다.

여러분 기체 만강하옵신지 우러러 문안 드립니다. 저는 예전과 다름없사오니 다행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귀처 의연금(義捐金) 모집하는 것을 얻어들은즉, 군대 물건을 구입할 때에 되겠다 하옵기에 이날 것 말하지 아니하였더니, 어제 천리도(千里道)에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오연발 한정에 삼십원식(三十元式) 정가(定價)한다고 하니, 귀처의 여러분께서 사람을 하건들(下建芻) 최침치(崔僉知) 치언택(致彦宅)으로 보내시어, 오연발(五連發) 총을 사서 보내주시기 바라며, 만약 이 때를 당하여 허락하지 않으면 귀처에서 얼마간 모집하는 것은 의연금이 아니오니 양해하여 주십시오. 금일(今日)로 거둔 돈을 가지고 하건들로 왕림하여 러시아 총을 살 것이오며, 돈이 있어도 총을 사기가 극히 어려운 처지이오니 헤아려 주십시오. 저는 바빠 불비례(不備禮-예를 갖추지 못함) - 경술(庚戌, 1910년-발표자) 3월 28일 흥범도(인)⁶⁰⁾

위의 편지를 보면, 한인 동포들로부터 의연금을 모집하여 러시아제 최신식 5연발 소총을 구입하려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 계획대로 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1910년 연해주에서 모집한 의연금(군자금)으로 무기 구입 방안을 협의하는 내용의 흥범도 서신

60) 위와 같음.

4) 동포들의 성원과 독립군 지도자 홍범도의 각오

일찍이 봉오동전투와 청산리대첩의 주역으로 크게 명성을 떨친 홍범도장군은 동포들의 성원에 보답하는 길은 오직 죽음으로써 일제에 항거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깊이 명심하고 항상 부하 독립군들에게 강한 정신교육을 실시하고 있었다. 일제 정보자료에 비교적 상세히 파악되고 있는 내용의 주요부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나는 국권의 회복을 뜻한 이래로 이미 10년의 성상(星霜)을 지냈으며 공공연하게 독립의 의군(義軍)을 일으켜 한족(韓族)의 독립을 힘써 외친 이래 1년 반을 지냈다. 그 사이에 고국산천을 버리고 다른 나라의 영토에 우리 전전하여 비참한 생활을 꾸려나가고 있는 우리 동포들로부터 돈과 곡식의 의연(義捐)을 받은 것이 참으로 많은 바 있다. (중략) 우리들 독립 의군의 일단(一團)은 일의 성(成), 불성을 논하지 않고 오직 죽음이 있을 뿐이다. 나는 최후의 한 사람까지 소지(素志 ; 독립에 대한 평소의 뜻) 관철에 분투함으로써 한족 독립을 최후까지 힘을 다하여 외치, 죽은 후에야 그쳐야 한다는 것을 항상 부하에게 훈시하고 있다……(밀줄은 필자)⁶¹⁾

1920년대 독립전쟁의 금자탑 봉오동청산리전투는 한마디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헌신한 투철한 독립정신의 귀중한 결실이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이다.

5) 홍범도 장군의 애국애족 헌신과 그에 대한 동포들의 헌사 - 극찬

1920년 6월 7일 봉오동 전투 직후 홍범도를 본 적이 있던 홍상표(洪相杓)는 『간도독립운동소사』에서 그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회고하였다.

“홍범도 장군은 50여세 가량의 중키쭙 되는 뚱뚱한 몸집에 철홍색 얼굴이 빛나는 장군이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계급장도 없는 일개 졸병과 같은 차림을 하고 있었으며 지휘도나 권총을 차지 않았고 장총 두자루를 휴대하였다. 그는 항상 이렇게 말했다. 지휘도나 권총을 왜 치는가? 그것으로 왜놈을 잡는가? 제 동료나 죽이는데 쓰는것이지. 이런 장총이라야 왜놈을 죽여. 그는 이렇게 말할 때면 버릇처럼 장총을 어루만지는 것이었다. 그의 부관의 말에 의하면 장군의 신품 38식 총은 봉우골 전투에서 노획한 전리품인데 장군이 친히 끌어서 두 자루를 가진 것이라고 한다. 그의 사격술은 유명하여 빈 병을 높이 던져 놓고 좌우로 마음대로 명중시켰다고 한다.”

61) 姜德相·梶村秀樹 編, 『現代史資料』 27(東京: みすず書房, 1976), 360쪽.

그와 싸웠던 일본군마저도 그에 대하여 “호걸의 기풍이 있어 김좌진과 같은 인물이 아닌 듯하고…… 일반 조선인, 특히 그 휘하에 있는 자로부터 신(神)과 같은 숭배를 받고 있다” 고 매우 높이 평가했다.

또 간도 국민회장 구춘선(具春先)이 1920년 8월 27일 중화민국의 행정 책임자인 연길도 윤(延吉道尹) 도빈(陶彬)에게 보낸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홍범도장군의 인품과 나라사랑에 대해 극찬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홍범도 장군은 일찍이 우리나라에서 소위 ‘의병대장’으로 왜적과 여러번 싸워 대승을 거두어 상대할 적이 없었고, 왜인들이 ‘날으는 장군(飛將軍) 홍범도’라고 부르며 감히 접근이나 저항하지도 못했습니다. 또 우리의 이번 독립전쟁의 제1회전이라고 할 수 있는 ‘봉오동 전승’ 역시 홍범도 장군의 공입니다. 이 모든 것이 홍장군의 일편단심으로 인한 것이며, 홍장군의 마음속에는 오직 나라가 있을 뿐이고, 자기 몸과 가정은 돌보지 않고 있습니다. 온갖 정성을 다하고 마음과 몸을 다하여 독립운동에 열성을 다하여 죽은 후에야 그칠 정도로 헌신하고 있으니, 우리 동포 모두가 숭배하고 믿지 않는 자가 없을 지경입니다(此洪範圖君即於敝邦, 所謂義兵大將時與倭屢戰勝捷, 所向無敵, 倭人, 稱爲飛將軍洪範圖, 不敢近接抗抵者也, 且今日我獨立戰爭第一回即鳳梧洞戰勝, 亦一洪君範圖之功也, 蓋此洪君之所以一片丹心, 知有其國而不知有其身其家, 鞠躬盡瘁, 死而後己的熱誠, 使我同胞, 無非崇信者也.)”

7. 중국 동북지역 독립운동의 특징과 의의

만주(노령(露嶺))지역 독립운동의 특징을 일찍이 박영석 교수(전 건국대)는 다음과 같이 정리한 바 있다. ①이 지역의 독립운동은 재만(노령) 동포들의 광범한 지지하에 대중적 기반을 갖고 이루어졌다. ②홍범도·김좌진·오동진·전덕원·이범석·김규식·오광선·이청천·이상룡·김동삼 등 많은 뛰어난 독립운동가들의 활동에 의해 효과적 대일투쟁을 전개할 수 있었다. ③현재 대한민국이 채택한 공화주의이념이 이미 정의부 등 만주지역 독립운동 단체들에 의해 이미 시행되었다. ④투쟁노선에서 교육산업우선주의와 함께 무장투쟁노선을 전개하였다. ⑤일본제국주의에 효과적으로 대항하기 위해 독립운동가들은 당·연합회·정부 등 다양한 조직을 구상하였다. ⑥1930년대 중반 이후 일제의 탄압으로 다수의 독립운동가들이 중국 본토로 이동하여 대한민국임시정부 광복군의 근간이 되었다. ⑦독립운동 단체들은 학연·지연·혈연·종교 등을 중심으로 뭉치는 경향이 있었다. ⑧민족주의 계

열의 독립운동자들은 이념적인 측면이 약했기 때문에 험난한 독립운동의 중도에서 포기하거나, 친일파로 전향한 자가 적지 않았다. ①독립운동가들은 독립전쟁을 통해 일본제국주의의 대륙침략정책이 장차 중일전쟁, 미일전쟁까지 물고 올 것이라고 하는 높은 정치의식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수많은 어려움 때문에 실질적인 대일저항력(對日抵抗力)의 강도(強度)에서는 어느 정도 한계성을 나타냈다고 한다.⁶²⁾

조동걸 교수(전 국민대)는 재만독립운동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①독립전쟁의 역사. ②재만 독립군은 먼저 망명촌과 민족사회라는 경제적·문화적 독립운동기지 또는 근거지를 기반으로 구축. ③독립군은 망명촌을 기반으로 편성되었으므로 망명촌 주민과 함께 독립전쟁을 수행했는데, 이같은 지도층과 민중의 연대가 청산리전쟁에서 승리하는 기본 이유가 되었다. ④독립군 단체는 동포사회를 관할하는 민정(民政)과 독립전쟁을 관할하는 군정(軍政)의 이원조직(二元組織)을 갖고 있었다. 다만 만주 동포사회에 사회주의 사조가 확산되면서 민정의 기반이 변질되기 시작했다. ⑤재만동포 사회에 소작농민이 많았고, 이회영·이상룡·김동삼 등 양반지주 출신자도 망명 후에 소작농으로 전락한 경우가 적지 않았는데, 이들은 유교 대동주의에 무정부주의나 사회주의(공산주의)를 접목시킨 경우가 많았다. ⑥1931년 9·18사변(‘만주사변’) 이후 일본 走狗단체인 조선인민회에 가담하여 ‘만주국’의 ‘2등국민’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졌다. ⑦한간(漢奸, 중국인 민절)과 (한인) 주구배도 독립운동을 가장한 경우가 많았다. ⑧어려운 가운데서도 꾸준히 통일전선을 추구했다. ⑨통일전선 형성시 표방한 강령(조국광복회, 임시정부 건국강령 등)이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남겼다. ⑩1940년부터 동북항일연군(김일성·최용건 등)까지 러시아로 이동하여 만주는 독립운동 공백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⑪해방과 더불어 만주에는 조선의용군이 개신, 진주하였다. ⑫한국독립운동은 국내 독립운동과 재만(在滿) 독립운동, 재중(在中) 독립운동의 3대 지역운동으로 구성되었다.⁶³⁾

한편 중국연변대 김춘선(金春善) 교수는 최근 열린 학술회의에서 ‘중국 동북지역 민족해방운동의 특징과 의의’를 발표했는데, 이 지역 ‘민족해방운동’의 특징과 의의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①장기성과 지구성, ②이념과 방략의 다원성, ③독립기지·유격근거지·군사밀영 등은 항일무장투쟁의 주요한 형식, ④한인공산주의자들은 ‘이중사명’을 충실히 수행, ⑤자치운동

62) 박영석, 『만주노령지역의 독립운동』,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89, 183~184쪽 및 박영석, 「중국 동북지역(만주)의 항일민족독립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7집(1993),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450~452쪽.

63) 조동걸, 「만주에서 전개된 한국 독립운동의 의의」 『한국근현대사의 이상과 형상』, 푸른역사, 2001, 375~380쪽.

의 다양성, ⑥열악한 사회·자연환경에서 항일무장투쟁을 건지, ⑦동북항일연군은 항일민족 전선 및 세계반파쇼 인민전선의 성격을 지닌 한중연합부대라고 주장하였다.⁶⁴⁾ 물론 이러한 주장 가운데 일부 의견, 예를 들면 한인공산주의자들의 ‘이중사명(二重使命)’을 부정하고 이들은 오로지 ‘중국혁명’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서, 중국혁명을 하면서 조선독립을 위한 조선혁명도 하는 ‘이중사명’은 지니지 않는다고 반론을 제기하는 중국측 저술도 있다.⁶⁵⁾

또 김춘선은 중국 동북지역 민족해방운동의 한계로 다음과 같은 의견을 개진하였다.

①1920년대 반일단체들의 지향한 이념과 투쟁방략의 객관성과 현실성이 결여된 점, ②지연·학연·혈연·종교 등의 파벌투쟁, ③이념차이로 인하여 복벽(復辟)세력과 공화(共和)세력 사이, 민족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 사이에서 모순과 충돌이 심했다. ④좌·적 노선의 영향 하에 유격근거지 내에서 설립한 소비에트정부와 토지개혁의 문제점, ⑤반민생단(反民生團) 투쟁은 민족통일전선을 붕괴시켰고, 당 조직과 무장부대의 혁명역량을 대폭 약화시켰다.⁶⁶⁾

한편 김영범 교수(대구대)는 1930년대 독립운동의 특성을 항일전선에서의 한중연합이 실현되어 군사적·재정적 부문의 합작과 지원이 이루어졌다는 점, 그리고 독립운동의 이념이 민족혁명(절대 독립)으로 모아졌고, ‘건국사상’에서는 민주사회주의적·중도적 지향이 강했다고 보았다. 특히 이 시기 독립운동 진영에서의 문제의 진정한 근원(根源)은 민족주의 노선과 좌익 국제주의 노선의 갈등에 있었는데, 후기로 가면서 국제주의자들의 민족주의 민족혁명 노선으로의 복귀현상이 두드러졌다고 보았다.⁶⁷⁾ 이러한 현상은 중국동북지역 독립운동의 특성이라고 할 수도 있다.

또 그는 중국 동북지역에서의 항일 의열투쟁(義烈鬪爭)의 특성으로 ①의열투쟁의 주체는 비교적 큰 규모의 무장독립운동 단체들인 독립군 조직과, 그보다 훨씬 작은 비밀결사형 특종(特種)단체들이었다. ②의열투쟁의 참여층도 독립군 대원이나 특종단체원 등의 전업 독립운동자들이 대부분. ③중국 동북지역에서의 의열투쟁은 1920년대 전반기와 중반 무렵에 가장 활발. ④의열투쟁의 공간은 남·북만주 전역에 분포. ⑤의열투쟁의 표적은 비교적 다양.

64) 김춘선, 「중국 동북지역 민족해방운동의 특성과 의의」, 『중국 동북지역 한민족 항일투쟁의 역사적 의의』, 연변대학교 민족연구원·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공동주최 학술회의(2015년 6월 18일) 발표문, 23~31쪽.

65) 양소전·차철구·김춘선·김철수·안화춘 저, 김춘선·김철수·안화춘 등 역, 『중국조선족혁명투쟁사』, 연길: 연변인민출판사, 2009, 5쪽.

66) 김춘선, 앞의 논문, 32~34쪽.

67) 김영범, 「1930년대 독립운동의 특성」,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8집(1994);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한국독립운동의 이해와 평가 - 광복 50주년기념 4개년 학술대회 논문집』, 1995, 292쪽.

⑥의열투쟁의 성과와 효과는 쉽게 단정하고 평가하기가 어렵다. ⑦이 지역에서의 의열투쟁은 현지 독립운동의 주객관적 조건의 특성과 맞물려 독립군 조직체들의 무장투쟁과 긴밀히 연동되어 있었다.⁶⁸⁾

그에 따르면 중국 동북지역 항일 의열투쟁의 의의는 ①일제의 침략과 강점, 식민통치와 기만적 지배정책에 대한 강력한 규탄 경고와 응징의 의미를 띠고 수행됨. ②절대독립을 추구하는 한민족의 열망과 의지를 전세계에 알리고 인식시킴에 있어 비가시적(非可視的) 효과를 낳으면서 크게 기여. ③제국주의 지배에 맞서 민족자존의 전통과 민족동질성을 되살리고 수호하려는 대열의 최선봉에 섬으로써, 민족정기(民族正氣) 보전 및 재확립에 결정적으로 기여할 중요 인자(因子)가 되었다. ④이 지역은 한국적 의열투쟁의 발원지, 발화점을 이루었는데, 이는 안중근 의거와 의열단 창립의 현장이라는 점에서 특히 의미가 있다. ⑤이곳에서의 의열투쟁은 독립군의 무장투쟁을 보조하고 견인도 하면서 어깨를 나란히 하는 관계로서, 독립운동 역량 축적의 밑거름이 되었다. ⑥중국동북의 독립운동 단체들은 현지 거사만이 아니라, 국내진입 의열투쟁을 부단히 전개하여 전투적 독립운동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음을 국내동포들이 알게하고, 그럼으로써 항일의식과 독립의지를 고취시켰다. ⑦현지 독립운동가들도 의열투쟁 참여를 통해, 또한 의열투쟁의 가시적 성과를 건문(見聞)함으로써 독립전쟁의 지속과 최후승리를 믿고 기약해갈 수 있었다. ⑧ 중국동북 한인 의열투쟁의 주체들은 그 지역의 정치적군사적 지배자이던 친일 군벌정권의 불시탄압과 배척, 홀대, 방해를 받는 경우가 적지 않았고, 인신구속이나 근거지 침탈을 당하는 사례도 상당히 있었다. 그러나 한인 독립운동 지도자들은 중국 경내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에 유의하여 직접대응이나 충돌을 가급적 피했는데, 그러한 태도가 장기적으로는 재만한인들에 대한 중국인들의 기본적 신뢰와 한국독립운동에 대한 도움과 지원을 가져오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1931년 '9.18사변' 직후부터 한중연합 항일의용군, 그리고 항일유격대와 동북 인민혁명군, 동북항일연합군의 결성 등 한중연대(韓中連帶)가 조성될 수 있었다고 한다.⁶⁹⁾

68) 김영범, 「중국 동북지역에서의 항일 의열투쟁의 특성과 의의 - '의열항전'론을 제기하며」, 『중국 동북지역에서의 한·중 항일투쟁』, 한국민족운동사학회·허얼빈시 조선민족예술관 공동주최 학술회의(2015년 10월 23일) 발표문, 51~53쪽.

69) 위의 논문, 53~54쪽.

□ 루밍 리스트

NO	성 명	NAME	TITLE	ROOM NO.	ETC
1	강수웅	KANG SOOWOONG	M		
	구종형	KU JONG HYUNG	M		
2	김 효	KIM HYO	M		
	박대훈	PARK DAEHOON	M		
3	안창국	AN CHANGGUK	M		
	유봉걸	YOO BONG GIRL	M		
4	윤성채	YOON SEONGCHAI	M		
	최정훈	CHOI JEONG HOON	M		
5	한태명	HAN TAEMYUNG	M		
	홍희준	HONG HEE JUN	M		
6	황진상	HWANG JEANSANG	M		
7	곽미경	KWAK MIKYONG	F		
	정미숙	JUNG MI SOOK	F		
8	김신숙	KIM SINSUK	F		
	이정현	LEE JEONGHYEON	F		
9	김예지	KIM YEJI	F		
	김종숙	KIM JONG SUK	F		
10	안정숙	AN JEONGSOOK	F		
	오현정	OH HYUN JUNG	F		
11	유명희	YU MYONG HEE	F		
	이수진	LEE SOOJIN	F		
12	이영주	LEE YOUNG JU	F		
	이은령	LEE EUN LYUNG	F		
13	이현주	LEE HYUN JU	F		
	이혜경	LEE HYE GYEONG	F		
14	전정희	JEON JEONG HEE	F		
	하정숙	HA JEONGSOOK	F		
15	김남주	KIM NAM JOO	F		
16	박서연	PARK SEOYOUN	F		
	강화영	KANG HWAYOUNG	F		
17	장세윤	CHANG SE YUN	M		
18	김정현	KIM JEONG HYUN	F		
19	조태성	CHO TAI SUNG	M		
20	은용경	EUN YONGKYEONG	M		
21	박기원	PARK KIWON	M		

□ 중국 비자

	NO	성 명	영 문	성 별
1조	1	강수웅	KANG SOOWOONG	M
	2	곽미경	KWAK MIKYONG	F
	3	구종형	KU JONG HYUNG	M
	4	김신숙	KIM SINSUK	F
	5	김예지	KIM YEJI	F
	6	김종숙	KIM JONG SUK	F
	7	김 효	KIM HYO	M
	8	박대훈	PARK DAEHOON	M
	9	안정숙	AN JEONGSOOK	F
	10	안창국	AN CHANGGUK	M
2조	1	오현정	OH HYUN JUNG	F
	2	유명희	YU MYONG HEE	F
	3	유봉걸	YOO BONG GIRL	M
	4	윤성채	YOON SEONGCHAI	M
	5	이수진	LEE SOOJIN	F
	6	이영주	LEE YOUNG JU	F
	7	이은령	LEE EUN LYUNG	F
	8	이정현	LEE JEONGHYEON	F
	9	이현주	LEE HYUN JU	F
	10	이혜경	LEE HYE GYEONG	F
3조	1	전정희	JEON JEONG HEE	F
	2	정미숙	JUNG MI SOOK	F
	3	최정훈	CHOI JEONG HOON	M
	4	하정숙	HA JEONGSOOK	F
	5	한태명	HAN TAEMYUNG	M
	6	홍희준	HONG HEE JUN	M
	7	황진상	HWANG JEANSANG	M
	8	김남주	KIM NAM JOO	F
	9	박기원	PARK KIWON	M
	10	은용경	EUN YONGKYEONG	M
	11	조태성	CHO TAI SUNG	M

